



10

1988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10호

(루계 492)



## ◆◆◆◆◆◆◆◆ 차 례 ◆◆◆◆◆◆◆◆

우리는 우리 당이 제일 좋아.....	4
전사가 사수한 땅.....	5
위대한 수령 <b>김일성</b> 동지 .....	6
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네.....	6
눈부시다 .....	7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 그이는 세계혁명의 기수 .....	15
꽃과 위인 .....	16
당의 모습 .....	16
혁명의 씨앗을 키워온 위대한 사랑에 대한 숭고한 예술적 화폭.....	17
나의 곁엔 언제나 어머니 있어 .....	21
영웅에 대한 생각.....	22
내 마음엔 언제나 하늘이 열려있네 .....	23
빛나는 삶 .....	24
진 심 .....	24
인사 .....	25
인간들의 화원에서.....	34
달밝은 창가에서 .....	34
어느 한 병원에서.....	34
그대가 듣는 말, 그대가 하는 말.....	35

인 상 .....	35
나는 왜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	36
나는 로동당원이다.....	37
뜨거운 담보.....	39
먼 후날에도.....	40
그는 평범한 리당비서였다.....	41
모 자.....	44
조국의 하루하루는.....	44
그들은 구면이었다.....	45
아버지 .....	46
헤어져 살아도 남이 아니다.....	53
5 호도여 .....	57
압록강의 영원한 흐름처럼 .....	58
전우들에게 .....	61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와 가사창작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62
생활이 진실하게 안겨옵니다.....	67
과학자의 모습 .....	68
고마운 품 .....	69
진지한 생활체험, 그것은 창작의 터전이다.....	71
그 웃음속엔... ..	72
호박잎에 비물이 구을 때면.....	72
병사의 한생 .....	73
작가의 문체 .....	74
시적 정황과 전형화문제 .....	77
영원한 삶의 위치로 .....	79
조국의 품 .....	80

# 우리는 우리 당이 제일 좋아

리정술

효성을 다하여  
내 어머니를 모시는것은  
이웃집 부모보다 인정이 깊고  
자식에게 덕을 많이 주어서인가  
아니면 세상일을 잘 알아서인가

재부가 없어도 나는 좋고  
남보다 못해도 나는 좋더라  
나를 낳아 키워주느라  
머리에 흰서리 일찍 내린 내 어머니

그러하더라  
이웃집 어머니 아무리 좋아도  
나를 낳은 내 어머니 제일이듯이  
나를 키운 우리 당이 제일 좋더라

나에게 영원히 고동높은 심장을 주고  
정깊은 손길로 쓰다듬어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며 한생의 보호자인  
나의 어머니 우리의 조선로동당

아, 오늘도  
이 나라 천만자식 하나같이 보살피며  
밤에도 창가의 불을 끄지 못하는  
어머니 우리 당

우리 당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처럼  
너와 나 우리 인민을 위해  
심려깊은 밤과 밤을 지새이라

우리 당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처럼  
더 화려한 집들을 짓고

더 좋은 옷감을 짜자고 애쓰라

자식을 키워본 사람  
자기를 키워준 제 어머니 못잇듯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키워준 당을 못잇으리

만일 그 누가  
제 어머니 덕이 없다 버린다면  
그는 벌써 자식이 아니듯이  
키워준 당을 배반한다면  
자기 가슴속 심장이래도 고동을 멈추리

우리는 오직 우리의 어머니  
우리 당만을 알고있노라  
그 품에서 피를 받아안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인민이기에

그 위대한 사상  
그 위대한 령도  
그 위대한 인간애를  
온 누리에 빛내고저 우리는 사노라

아, 태양과 만물을 가를수 없고  
어머니와 자식을 가를수 없듯이  
한피줄로 이어지고  
한 심장의 숨결로 고동치는  
우리 당과 인민은 가를수 없나니

세상에 어머니 수천만이어도  
나를 낳은 내 어머니 제일이듯  
세상에 당들이 많고많아도  
나를 키운 우리 당이 제일이더라

# 전사가 사수한 땅

윤영탁

포화속에도

새싹이 움트는 봄날

여기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앞에

우리 수령님 계시다

가슴으로 열한발의 적탄을 막아낸

한 영웅전사를 친히 마주하시고

전선동부

이름없는 한 고지를 쉬이 찾아

몸소 색연필로 표시해주시며

한없이 자애에 넘쳐 말씀하시여라

-여기서 동무가 싸웠지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यो

순간 온 나라가 가슴들먹이는듯

전선과 후방을 한품에 안으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가시며

원췌격멸의 큰 경륜을 펼치시는

최고사령부의 작전도

수만대군의 진격로도

화살표 몇줄로 표시되는 지도우에서

한 전사가 싸운 나지막한 고지를

그리도 소중히 새겨주실줄이야...

한없는 고마움에

전사의 랑볼엔 진주같은 이슬이 맺히는데

그이께서는 다시금 다감히 말씀하시여라

이제 동무가 지켜낸 땅에도

꽃이 피고 새가 울것이라고

그때엔 우리 인민들이

동무를 더욱더 잊지 못할것이라고...

아, 사람들이여 듣는가

열한발의 적탄이 뚫고간 그 가슴에

이 세상의 온갖 불사약 다 안겨주시며

끝내 소생의 숨결을 부어주시더니

오늘은 그가 사수한 그 땅을 두고조차

이렇듯 조국의 기억속에 새겨주시며

영원한 삶을 수놓아주시는 그 사랑

바로 이속에 있구나

화염속에 묻혀도 물속에 잠겨도

이 땅과 함께 영생하는

우리 전사들의 삶에 대한

고귀한 그 대답이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 전사들이

어찌 피흘리기를 주저하랴

그 한몸이 한줌의 흙이 되들

조국땅을 지켜

어찌 한치라도 물러설수 있으랴

아, 두번다시 세상에 태어난 전사

조국 위한 싸움터로 나아가리라

수천수만발의 적탄도

이 땅과 함께 영생할

우리 전사들의 삶을

결코 빼앗지 못하리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사나올라흐 한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상 안겨주시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  
보람찬 삶의 길 가르쳐주시었나니  
오래동안 짓눌려온  
이 나라의 운명  
빛나게 개척되었어라

동방의 태양 높이 솟아  
이 세상 구석구석에  
찬란한 빛발 한껏 뿌리며  
혁명의 앞길 밝혀주어라

그이께서 이끌어주시기에  
만민은 평등을 누려가고  
그이께서 깨우쳐주시어  
세상 인민들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었어라

그이께서 조국을 번영의 길로 이끄시고  
원썬들을 전멸케 하시었나니  
간악한놈들 나라를 노릴 때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인민은 용감히 일떠나  
원썬들을 단매에 물리쳤어라  
  
그이는 위대성의 상징  
그이는 용감성의 화신  
그이 원썬에게 죽음을 주고  
벗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네  
여기 조선에선  
배움의 길 잃고 헤매는 사람 볼수 없고  
교육의 화원 펼쳐지고  
배움의 꽃대문 열리어  
집집마다에서 글소리 울려퍼지여라  
그이께서 사람들모두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키우시었어라

위대한 수령님  
우리에게 안겨주시었어라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상을

(필자는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술인협회 총서기.  
작가임)

가사

## 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네

윤경

달빛이 흐르는 유정한 이 저녁  
한가정 나란히 거닐 때에도  
고마운 은덕에 깊어지는 생각  
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네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더울세라 추울세라 다정한 손길로  
누구나 차별없이 보살펴주는

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네  
  
세상에 있는 수천만 어머니  
한자식 소원을 다 풀어 못줘도  
우리의 모든 소원 다 헤아려주는  
당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네

# 눈부시다

최학수

나는 열대의 나라가 처음이다.

이로록 지독스러운 무더위도 처음이고 그 무더위를 삼시에 말끔히 가셔버리는 스코르(열대소나기)도 처음이며 갖가지 모양의 피상한 짐승들이 옥실거리는 장글도, 기기묘묘한 아름다움으로 이채로운 해변가의 망그로브숲도 처음이다.

푸르청청한 적도의 하늘아래서 내 몸그림자가 감쪽같이 없어진 현상도 처음 당해보았다. 그랬을 때 나의 머리속에는 퍼그나 오래전에 읽어본적이 있는 증편소설 《그림자가 없는 사나이》가 문득 떠올랐다. 제 몸그림자를 판 돈으로 실컷 환락을 누려보자던 한 벼락신사가 마귀로 몰려 갔은 봉변을 다 겪다못해 그림자를 도로 찾았다는 이야기였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태어난것은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알 덕이라더니 누구나를 그림자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적도 대자연의 마술같은 조화야말로 그렇게 기발하고 엉뚱한 환상적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한것이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생소한 이 열대세계에는 아득한 태고적, 신사시대의 생활상을 방불케 하는 벌거숭이사람들의 야생초막으로부터 현대의 고도 최첨단 과학문명이 창조해낸 로보트안내원이 반겨맞아주는 최신식 호텔에 이르기까지 별별 희한하고 진기한것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빛다른 이 먼 남방나라에서 정작 나를 깜짝 놀라게 한것은 나에게 전혀 생소한 그 모든 희한하고 진기한것들이 아니었다.

...그 일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있다는 열대식물원을 돌아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리게 된 어느 한 다방에서 있었다.

코코야자나무들과 종려, 바나나 나무들이 늘씬한 키들을 솟구며 널려서있는 풍치 아름다운 호수가 별장촌에 자리잡은 그 아담한 단층건물은 네 벽이 온통 록회색투명유리로 되어있는데다 지붕에 띄어고있는 《스코르》라는 이름자마저 시원한 열대의 소나기라는 의미를 띠고있어 그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대뜸 선선한 기분을 느낄것 같았다. 아닌게 아니라 나들표식이 찍혀있는 자동개폐식 유리문앞에

다가서자 소리없이 절로 문이 옆으로 밀리면서 선기를 느낄만큼 차거운 기운이 쏟아나왔다.

순식간에 김이 뿔양게 서리며 타래치는 문간으로 무심중 들어서던 나는 그안에서 울려나오는 너무나도 귀에 익은 소리에 놀라 멈춰섰다.

이 어인 일인가?

나는 직업적인 전문음악지휘자다. 남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나 더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있다고 하는 나의 귀가 사랑하는 자기 딸자식이 부르는 노래소리와 내 온몸의 신경계통과 근육조직마저 그 선율모양대로 돼버렸다고 할만치 나에게 익혀져있는 내 나라의 음악을 빗들을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허둥거리는 눈길로 넓지 않은 홀안의 여기저기 널려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러가지 피부색, 여러가지 모양으로 생긴 여러가지 차림새의 그 많지 않은 손님들속에 머나먼 조국땅 한끝에 두고온 내 딸이 끼여있을리는 만무했다. 그대신 내 눈에 잡혀든것은 간이매대의 한열에 놓여있는 은백색 립체록음기였다.

나는 한동안 자리에 앉을념도 못하고 거기서 울려나오는 음악소리에 귀기울인채 서있었다. 몇만리 타국땅에서 내가 무척 사랑하는 내 나라의 노래를 대하노라니 어쩐지 울음이 북받쳤다. 도대체 저 소리를 누가 여기까지 날라왔을까?

아쉽게도 그 노래가 끝나자 잠깐 사이를 두고 록음기에서는 다른 음악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유명한 빼루민요 전주곡이었다.

나는 아무데나 가까이에서 눈에 띄는 빈 자리에 앉았다. 기다렸던듯 접대원이 곁에 다가오더니 레절스럽게 주문식사안내서를 내밀었다. 코카콜라와 얼음보숭이를 청했다.

《방금전에 지나간 그 음악이 다시 요구되지는 않습니까?》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여쭙는 접대원을 나는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한때는 금발의 미청년이였겠음을 아직도 뚜렷이 증명해주고있는 반백의 백인계 중늬은이었다. 선량한 푸른 눈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 역시 알았다는 표정만 보이고 물러가더니 테프를 후진시켜 내가 바란대로 해놓은 다음 주문식품을 담아들고 되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짙막하나 진정어린 나의 인사에 그는 약간 어줍어하는듯한 겸손한 미소를 보이면서 더 요구되는 것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만일 지장되지 않는다면… 한두가지 묻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뭔지 어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물기전에 그가 앉기를 권하였으나 그는 사양하고 그냥 서서 응대했다.

《당신은… 실례되는 질문같습니만… 내가 저 음악을 다시 들었으면 하는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의 파랑눈은 칭찬을 받았을 때의 어린애처럼 반짝였다.

《그건… 여기에 들어서시면서 저 음악에 귀를 기울이던 손님의 표정이 말해주었습니다. 표정<문자>도 음악처럼 순 감정언어로 썩여지는것이어서 말없이도 통하는게 아닙니까. 저는 저 음악을 무척 좋아하기때문에 매일 몇번씩 틀어놓고 듣곤합니다. 여기에 오는 많은 단골손님들도 저 명곡을 각별히 좋아해서 다시 틀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곡입니까. 그야말로 세계명곡이지요.》

머리가 비어있지 않은 사람다운 대답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노래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음악기재상점에서 사온 <현대세계명곡알범> 중에 있는 한 테프입니다. 수요자가 많아서 다른데서는 사기 어렵지만 음악기재상점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복사도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물러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세계명곡!

어쩐지 나는 자기 몸이 차츰 허공중에 둥 떠오르는것 같은 느낌속에 빠져들어갔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나와 오직 그 음악만이 존재하고있는듯한 환각의 세계가 나를 지배했다. 자신의 창조물이 세계적인 찬탄을 받을 때 그 당자가 감득하게 되는 최상의 희열이 과연 어떤것이겠는지를 나는 형용할 수 없이 가슴부푸는 야릇한 쾌감속에 난생처음 맛보았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하나의 가슴저미는 추억이나 자신을 소스라치게 놀래웠다. 우둔하기 짝없던 내가 과연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를번했는가?

그 일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5월이 되면 공원속의 도시, 꽃의 도시인 평양은 어디서나 신록이 무르익고 꽃향기가 짙다. 특히 5월 중하순에 만발하는 아카시아꽃들은 더없이 짙고 풍만한 향기로 꿀벌떼, 나비떼들을 유혹하여 나뭇

들인다. 그 취할듯한 밀원을 찾아서 5월이면 먼 북방땅의 양봉쟁이들도 술한 꿀벌들을 거느리고 평양 교외지역으로 몰려든다. 밤에도 꿀벌들이 잉잉거리는 향기로운 아카시아나무숲속으로 거니는 봄밤의 산보뗏은 또 어떠하랴. 실로 평양의 5월은 신록향기에도 꽃향기 그리고 꿀냄새, 거기에 더하여 아름다운 수도의 너인들이 풍기는 향수냄새로 차고넘친다.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창조집단인 우리 도예술단성원들이 평양으로 올라간 때가 그런 5월, 바로 1973년 5월말이었다.

한창 개화의 절정기를 맞고있는 아카시아나무들은 끊임없이 물려드는 꿀벌떼들에게 뒤덮여 산보객들을 유혹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적인 수도의 향취를 한가로이 즐길만한 마음의 여유를 못가지고있었다. 우리가 평양에 올라간것은 지난해 봄의 첫 시연회에서 실패한 다음 옹근 한해동안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여 완전히 새롭게 만들다싶이 한 개작가극을 지체없이 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보여드리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루라도 더 빨리, 그것도 걸작으로 완성하자는 속심에서였다. 우리는 무척 초조한 심경들이었다. 달이 멀다하게 나오는 새라새로운 혁명가극들의 탄생은 우리들의 조바심을 자아냈다.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띄우는 거리의 요소요소에 이미 창조된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과 같은 본보기 혁명가극들과 어깨나란히 대문짝보다 더 크게 우뚝우뚝 세워져있는 여러 가극의 대형 간판들은 우리에게 렬등감을 안겨주었다. 그중 어떤 가극들은 우리보다 훨씬 뒤늦게 시작했었는데 우리보다 앞서 꽃피워가지고 벌써 나뭇들이듯 술한 관중들을 끌고있는것이다. 평양의 신록풍경, 대자연의 향기도 손상당한 자존심과 당앞에 진 죄악감으로 하여 빙글거리며 회회락락할수 없이 된 우리들에게는 마음 끌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 꽃향기라는것이 축복받은 승리자들을 위해서 자연이 베풀어주는 혜택임에랴.

멋들어진 풍치가 다 뭐가. 우리는 그런것에 눈을 팔 생각도 없고 경황도 없다. 산보도 없고 휴식도 없다. 우리 가극의 대형 간판을 보란듯이 내걸기 전에는 오직 창조, 형상, 런마밖에 없다.

려장을 풀어헤친 대극장안 무대와 복스가 곧 그대로 식당이 되고 침실이 되고 우리 생활의 전체 영역으로 되었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쪽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지휘봉을 찾아들고 목청을 돋구어 소리소리 질러가며 가수들과 악사들을 다물아댄 낮과 밤… 팔힘이 진하여 지휘봉을 떨어뜨리고 더이상 서있을 기력이 없어 주저앉았다가도 잠시나마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을수 없는 자기 처지를 문득



자각하고 뛰쳐일어나 다시 지휘봉을 쳐들고 다시 소리 지르고 다시 다몰아대면서 밝는줄도 어두워진 줄도 모른채 맞고 보낸 새벽과 저녁... 우리는 바깥 세계와는 스스로 높은 담을 마음속에 쌓고 지냈다.

(우리의 대형 간판을 내붙이기전에는 바깥세상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리라. 패자의 가공치량한 몰골로는 이제 다시 제집으로 발길을 돌리지도 않으리라.)

남모르게 간직한 우리들의 이런 심정, 그 숨은 애쓰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새 속속들이 헤아려보시고 평양에 올라간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우리에게 각별한 혜택을 베풀어주시었다. 새로 만든 가극의 기본음악들을 들어봐주시겠다시며 주요관계자들을 찾으신것이다.

기본가성곡들만 합격이면 가극은 다되는 셈이다.

새로 만든 가극의 승패가 밝혀지게 될 그 좌석의 얼마 안되는 참석자명단에는 나도 끼여있었다.

곧 떠날 차비를 하고 앞마당에 대기하고있는 소형 버스에 나가타라는 지시를 받아안은 순간 후둑! 하고 대뜸 세차지는 내 심장의 박동소리가 들렸다. 애타게 고대갈망하던 순간이었으나 정작 딱치게 되자 가슴이 떨려나기 시작했다.

면도질하는 손이 후들거려 턱밑을 살짝 베고말았다. 갈아입는 와이샤뜨단추조차 손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소형 버스가 달리는동안까지도 그안에서는 도란도란 말소리도 들리고 웃음띤 얼굴도 더러 보였지만 버스에서 내려 어느 한 현관문앞에 다가갈즈음에는 다들 긴장한 침묵속에 잠긴채 심각한 표정들이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가슴이 후두두해져보지 않은적이 나는 단 한번도 없다. 아무리 자신있게 준비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야릇한 위구심(불합격되면 어쩌나 하는)에 짓눌리워 심장이 줄아들고 몸전체도 줄어드는듯한 느낌이 들곤했다.

나는 긴장으로 하여 한껏 줄어든듯싶은 몸을 웅송그리고 음악계중진들의 여러 잔등들 뒤에서 주춤주춤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다리고계시는 방에 들어섰다.

《아, 지금들 오십니까? 그새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보고계시던 문건을 왼손에 그냥 드신채 우리를 반겨맞으시며 매 사람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었다. 1년전에 있는 첫 시연회날 내가 처음 뵈웁던 때처럼 회색 양복차림이시었다. 나는 몇번이고 큰숨을 들이그으며 차례를

기다렸다가 용기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오래간만에 다시 뵈는 그이께 제자신을 소개해 올리며 마음속으로 간직해온 인사말씀도 곁해 바쳐드리고싶었지만 첫마디부터 목에 걸려 그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

《목을 너무 혹사시켰구만.》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시는 련민의 정 넘치는 말씀이시었다.

《오늘 지휘자동무한테는 될수록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서 저리 가서 편히 앉으시오. 동무야 이런 때 좀 다리쉽이라도 해야지 언제 해볼거름이 있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류달리 더 복신복신해보이는 소화가 있는데로 몸소 나를 이끌어서 앉혀주시었다. 그 살들함에 나는 코허리가 시큰해났다.

뵈기전에는 어려움만 앞서 어떻게 뵈오랴 걱정스럽다가도 정작 뵈웁게 되면 순간에 뜨거운 육친적인 친애감에 적셔들게 하시는 이 비범한 친화력과 특출한 우애심! 이래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그이를 우러러 칭할 때면 언제나 또 반드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부르고싶어진것이였지... 내 머리속에는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비껴들었다.

우리들이 다들 자리잡고앉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곁에 앉은 일군들에게 그간의 가극창조정형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보시었다.

거리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집무실과는 달리 별도로 꾸려진 방이였다. 서가에 꽂혀있는 서적들과 록화, 록음테프들, 록화기와 록음기, 전축과 레코드판들이 들어있는 장... 방안에 구비되어있는 모든 비품이 승엄한 음악세계를 이루고있었다. 바로 내열의 벽면에 서있는 서가에는 고전적인 작곡거장들의 이름이 찍혀져있는 장서들이 주련이 꽂혀있었다. 책표지들의 색깔부터가 그 어떤 고전적인 위압감을 주는듯싶은 그 책들은 나에게 야릇한 기분을 안겨주었다. 세계적인 음악거장들도 초청을 받고 여기에 방청으로 참석하여 우리가 만든 가극의 기본노래를 어디 좀 들어보자고 귀를 강구고있는듯한 기분이였다.

《간단히 들어봐도 그간 동무들의 수고가 여간이 아니였는데 이만하고 더 시간을 끌것없이 노래부터 들어보고 의견을 나눠봅시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노래명세와 장면설명 그리고 가사들이 타자쳐있는 자료문건을 펼치시었다.

우리는 숨소리를 죽이고 정숙을 지켰다. 바스락 소리 하나 없는 엄숙한 침묵이 서린 가운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손수 녹음기의 가동단추를 누르시었다.

푸른 반디불이 켜졌다.

결과를 지금은 도무지 예측할수 없는, 그래서 가슴조임을 도무지 피할길 없는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문득 먼 하늘끝에서 울려오는 우뢰소리, 그것이 몇차례 거듭되면서 차츰 가까이로 옮겨왔다. 후둑 후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세차지기 시작했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천둥 우뢰소리, 포호하는 자연의 거세찬 울부짖음소리... 나에게서는 수심, 수백번이나 귀에 익은 소리였다. 나의 지휘봉이 저렇게 먼 우뢰소리부터 불러낸것이 과연 옳았겠는가? 오히려 하늘땅을 진감하는 노한 우뢰소리로부터 시작하는것이 곡상을 살려주는데 더 효과적이 아니였을가?

수십번이나 뒤번져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전주곡의 시작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결정적인 이 시각에 와서 다시금 머리속에서 란투를 벌렸다.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것이 어찌하여 갑자기 동요를 일으키는가? 자기의 능력에 대한 돌연한 회의심이 나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심을 못가지게 하였다.

아무리 뛰어난 준마라 할지라도 능력없는 기수를 만나게 되면 그 뛰어난 자질을 제대로 발휘해낼수 없다. 나는 능력없는 지휘자탓으로 훌륭한 음악작품이 청중들앞에서 보잘것없는 졸작으로 비하되고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것을 알고있다. 악상을 옳게 파악할줄 모르고 형상의 묘미를 제대로 살릴줄 모르는 지휘자를 만난 신작의 경우에는 거의나 파멸적이다. 대중에게 주는 첫 인상을 망쳐놓음으로써 만회할수 없는 평가를 받게 만드는것이다.

내가 바로 그런 저주받을 지휘자로 락인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가? 없었다. 나는 우리의 새가곡을 위하여 골라낸 음악들이 얼마나 엄정한 선택을 거쳤는가를 잘 알고있다. 지난해의 제 1 차 시연회에서 가곡음악이 전면적인 부결을 당한 이후 작곡가들은 무려 3 천여편이나 되는 곡을 새로 작곡해냈다. 그 가운데서 선택한 곡이 지금 시청이 시작된 40 여편이다. 3 천대 40, 즉 80 대 1 이라는 엄청난 비율로서 골라낸 곡들이다. 3,000 편중에서 고르고 또 골라낸 40 편이 호평받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명실공히 음악형상을 잘못 이끈 나의 둔재타이 아니겠는가?

시간이 흐르면 흐름수록 나는 앓음새가 더더욱 불편스러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아까부터 응접탁 한옆에 쌓여있는 문건들을 검토하고계시었다.

당과 국가의 각 분야의 사업들과 관련한 문건들 인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시청에 방해될세라 조심스럽게 한장한장 번지시며 때때로 몇글자씩 적기도 하시었다. 녹음기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이 바뀔적에

는 녹음기앞에 펼쳐져있는 장면설명문에 잠깐씩 시선을 돌리곤하시었다.

그 문건들이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부단히 옮겨지면서 높이가 달라져갈수록 나의 이마와 목덜미와 거머쥔 손바닥에서는 더 진땀이 났고 입술은 탈탈 말라들었다. 땀방울이 눈애까지 흘러들어 가뜩이나 충혈된 눈이 아렸다.

나는 몇번이나 안경도 벗어담고 얼굴과 목덜미도 훑쳐냈다. 머리속이 지끈지끈 쏘았다. 귀속이 멍멍하여 나중에는 음악형상이 제대로 났는지, 안삼불은 어떠한지 도무지 가늠할수조차 없었다. 온통 왕왕거리는 소리의 울림이 계속되고있다는 느낌뿐이었다.

마침내 고조되었던 관현악과 《혁명가》의 합창소리가 끝나고 방안은 불시에 조용해졌다. 녹음된 음악이 마감을 지은것이다.

금시 공허해진 귀안에서는 잉- 벌이 날아예는 소리와 흡사한, 기이하고 가냘픈 소리아닌 소리가 떠돌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손에 잡고계시는 실한 원주필 뒤등으로 무심중 문건장우에 천천히 동안이 뜨게 그루를 박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가슴조이는 침묵, 또 침묵...

한동안이 지나서야 좌석에 서린 숙연한 침묵을 깨치며 그이의 조용한 음성이가 울렸다.

《동무들의 충혈된 눈과 부르튼 입술을 봐서는 귀맛좋은 말을 해줘야겠지만 나는 귀맛이 나쁜 노래를 듣고 귀맛좋은 소리를 할순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계 되시는 자신의 피로움을 애써 짓눌러버리시는 그이의 음성에는 가는 한숨이 비껴있었다.

《수고는 수고이고 노래는 노래입니다. 수고는 컸지만 노래는 전반적으로 잘되지 못했습니다. 잘되지 못한 노래가 동무들의 큰 수고를 보람없는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다. 웅근 한해동안 바쳐온 허다한 노력의 열매가 결국 물거품같은것에 지나지 않다니? ! 나는 그이의 말씀요지를 받아적으려고 수첩을 펼쳐들고 만년필을 잡아쥐고있었지만 머리속이 어질어질하여 한자도 적지 못했다.

《원작과 영화에서 나온 노래들을 내놓고는 새로 만든 노래들은 거의 모두 부르기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부르기 힘들게 만들어졌기때문에 가수들도 부르기 힘들어합니다. 가수들이 부르기 힘들어하니 듣는 사람도 마음이 순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동무네가 한번 다시 들어보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손수 녹음기를 다시 돌리시면서 주인공의 한 독창곡을 찾으시었다. 녹음기에서는 갑룡이의 괴멋힌 심정을 하소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에게서 술한 성화를 받으면서 가수가 힘겹게 뽑아낸 선율을 재삼 들으면서 나는

오직 자신과 가수의 못미치는 능력에 대하여 한탄하던 지난 일을 회고했다.

《보시오. 전문가수도 부르기 힘들어하는 이런 노래를 일반대중이 어떻게 불러내겠습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노래를 인민이 어떻게 리해해내며 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몇곡 더 들어들보시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 다른 곡들을 찾아서 들려주시었다.

나는 언제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몇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는 놀라운 천품을 지니고계신다는 말을 여러번 들은적이 있었으나 음악과는 무관계한 그 수많은 문건을 검토하시면서 들으신 음악에 대하여 그토록 정확히 가려내시는데는 실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골라서 들려주신 곡들은 정말 신통히도 모두 부르기 까다로운 곡들이었다.

새로운 귀로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나는 좀전까지도 가곡의 성패가 부르기 힘든 까다로운 곡들 자체에 달린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악상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는 형상자들의 저급한 능력에 달렸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실패의 원인이 형상보다는 곡자체에 있다는 새로운 인식은 나에게 위안으로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심을 덧쳐주었다. 글렀다고 지적되는 그 노래들을 우리는 좋다고 생각해왔으니 얼마나 무지스러운 음악가인가? 나는 붉어진 얼굴을 쳐들지 못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윽고 록음기를 끄시고 말씀을 다시 꺼내시었다.

《더 들어보나마나 피장파장입니다. 대체로 거의 다 한본대로 부르기 까다롭고 리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저저마다 속이 한줄만해서 눈들을 내리깐채 숨소리까지 죽이고들 앉아있었다.

《그것은 동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한 우리 식 혁명가곡의 제반 창조원칙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유럽 아리아식 가곡창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탓입니다. 유럽고전가곡은 전시대의 산물로서 유럽사람들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그들의 미감과 정서와 발성법에 맞게 창조된 가곡입니다. 그 사람들은 빵과 빠다를 좋아하지만 조선사람들은 밥과 고추장을 좋아하며 국수와 김치를 좋아합니다. 풍부한 조선선물을 가진 노래라야 우리 인민들이 환영하며 즐겨부르고 사랑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듣고 리해할수 있는 까다로운 남의 식 노래는 우리 인민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하며 인차 따라 부를수 있는 우리 식의 통속적이며 인민적인 노래, 민족적 향취와 색깔이 풍부한 부드럽고 서정적인 노래, 유순하고 우아한 조선식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나의 수첩장에는 나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치》, 《국수》, 《조선식 선물》… 이런 단

어들이 적혀졌다. 후들거려 아무 글도 쓸수 없었던 손이 어느새 진정되어 그 말쑥마디들을 받아쓸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얼굴도 저절로 들러졌다. 지적받는 처지임에도 얼굴을 들기가 두렵지 않은것은 어째서일까? 나에게 있어서도 확실히 김치나 국수 이상으로 맛좋은게 없었다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의 진리를 새삼스레 깨우치게 된 기쁨때문일까? 아마도 그때문이었던것 같다. 나는 저으기 편안해진 몸가짐으로 또 한결 더 말을 잘 듣는 손을 부지런히 돌려 결함시정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말씀을 요지요지 속필로 적어나갔다.

그 말씀이 끝난 뒤였다.

《그런데 전번 시연회때 3장에 나왔던 그 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물으심을 받은 우리는 다들 어리둥절했다. 어느 노래를 그러시는지 우리는 인차 가늠이 가지 않았다. 이미 한해이상 지나간 전번 시연회때의 노래들은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지도 아득했다.

몇몇 사람의 얼떨떨해하는 기색을 살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에게서 시선을 멈추시었다. 총지휘자인 나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전번 노래들의 사정을 잘 알리라고 여기시고 나의 대답을 기대하신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대답을 못올린채 머리속으로 망각하고있었던 노래의 쓰레기더미를 맹렬히 뒤지었다. 그때의 3장에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으며 그 장면장면들에서는 어떤 노래들이 있었던지? 그간 가곡을 위해 작곡된 수천권의 곡들가운데서 어느 한때 선택되었다가 버림받은 노래들만도 수백이나 된다. 그 수백권의 곡들도 역시 이미전에 내버린 수천권의 노래무데기에 섞여버렸다.

이미 망각의 먼지를 뒤집어쓸대로 써서 어느게 어느젠지 분간할수조차 없는 오래된 노래무데기속에서 나는 종시 그 형체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안타까이 방황하는 나를 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귀뜸해주시었다.

《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자연주의적으로 되었던 노래말입니다. 저산우에 두둥실 둥근달 솟아올라 어찌어찌 한다는…》

《아-!》 하는 탄성이 가슴속으로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 나의 눈앞에서는 거대한 섬광이 번뜩였다.

눈부신 태양의 섬광이었다!

그 눈부신 섬광이 망각의 먼지를 뒤집어쓰고있는 하나의 형체를 단박에 알아보게 해주었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치네》였다.

수십권의 노래들로 엮어진, 세시간동안이나 걸리는 가곡의 한 대목에서 얼핏 나왔던 그 노래를 어찌면 이미 한해나마 지난 지금까지도 가사구절마저 잊지 않고계시는지 그 비범한 기억력에 나는 그저 놀랍기만 했다.

《생각나는 모양이구만. 오늘은 그 노래를 못들었는데 동무들이 그 노래를 숨아 내버린게 아닙니까?》

《네... 가사도 자연주의적으로 돼있고... 곡도 설익은감이 있어서...》

나는 떠들떠들 대답올렸다. 목선탕도 있었지만 그 노래에 대한 우리들의 처사가 혹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기때문이었다.

《앉으시오.》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창밖의 푸른 공간에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로 걸려있는 몇줄의 안테나선들위에 여러마리의 제비들이 여저기 날려앉아있었다. 그 제비들은 마치 오션지우에 자리잡은 음부기호들처럼 보였다. 만일 그 제비들을 음부기호로 간주한다면 저 푸른 공간에서도 음악은 무시로 창조되고있다. 나에게는 그 푸른 공간에서 창조되고있는 짧은 악보의 음악선물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는 음악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에도 마음의 귀로 음악을 듣는 때가 종종 있다.

(바로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심중에서 울리는 음악을 듣고계시는것이 아닐까? 전번 시연회때의 3장에 들었던 그 노래를.)

이런 생각이 뇌리에 스치자마자 나는 곧 창밖의 먼 공간으로 초점없이 향해지신 그이의 시선에서, 음악적 명상에 잠기신 그이의 침중한 안색에서 확실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기억속의 선물을 더듬으시며 그 노래를 재삼 음미해보시고계신다는것을 직감하였다.

한참만에야 그이께서는 숙연한 침묵을 지키며 앉아 기다리고있는 우리들에게로 다시 얼굴을 돌리시었다.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동무들이 그 곡의 금새를 잘 모르고있는것 같습니다.》

가벼운 나무람이 비낀 어조였다.

《작년에 있는 첫 시연회때 내가 그 노래를 듣고 작곡가가 누군가고 물어보니 옆에서 음대를 갓 졸업한 신진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래는 가사가 자연주의적으로 된 결함이 있을뿐 아니라 곡도 아직 작곡경험이 거의나 없는 신인작곡가의 작품이니 동무들의 말대로 설익은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에는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는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민족적인 정서가 깃들어있습니다. 그 곡에는 독특한 자기 색깔을 가진 선물이 있습니다.》

록음기옆에 놓인 전화기에 푸른 신호등이 소리없이 켜졌다. 하시던 말씀을 일시 끊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알겠습니다.》

잘막한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전화를 마치신 그이께서는 얼핏 손목시계를 들춰보신 다음 다시 끊었던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는 그 곡을 한번 들었지만 지금도 선율이 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 선율을 잘 살리게 되면 들을수록 좋고 맛이 나는 명곡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혁명가곡들을 명곡들로 가득찬 명가곡으로 만들자고 하는데 동무들이 그런 명곡감을 내버리면 뭇을 가지고 명가곡을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가곡이란 말 그대로 시종 노래로 곡을 엮어나가는 예술인것만큼 명곡이 없이는 아무리 이야기거리가 좋아도 명가곡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동무들이 가지고 온 노래들을 듣고 우리가 아직 더 많은 품을 들여야 가곡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것도 명곡이라고 할만한것이 별반 없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검토를 마치고 한편에 쌓아놓으신 문건들을 간중그리시며 말씀을 마감지으시었다.

《이제 동무들이 돌아가서 그 노래를 찾아내여 다시 주의깊게 들으면서 잘 음미해보시오. 그러면 그 곡의 금새를 제대로 알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식 가곡방정식을 푸는 비결도 찾아낼수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기본적으로 할 이야기도 했고 다른 사업도 기다리고있으니 이만 헤어집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씀을 마치시며 일어나시었다. 아쉬운대로 우리들도 그이를 따라 일어났다.

(어찌하여 그 곡의 금새를 나는 제대로 헤아려 내지 못했을까?)

나는 이런 의혹을 풀지 못한채 같이 갔던 사람들과 함께 대극장으로 돌아왔다.

가곡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겠는지 가슴을 조이며 안타깝게 기다리던 전체 창조집단성원들이와 달려들며 뺄스를 둘러쌌다. 그들은 뺄스에 실려간 무거운 침묵과 회색이 없는 우리들의 얼굴빛에서 벌써 판결이 비판적으로 내려졌리라는것을 알아챘겠지만 우리 입에서 직접 갔다온 사연의 전말을 듣고싶어 저저마다 달라붙었다.

나는 그 못사람들을 가사로 떠밀치고 텅 빈 극장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복스의 한구석에 처박아둔 트렁크를 열고 그안에 들어있는 낡은 악보봉테기를 꺼내 터쳐놓고 황황히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한때는 우리 가곡의 노래로 선발되어 훈련무대에까지 올랐으나 버림받았던 노래들의 악보봉테기들이었다. 뒤지는 낡은 악보장들에서 매캐한 먼지가 일었다.

한참이나 뒤진 끝에 나는 마침내 퇴색하고 구겨지고 가생이가 찢긴 그 노래의 악보장을 찾아냈다. 그런대로 악보가 있는것이 다행스러웠다.

나는 그자리에 주저앉아 악보를 읽기 시작하였으나 시창으로 음미해본다는것이 아무래도 성차지

않아서 무대로 뛰어올라갔다. 그 무대 한옆에 피아노가 있었다.

나는 피아노에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손놀림련 습도 없이 악보가 제시하는대로 건반을 짚어가기 시작했다. 오직 나 한사람밖에는 아무도 없는 텅빈 대극장안의 넓은 공간에 울려퍼지는 피아노소리에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도사렸다.

나는 자기의 악기다루는 솜씨가 별로 신통치 못하다는것을 알고있다. 내가 나서자란 궁벽한 우리 산골에는 기타정도의 대중악기조차 15 리나 떨어진 중학교에 하나 있을뿐이어서 나는 옆구리에 수수비자루를 끼안고 입소리를 내어가며 기타타는 연습을 시작했었다. 피아노는 어느 방학때 먼 읍에 있는 고모집에 가있을적에 야음을 타고 울려오는,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나를 현혹시키는 소리를 찾아 몽유병자마냥 정신없이 뛰어든 고급중학교 음악실에서 처음 구경했었다. 그 고종의 처녀음악교원이 때늦은 나에게 피아노를 배워주었다. 그렇다. 너무나도 때늦은 악기들과의 접촉이 음악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나로 하여금 연주가의 길이 아니라 지휘자의 길을 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내자신의 그 변변치 못한 솜씨로 타고있는 피아노소리가 전연 서툴지도 부자연스럽지도 않을 뿐아니라 그지없이 유연하고 정서적이고 매혹적이기까지 하다는것을 느꼈다. 그 곡을 거듭 타볼수록 그런것을 더 강하게 느꼈다. 마치 스무해전 나를 그렇게도 매혹시킨 그 녀선생이 탔던 《산으로 바다로 가자》의 메아리와도 같이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충만된 음향의 황홀한 세계는 나를 놀라게 하였다.

(내 솜씨가 기적적인 도약을 할수는 없다. 이것은 좋은 음악이 부리는 조화때문이다. 과연 이 곡이 이렇게도 매력적인데가 있었던가?)

나는 범상해질수 없는 눈으로 귀떨어지고 구겨지고 퇴색된 악보장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마리아 큐리부인이 자기가 발견한 라디움을 사람들이 내버린 광석찌꺼기에서 처음으로 추출해냈을 때 그 현란하고 신비한 빛에 황홀해졌다더니 나야말로 내 자신이 내버렸던 그 낡고 구겨지고 귀떨어진 악보장에서 불현듯 나타난 아름다운 음향의 빛살에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어째서 전에는 이런 금새를 모르고 내버렸을가?

자기 판으로는 음악이 뭔지를 아노라고 자처하면서 실재에 있어서는 그 진미를 제대로 가늠해낼만한 자질을 채 갖추지 못했던탓으로 작곡가의 명성에 따라 작품의 우열도 판단해버리곤했던 결과가 그런 엄청난 사태를 빚어냈다는것을 깨우쳤을 때 나는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아, 얼마나 천만다행스러운 일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재적인 해안은 무지의 버림을 받아 망각의 무덤속에 파묻혀 영영 압살당할뻔했던 이 곡과 그것을 창작한 이름없는 작곡가의 재능을 살려냈을뿐만아니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범인으로 뵈었던 우리들까지 구원해주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이를 우러러 경건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며 생각했다.

무지스러운 눈에는 금광도 막돌로 보이고 수정도 유리로 보이며 산삼도 도라지처럼 여겨지며 진탕속의 진주도 가둑일에 달린 구슬보다 못해보인다. 오로지 현명한 눈만이 무지의 업심을 받는 광석찌꺼기에서 라디움을, 막돌같은데서 금을, 진탕속에서 진주를 보아내고 찾아낸다.

...후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그 제목을 《꽃피는 이 봄날에》라고 고쳐달아주신 명곡은 그렇게 찾아지고 소생되어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 광채가 지금처럼은 현란하지는 못했었다. 그것은 아직 닦아지지 않은 진주였고 채 탁마되지 못한 보석이었다.

그 이듬해 초봄.

우리 가극이 마침내 마지막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어 무대미술가들이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개막을 알릴 대형 간판을 한창 성수나서 그리기 시작했던무렵의 어느날 새벽이었다.

최후의 검열시연공연을 앞두고 그 새벽에도 신이 나서 지휘봉을 휘둘러대고있던 나는 급한 부르심을 받고 몇몇 작곡가들과 함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갔다.

새벽 세시쯤 되는 시각이었다. 우리를 맞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퍼그나 쾌활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자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들 있다가에 새벽바람도 쏘일겸 잠깐 머리침도 할겸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사이다도 권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동무들이 올려보낸 3장의 노래를 몇번 들어보았는데 노래가 아주 좋아졌다고, 동무들과 같이 앉아 다시 들어보고 악보와 테프를 가져가게 하자고 이렇게 찾았다고 말씀하시었다.

잠시후 그이께서 틀어놓으신 녹음기에서는 음악이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피아노와 바이올린협주곡으로 편곡된 우아한 전주곡이 흘러나오고 이어 청아한 녀성방창성원들의 화성이 뒤따라 나왔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날은 찾아와  
종달새 노래하고 실버들 춤추네  
아, 눈물속에 헤여지더니  
꽃피는 이 봄날 다시 만났네

절이 바뀌여지자 이번에는 주인공 갑룡이의 남성독창이 선창을 하고 녀주인공 금순이의 녀성독창이 뒤를 받다가 둘이서 함께 2 중창으로 후미를 장식하였다.

봄날에는 우리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우리 함께 열매 거두리  
아, 우리 서로 일해가면  
눈물어린 땅우에도 기쁨은 오리

맨 마지막에 후단을 더욱 풍만하게 채색하는 남 녀소방창성원들의 합창성이 길게 여운을 끝다가 아물거리는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날아나 사라졌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록음기를 끄시었다.  
《어떻습니까? 노래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만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있었다.

《노래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설익어서 좀 뽕구 시큼털털한 맛이 났는데 이제는 꽤 구미가 동하게 익었다단말입니다. 동무들이 이 노래를 되살려가지고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익히느라 그동안 수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노래를 되살려낸 공로가 마치 우리들에게 있거나 한듯 우리를 치하해주시고나서 이렇게 물으시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노래에 대해서 다들 만족합니까? 무슨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그 노래에 대하여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 우리들모두가 그 노래를 수십차례나 합평해가며 다듬고 완성했던 것이다.

《아무 의견도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외우시었다.

《그렇다면 한번 더 들어봅시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데가 없는지 잘 새겨가며 들어들 봅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노래를 다시 들려주시는데는 필경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생각된 나는 바싹 정신을 도사리고 귀를 강구었다. 그러나 어느 한군데서도 거슬린다거나

어색하다거나 아쉽다는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나무랄데가 없어보였다.

《다들 어떻습니까?》

노래가 끝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물으시었다.

우리는 다들 별다른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솔직히 대답을 올렸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악보장을 당겨다놓고 연필로 세번째 행을 가리키시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동무들은 잘 넘어갑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행을 악보대로 시창해보았다.

아, 눈물속에 헤여지더니

잘 넘어가는것 같았다. 조금도 이상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손바닥에 티같은 이빨가시가 하나 배겨있는것 같지 않습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시금 물으셨지만 우리는 머리를 기웃거리기만 하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곡의 매 소절, 가사의 매 구절들을 따로따로 그으시며 자신께서 느끼신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었다.

《이것 보시오. <아-> 하고 감정을 뽐는 부분에 한 소절만 배당해주고 둘째 소절에 가서는 인차 <눈물속에> 하고 넘어가니 <아-> 하고 감정을 내뽐어야 할 대목이 막혀서 시원스럽지 못한감이 나는 반면에 그뒤의 <헤여지더니>는 가사글자수도 몇이 안되는데 두 소절에다 넣어놓으니 빨래줄처럼 축 늘어지게 탄력이 없고 맥이 빠지는 감이 나지 않는가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아-> 하는 발성부분을 두개 소절로 늘려서 여덟박자로 길게 뽐아주게 하고 나머지의 두 소절에 <눈물속에 헤여지더니>를 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손수 《아-》 하는 감동사가 달린 부분을 두개 소절로 늘려놓으시고 그뒤의 가사들을 세번째소절로 옮겨놓으시었다. 그리고 친히 곡까지 붙여주시었다.

활달하신 필체로 수정가필하시는 가사와 곡을 따라가며 시창하던 나는 부지중 《아!》 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놀랍게도 노래가 단번에 확 살아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경지에도 날아오른것이다.

이 무슨 신비한 기적인가!

그 경이로움에 놀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는 순간 나의 눈앞에서는 그 언제처럼 또다시 강렬하고 거대한 섬광이 번쩍! 일었다.

눈부신 태양의 섬광이었다!

눈부신 천재성의 섬광이었다!

그 빛을 본 나는 눈이 부셨다. 접할 때마다 매번 감수하게 되는 비범한 그이의 천재적 예지가 눈부시었다.

천재는 언제나 천재적 지혜를 발산한다. 눈부신 태양이 언제나 눈부신 빛발을 뿌리듯이.

태양은 눈부시다.

불 때마다 눈부시다.

언제나 눈부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재적 예지, 저 눈부신 천재성의 섬광이 없다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빛있는 존재로 되랴? 태양이 없이는 못 행성들도 빛을 못가진다. 태양빛의 덕을 입어 암석덩어리가 빛을 가지는 달로도 되고 새별로도 되며 인공 위성까지도 빛을 가진다. 진주보석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캐내어 닦아주고 빛을 주어야 아름다움을 빛낸다. 인간의 재능도 찾아주고 아껴주고 보태주고 빛을 베풀어주어야 빛을 낸다. 우리들에게 향시 은혜로운 지혜의 빛발을 주는 위대한 광원이 있

는 한 조선은 거대한 재능의 재부로 세계 만방에 빛을 뿌리리라.)

나는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지구의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동반구에서 서반구까지 전과되어 오늘날에는 세계지도에 작은 몇 개의 점으로만 찍혀져있는 이 머나먼 열대의 섬나라에서까지 현대세계명곡으로 그 현란한 음향의 광채를 떨치는 조선의 명곡들은 하나둘만이 아니다.

누리에 떨치고있는 현대조선의 자랑거리들도 또한 어찌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것이라.

이것은 대양에서 파도치며 횡겨오른 비말중의 하나, 한개의 물방울같은것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가시는 우리 조국을 더욱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단기간에 오늘날 같은 영예의 메부리우에 올려세워놓으신 진폭이 넓은 그 위대한 령도의 다면성과 풍부성에 비한다면 이것은 단 한줄기의 빛에 불과한 이야기다.

그 하많은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하지만 한줄기의 빛의 세기만으로도 능히 광원 전체의 광도를 가늠할수 있다.

센빛은 한줄기만으로도 눈부신 법이다.

태양은 작은 구멍으로 마주봐도 눈부시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이는 세계혁명의 기수

### 제임스 비아쿠씨가 비쏘비에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는분

세계 피착취대중의 해방자로

언제나 그 이름 떨치시나니

**김정일**동지 정녕 그이는

세계혁명의 기수이시여라

탄생 46 뉘를 맞으시는 그이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길에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더더욱 높아만가고

그이께서 지피신 거세찬 투쟁의 불길은

제국주의자들을 불살라버리나니

정녕 그이는

세계혁명의 기수이시여라

(필자는 우간다 재정성일군임)

내 무엇에 비기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이 쌓으신 빛나는 업적은

히말라야산보다 더 높고

그이의 진보적 인류에 대한 사랑은

망망대해와 같이 넓고넓어라

그이 내놓으신 정치로선은

제국주의명줄을 끊어버리거니

정녕 그이는

세계혁명의 기수이시여라

주체위업의 계승자

그이 내놓으신 정치, 사회, 경제 사상

영원히 빛나고

그이

근로대중의 해방자

자주성의 견결한 옹호자

영생불멸의 주체철학을

## 꽃과 위인

송명근

무한대한 자연에  
자유분방한 숲과 나무들  
저저마다 다투어 꽃을 피움은  
제 화려함, 제 향기로움 자랑을 하려  
귀한 열매 무르익히려

더운 나라 추운 고장  
넓고넓은 땅  
사람마다 아끼여 꽃을 가꿈은  
창가에 거리에 아름다움을  
생활엔 향기를 보태기 위해

꽃이야 꽃으로 피고 또 피고...  
자연도 인간도 미치지 못했던

또하나의 기원이  
우리 시대에 피어났도다  
지구위에 자주의 새봄을 펼치는  
아, 걸출한 위인을 우러러  
꽃이 태어났거니

축원의 꽃 **《김정일화》!**  
영원히 우러러따를  
인류의 마음 하나로 모아  
타는듯 이리도 붉은  
너는 매혹된 세계의 녀  
네야말로 한껏 피는 민족의 긍지로다  
언제나 안고살 꽃송이...

## 당의 모습

김정철

수수한 촌집 구름노전우에서  
나는 처음으로 당을 보았다  
어려운 전쟁의 그 나날  
때없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

모두가 한동네 어른들이였다  
나누는 이야기도 별다른것 없었다만  
그러면 그밤으로  
쌀 실은 달구지들 전선으로 떠나고  
수집읍 타던 새색시들이 보탑을 잡았다

알지 못할 그 어떤 힘으로  
온 동네를 묶어 승리로 이끌던  
어린 날 내가 본 당  
그것은 우리 당의 한 세포였다

나는 보노라  
오늘도 우리 당의 그 세포들을  
사나운 강물의 덜미를 잡고  
언제를 일으키는 저 타입장에서  
새 탄발으로 가는 길을 열어  
석수와 싸우는 저 수직갱에서

오, 세월은 흘러가도  
소박하고 전투적인 변함없는 그 모습

진정 어디에서 이룩된것이나  
우리 당의 고결한 이 성품은

수천만 전사들을 승리로 이끌어  
언제나 진군의 돌파구에 서있는 당  
지하의 바위벽에  
간편한 배낭이 걸려있는  
그 《막장전투지휘부》며  
건설의 불길이 타오르는 전투장들에  
뜨거운 숨결로 나뉘는 붉은 기폭들

오, 한방울의 물에도  
태양이 비끼듯이  
수십만 세포들에 비끼  
그처럼 굴함없는 정신  
그처럼 위력한 불패의 힘을 지닌  
우리 당의 모습을

내 어릴 때처럼  
오늘도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많은 그 수수한 사람들의 심장속에 물어보면  
그들은 말하더라  
위대한 당이 있는 인민앞에  
못해낼 일이란 없다고



## 혁명의 씨앗을 키워온 위대한 사랑에 대한 숭고한 예술적 화폭

-장편소설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김려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는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이다.

총서 《불멸의 역사》 중의 모든 장편소설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혁명적 변혁들을 통하여 우리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었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최상의 인간애가 굵아쳐흐르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장편소설 《위대한 사랑》(최창학)은 항일의 결전장에서 나uer린 소년들을 혁명의 미래로 키워나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사상주제적 내용으로 한것만큼 다른 소설들에 비하여 위대한 아버지사랑에 대한 문제를 직접 전면에서 일관하여 관통시키고있다.

### 소설의 철학적

작품의 철학성은 제기한 문제의 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의의있는 문제를 깊이있게 풀어내는데 있다.

총서 《불멸의 역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에 반영되고있는 거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은 우리 인민모두가 잘 알고있을뿐아니라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는 사건과 사실들이다. 그런것만큼 감동없이 들을수 없고 말할수 없는 실재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깊이 새겨가며 학습하고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문학적 형상을 통하여 사상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시키는 문제는 험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뜻을 주체의 원리에 기초하여 파고들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미 알고있던 사건과 사실에서 보다 큰 의미와 의의있는 사상, 풍부한 생활세계를 감수하게 되며 새롭고도 놀

라운 눈으로 작품을 대하면서 완전히 그에 매혹되게 되는것이다.

작품의 철학적, 그것은 그 어떤 큰 사건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에 숨어져있는 그 어떤 《비밀》이 아니다. 자그마한 사건이나 사실, 이미 알려진 사건이나 사실, 지어 다른 작품들에 반영된 똑같은 사건이나 사실들에서도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된 근본문제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각도에서 의의있게 탐구될수 있다.

장편소설 《위대한 사랑》은 총서 《불멸의 역사》 중의 다른 장편소설들이 그러한것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베푸시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과 은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보여주면서도 사랑에 대한 자기 고유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펼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있으며 소설의 묘미 있다.

소설은 1937년 7월 7일 일제침략자들이 중일전쟁을 발발한 직후의 급변하는 군사정치적 환경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그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나uer린 소년들을 혁명의 미래로 억세게 키워나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일찌기 세계전쟁사는 전쟁의 불길속에서 유격부대가 철부지소년들을 끼고다니며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키워준 역사가 있었다는것을 모르고있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아니고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혁명전쟁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항일무장투쟁이 이러한 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주었는가. 아니다. 전쟁사상 류레없이 간고하고 힘겨운 항일무장투쟁은 오히려 부모의 슬하에서 응석을 부리며 자랄 철부지소년들을 데리고 다닐 조건과 가능성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크고작은 전투들과 강행군이 계속되고 혹한과 굶주림이 수시로 동반되는 항일무장투쟁은 자각한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도 말로 형언키 어려운 투쟁이었으며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나 그 간고성의 정도를 말할수 없는 그렇듯 엄혹하고 힘겨운 투쟁이었다. 그럴진대 이제 13살~16살

의 나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수 있으며 그들을 데리고 다녀야 할 유격대원들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것은 더 말할것이 없었다.

그보다 앞서 소년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가 아니면 때놓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이 백여명 소년들의 운명문제는 어떤 문제이며 이에 대한 견해와 립장은 왜 달랐던가. 그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답을 주는것이 바로 장편소설 《위대한 사랑》의 형상적 과제였다. 바로 여기에 사랑이라는 범상한 의미가 위대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새겨지게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소년들의 운명문제를 당시 조성된 정세와 정치군사적 임무, 혁명의 미래와 그 운명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제기하면서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진리속에 담겨진 사랑의 위대한 뜻을 밝혀내고있다.

땅에 묻은 종자는 땀으로 가꾸지만 혁명의 씨앗은 피로써 자래워야 한다. 그렇다. 이것이 소설이 주장하고있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0 여명 소년들을 래일에 무성할 혁명의 씨앗으로 보시였고 그 씨앗을 키우는것을 혁명의 미래, 후비군육성의 근본문제로 보시였다.

혁명의 씨앗은 왜 피로써 자래워야 하는가.

이것은 피를 흘려야 하는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희생성과 헌신성을 동반하는 고귀한 사랑으로써만 자래울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값비싼 피의 대가이며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소설은 혁명의 씨앗을 피로써 보호하고 키워주는 위대한 사랑의 철리를 예술적 형상으로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소설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7.7 사변직후 일제침략자들은 대륙침략책동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압살하기 위하여 갖은 모략과 공세를 들이댄다.

더우기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노리는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00 여명의 소년들을 싸움판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기상천외한 사실을 알게되자 마치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다니는 혁명군의 《약점》을 리용하는것이 주력부대를 포위소멸하는데서 절호의 기회인듯이 여기면서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장군님께서는 적의 배후교란작전을 벌려 중일전쟁을 결속하려는 일제의 전략적 기도를 저지파단시키기 위한 령활한 작전을 펼치신다. 그러나 군사문제와는 달리 장군님께서 제일 심려하시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께서 데리고계시는 100 여명의 아이들을 장차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장군님의 온갖 사색은 이 아이들에게만 쏠려있는듯싶었다.

희생된 전우들의 자식들과 후방밀영에 두고온 소년들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놓지 못해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희생된 리성목의 아들인 준오와 두 밀영에 있던 100 여명의 아이들을 모두 주력부대에 데려오시게 하시고는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기울이신다. 그러나 정황은 아이들을 계속 끼고다니는것이 얼마나 커다란 후과를 초래할수 있는가를 나날이 실증해주고있었다.

이 애들때문에 사령부가 시시각각으로 위험에 처해있었다.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나선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문제였다.

장군님께서도 그 애들때문에 지금 당장 부대가 큰 곤난을 겪게 되고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다.

그뿐아니라 유격대지휘관들과 모든 대원들이 그 애들때문에 고생하고 속을 태우고있다는것도 알고계시였다. 그럴수록 안타까운 심정에 사로잡히시는 장군님이시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눈앞의 현실만을 두고 가슴아파하실수 없으시였다. 미래를 내다보시였다.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문제가 그 미래와 잇닿아있었고 오늘의 이 소년들과 잇닿아있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사들에게 인간은 미래에 살아야 하며 미래를 키우는 그 사랑이 더없이 고귀하고 빛나는 위대한 사랑임을 깨우쳐주신다.

드디어 장군님께서서는 소년중대를 조직할데 대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시는것이다.

소년중대, 이것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군사들에게도 없는 새로운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큰 힘을 낳게 하는 믿음인가.

실로 혁명을 위하여, 그 애들을 위하여 더 해주어야 할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없는것도 다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항일의 혈전장에서 소년중대가 태어났던것이다.

소설은 이와 함께 장군님과 소년들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 의리로 결합된 위대한 힘을 펼쳐보이고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장군님께서 준오를 비롯한 소년중대원들에게 하신 이 뜨거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의 정으로 수령과 전사들을 결합시키고있는 불패의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를 뚜렷이 하고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것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주지 않고서는 살수 없다. 믿음을 주는 사랑이 있어야 사회적 집단은 하나로 뭉치고 공고 발전해나갈수 있다.

사람은 인간사회에서 보편성을 띠는것이지만 사랑의 갈래와 양상. 그 크기는 실로 천재만상이다.

혁명적인 사랑을 고귀한 사랑으로 일컫는것은 그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본성적 요구이기때문인것이다. 예로부터 사랑은 내리고 충성은 오른다

는 말이 있다. 로동계급의 수령과 혁명전사들 사이의 관계는 전사들에게 돌려주는 수령의 사랑과 그에 보답하는 전사들의 충성의 뉴대로 맺어져있다.

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믿음과 사랑, 수령에 대한 전사들의 충성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사상의지적 단결을 담보하는 초석이다.

소설에서 소년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것은 혁명의 씨앗을 키우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에 대한 생동한 형상화이며 동시에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철석같은 신념의 생활적 기초로 된다.

혁명의 씨앗은 위대한 태양의 빛발속에서만 역세계 자라날수 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던 준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뒤를 이을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덕만이, 광호, 인수, 광식이 등 모든 소년들이 혁명의 꽃을 피워나가는 참된 삶을 누릴수 있었다.

소설은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소년들의 신념화된 충실성과 혁명적 의리가 어떻게 발현되고있는가를 감동적으로 그림으로써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것이 자식의 도리라면 자기를 혁명가로 키워준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은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본분이다.

나어린 소년들은 세상리치, 혁명의 리치를 다 깨닫지는 못했어도 자기들의 아버지이신 장군님을 충성으로 보위해야 한다는것만은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굳은 신념으로 간직하고있었다.

장군님의 천재적인 지략으로 부대가 적들의 사면 포위를 뚫고나갈 때 장군님의 신변을 보위하기 위하여 그 누구의 명령도 신호도 없었던만 소년중대원들 전원이 바람같이 몸을 날려 장군님을 두겹세겹으로 에워쌌다. 그들은 한몸을 그대로 장군님을 지키는 방탄벽으로 내댔던것이다. 얼마나 미더운 우리의 소년들인가. 그들은 바로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이 나라 어린이들의 운명이며 장군님을 보위하는것은 자기들의 심장이 가리킨 의무라는 이 하나만은 명백히 알고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수 없는 그들자신의 신념화된 본분이였다.

장군님께서 모두들 자기 위치로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 위치는 여기라고 하며 끝내 장군님곁을 뜨

지 않는 소년중대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장군님께서서는 눈앞이 흐려와서 짜창을 겨냥하실수가 없으시였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힘인것이다.

소설에는 소년중대에서 선발된 아이들을 다른 부대로 보내게 되신 장군님께서 그치없이 섭섭한 마음을 누를길 없으시여 밤새 잠못드시고 우등불옆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계실 때 준오와 소년중대원들이 오히려 장군님을 위로하며 어서 들어가 주무시라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장면이 있다.

사령부의 꺼질줄 모르는 등불을 불적마다 지휘관들이 힘들게 올리군하던 말씀을 이밤에도 준오와 소년중대원들이 대신 올리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축축히 젖어드는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뜨겁게 말씀하신다.

《고맙다. 너희들은 다 자랐다. 난 너희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겠다.》

장군님의 사랑속에 자란 이런 아이들. 장군님께서 이젠 마음놓으실수 있게 된 이런 아이들, 이들이 바로 우리 혁명의 미래이며 장군님의 참다운 아들들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심원한 주체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자양분으로 하여 충성의 꽃을 피워나가는 가장 공고하고 역센 통일단결이며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이룩되어나갈 우리 혁명의 승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담보하는 통일단결임을 굳이높이 선언하고있다.

## 인간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형상

장편소설 《위대한 사랑》은 100 여명 소년들의 운명문제를 심각히 밝히고있는것만큼 작품의 생리에 맞게 형상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것을 요구한다.

소설에서 형상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인정선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심화시켜나간데 있다.

인정선은 이 소설을 사랑과 믿음으로 꼭 찬 유기체로 만들어 감동어린 눈물과 커다란 충격을 자아내게 하는 기본열쇠로 되고있다.

장군님과 아이들의 인정선을 기본흐름으로 하고있는 소설의 인정세계를 깊이 파고드는데서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장군님의 풍모를 보여주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인간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과 의리, 가장 깊은 인정세계는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이다.

자신의 부담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100여명의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다니시는 그 하나의 사실에는 벌써 수백수천, 아니 암흑속에 헤매이는 이 나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밝은 웃음을 주고싶어하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정세계가 놓여있다.

준오오누이의 가공한 정상은 부모 잃고 헤매이는, 굶주리며 헐벗고 고생하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가슴아픈 정상의 축소판이었다.

소설은 장군님께서 아이들의 일로 하여 체험하시는 섬세한 감정과 심리적 충격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인간세계, 다심한 인정세계를 펼치고있다.

《이보시오. 경위중대장, 이건 동지로서만이 아니라 자식을 키워본 년장자로서 하는 이야기요.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비범하고 용맹하신분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장군님만큼 눈물이 많으신분은 없을거요.

싸움에서는 호랑이지만 인정앞에서는... 그제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움짍을 못하시니... 눈을 감으면서도 난 그것이 걱정이 되는구만. 적들은 바로 그걸 리용하여 사령부를 소멸하겠다고 대공세를 시작하고있소...》

이것은 유격대 《식량도감》인 로상권이 마지막 눈을 감으며 하는 말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만큼 그렇게 눈물 많고 어지고 인정깊은 다심한분은 없다.

소설은 이에 대하여 장군님께서 아이들에게 기울이시는 정, 사랑의 화폭을 통하여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부대가 행군해가다가 잠시 휴식할 때마져 그곳에서 멀지 않은 이도강부근의 산기슭에 묻고 떠나신 리성묵이를 그려보시며 그가 남긴 자식들을 아직 찾지 못해 안타까와 하시는 장군님, 놈들의 토벌만행에 부상당한 준오의 누이동생 순애가 장군님의 품에 안기자마자 끝내 숨을 거두었을 때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어 맨발벗은 그 애 발에 새 운동화를 신겨 조국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묻어주시고 마음속으로 전사한 옛전사를 부르시며 용서를 비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순애를 잃은 슬픔때문에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지 못하는 준오를 위해 씨름판을 마련하시고 몸소 심판까지 서주시며 어린 동생을 먹여살리느라 고생한 준오의 허약한 몸을 추세우기 위해 보약까지 써주신다. 그런가 하면 준오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지만 그때문에 몹시 피로와 하시기도 하며 준오가 소년중대를 대표하여 사격경기에 나갔을 때는 누구보다 마음쓰시면서 목표를

맞히지 못했을 때는 못내 아쉬워하기도 하시고 명중했을 때에는 더없이 기뻐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류달리 정을 기울이신 준오를 다른 부대에 보내게 되었을 때는 밤길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그 애들의 병실을 돌아보시기도 하고 우등불결에 오래도록 서계신다.

소설은 격으로 보면 너무도 상대가 되지 않을듯 싶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평범하고 나 어린 소년과의 관계가 어찌하여 이처럼 뻔해야 뻔수 없는 혈육의 관계로, 인정적으로 맺어져있는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있다.

장군님께서 처벌받은 준오를 찾으신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기고있다.

총을 메워주시고 군복과 장구류도 아이들에게 맞게 갖추주시면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는 장군님의 그 은정에 아이들은 부모없는 설움을 몰랐고 혁명의 크나큰 품이 장군님의 품이라는것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소설은 이와 함께 장군님께서 준오의 큰아버지인 리인묵에게 돌려주시는 사랑과 은정을 전사한 리성묵에 대한 의리와 아버지의 대를 잇도록 키우시는 준오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깊이있게 밝힘으로써 민족의 넋, 인간적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애를 부각시키고있다.

소설에서 감동깊이 묘사되고있는 인정선은 또한 준오와 순애의 눈물겨운 생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오누이의 아름다운 인정세계와 어른스럽게 되어가는 소년중대원들사이의 혁명적 동지관계이다.

큰아버지네 집을 찾아갔다가 살림걱정을 하는 내외간의 말을 듣고 그길로 순애를 데리고 그 집을 뛰쳐나와 방랑의 길을 걸으며 자기의 연약한 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순애를 먹여살리는 준오, 고생하는 오빠를 생각하여 배고픔을 애써 참아가며 여물지 않은 선 개암을 오빠 몰래 먹다가 들켰을 때는 방긋이 웃어보이기까지 하는 순애, 순애앞에선 먹은것 없어도 배부른척하고 여린 팔을 들어서 힘장수시늬를 하는 준오, 오빠를 따라 함께 일하러 가겠다고 헌납비까지 싸들고 따라나서는 순애, 정녕 이들 오누이사이에 오가는 정은 끝없는 눈물을 자아내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장군님의 아픔으로 되었고 이 나라 모든 어린이들에게 밝은 빛을 주어야 하겠다는 장군님의 의지로 되었다.

100여명 아이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고가는 정은 또 어떠한가. 처음은 싸움도 하고 말썽도 부리지만 너무도 일찌기 세상풍파에 시달렸고 더우기 혁명의 품에 안긴 그 크나큰 힘으로 하여 그들은 빨리도 철이 들어간다. 그들은 무엇보다 아버지장군

님을 언제나 먼저 생각했고 동무들을 위할줄 알았다.

충탄이 비발치는 속에서는 장군님의 신변을 먼저 생각하여 자기 한몸을 내댈줄 알았고 장군님께서 자기들때문에 걱정하고 가슴아파하시는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장군님을 위로해드릴줄도 알았다. 힘이 센 덕만이가 준오와의 씨름에서 우정 저주는 가룩한 마음, 그것은 장군님께서 이 씨름판을 준오의 웃음을 보시기 위해 마련하신것이라는것을 알고있고 그래서 동무에게 더욱 기쁨을 주고싶어하는 속깊은 행동인것이다.

준오가 처벌받았을 때는 함께 피로움과 슬픔을 나누려고 그를 찾아온 준오네 대원들. 참으로 하나하나가 그저 스쳐지날수 없는 섬세한 감정이며 아름다운 인정세계인것이다.

소설은 인정선을 깊이있게 파고드는데서 내면 심리묘사를 비롯하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효과적으로 탐구리용하고있다.

소설에서 내면심리분석은 어디까지나 인정선에 기초하고있다.

소설은 군사전략상문제에선 단 한번도 모대건적 없으신 장군님께서 아이들때문에 체휼하시게 되는 실로 그 누구에게도 터놓으실수 없는 장군님의 고충을 경건한 마음담아 한자한자 새겨감으로써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철학적으로 펼쳐보일수 있었다.

소설은 깊이있게 분석된 자연현상을 장군님의 내면심리와 유착시키면서 묘사수준을 보다 높이고 있을뿐아니라 작품의 철학성을 묘사로써 담보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설레이는 밀밭과 애솔에 맺힌 이슬방울, 태양 등 자연현상을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를 부각하는데 리용하면서 그를 통하여 혁명의 진리를 일반화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런던장과 소년중대 중대장 강년이, 지하공작원인 윤석찬과 박덕산 그리고 리인묵이의 시점을 통한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지하조직을 통하여 구하여들인 아이들의 신발가운데 들어있는 신발, 타진 신발에 대한 의의있는 세부묘사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세계와 그에 매혹된 혁명전사들의 신념의 세계를 감명깊게 그리고 있다.

여기서 아이들의 운명문제를 긴박한 정황과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극적으로 심화시켜나간 구성의 짜임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소설은 정황을 점차적으로 더욱 첨예하게 조성하고 그에 따라 소년들의 운명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조시키면서 이러한 형상적 론리를 타고 사건과 인간관계를 튼튼히 맞물리고있으며 여기에 판동군 소장인 우미야마와 일본인 기자 고바야시의 반증선을 효과있게 결합시켜 제기한 사상 주체적파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있다.

이와 함께 소년들의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동심적 성격 그대로를 개성적으로 파고들면서 그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자연스럽게 그리고있다.

장편소설 《위대한 사랑》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를 소설문학분야에 구현한 작품의 하나이다.

소설은 사상에술적 성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고 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 가사

# 나의 결엔 언제나 어머니 있어

김정호

가없이 펼쳐진 하늘이 있어  
꽃새들 자유로이 날아예듯이  
나의 결엔 언제나 어머니 있어  
한생의 먼길도 즐겁게 가네  
아, 언제나 어머니당이 내결에 있어  
한생의 먼길도 즐겁게 가네

봄날에 넘치는 해빛이 있어  
새싹이 움트고 자라나듯이  
나의 결엔 언제나 어머니 있어

소원은 꽃피고 열매를 맺네  
아, 언제나 어머니당이 내결에 있어  
소원은 꽃피고 열매를 맺네

망망한 바다에 등대가 있어  
곧바른 항로를 찾아가듯이  
나의 결엔 언제나 어머니 있어  
내 가는 앞길은 밝게 열리네  
아, 언제나 어머니당이 내결에 있어  
내 가는 앞길은 밝게 열리네

## 영웅에 대한 생각

김석범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요?》

언젠가 아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처럼 영웅이 될것을 꿈꾸며 바라라는 아들이 기특해서 그의 물음에 충분한 대답을 주려고 애썼다.

《영웅은 특출한 위훈을 세운 사람이라나다.》

그때 내가 준 대답은 이러했다. 어느 정도 들어맞는 대답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와서 돌아켜보면 부끄러울 정도다.

나는 영웅들이 지니고있는 높은 정신세계에 대해선 언급조차 못했던것이다.

실로 우리의 영웅들은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불타는 조국애를 지닌 열렬한 혁명가,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인것이다.

내가 아들에게 한 대답에서 부족점을 찾아보게 된것은 며칠전 단편소설창작을 위한 취재길에서 한 운전사아바이를 본 뒤였다.

때아닌 폭우가 무더기로 쏟아지던 날이었다. 인가가 없는 들길에서 폭우와 맞닥들린 나는 잎이 무성한 가로수밑으로 들어가 비를 굶고있었다. 비를 맞으며 가야 할 일을 생각하니 비옷을 갖추지 않고 출장길에 나선 자신이 몹시 후회되였다.

짐을 만재한 한대의 화물자동차가 나타난것은 이때였다. 나는 차신세를 지고싶었으나 시창으로 어딘가 모르게 칼칼해보이는 운전사의 무표정한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아예 실망해서 자동차를 못본체했다. 운전사들은 대체로 차세우기를 싫어하는 법인데 칼칼한 인상에 표정이 없어보이는 운전사들의 경우엔 더한것이다. 나는 차바퀴에서 튕겨나는 흙물이나 맞지 않으려고 나무기둥뒤쪽으로 피해섰다. 그런데 자동차가 내옆에 와서 멈춰설줄이야!

나이지숙한 운전사는 나에게 어디까지 가는가고 물은후 손수 운전실의 저쪽 문을 열어주기까지 했다. 나는 너무 돌발적인 일이어서 미처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나는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에야 나에게 스스로 호의를 보여준 운전사에게 뒤늦게나마 인사말도 하고 이것저것 묻기도 했다. 운전사아바이는 줄곧 시창앞과 후사경에 비쳐진 적재함의 짐상태를 살필뿐 나의 물음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일을 하고있소. 자동차를 탔으면 가만히 앉아있기나 하오.》

그 모습은 마치도 이렇게 나를 꾸짖는듯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자동차는 한쪽에 들판을 끼고있는 산기슭을 달리고있었다. 길우에선 비물이 팔죽처럼 끓고있는데 주위세계는 비내리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로 소연했다. 얼마쯤 달려가던 운전사는 길우에 넘쳐흐르는 도랑물을 보고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그앞에 차를 세웠다. 나는 그게 무슨 장애가 돼서 그러느냐고 한마디 하고싶었으나 또 침묵으로 대답할것 같아 그의 거동만 지켜보았다.

비웃소매에 팔을 꿰며 밖에 나선 운전사는 시뻔건 도랑물이 흘러들고있는 논판을 살펴본후 두령을 타고 저앞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서 허리를 굽히고 도로밑에 묻혀있는 도관안을 들여다보고난 그는 이윽고 반대쪽 길가로 옮겨갔다.

그쪽 길가에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비물이 호수처럼 피어있었다. 창대같은 비는 계속 쏟아지고있었고 사방에서 모여드는 비물은 급격히 불어나고있었다. 그곳을 살펴보고난 운전사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허리가 물속에 잠기는가싶었다.

(원, 저런...)

그가 아예 물속에 잠겨들고말것만 같은 위구심에 사로잡힌 나는 얼른 차에서 뛰어내렸다. 운전사는 손더듬으로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있었다.

《왜 나오시오? 들어가계시우.》

그의 말은 통명스러웠으나 그 어조에는 사람을 아끼는 후더움이 숨배여있었다.

《원, 아바이두...아바인 물속에 들어가계시면서 두...》

《허허허... 나야 도관이 멘것 같아서 그러지만...》

《하지만 아바이야 운전사인데...》

《내 할 일이 아니란말이겠소? 헌데 먼저 본 사람이 이 운전사이니 어떻게 한다? 조금만 지체되면 길이 끊어지구 논판에 흙사태가 밀려들수도 있는 판인데...》

《!》

가슴이 몽클해진 나는 자신도 모르게 물가에 들어섰다.

《그만두우, 나야 이미 다 젖은 몸이지만... 음, 이렇게 걸려있었으니...》

운전사는 문득 끝끝 허를 차더니 풀뿌리와 검불이 뒤엉킨 커다란 나무뿌리를 끄집어냈다. 그러자 물목이 메여 길우에 넘쳐나던 도랑물이 검붉은 수면우에 나팔통모양의 물흙을 깊숙하게 그리며 도관속으로 쪽쪽 빨려들어갔다.

《됐구만.》

운전사는 끊어질 위험과 침수될 위험이 가쳐진 길과 논벌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몸은 물침봉이 되었고 깨끗하던 옷에는 흙물이 들었다. 그러나 첫 인상에 칼칼하고 무표정해보이던 그의 얼굴에는 그윽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충격적인 걱정을 느끼었다.

길우에 넘쳐오른 한줄기의 도랑물도 스쳐보지 않고 그 원인을 찾아낸 아바이, 그리고는 길이 끊어지고 논이 침수될세라 흙물속에 들어가서 물목을 열어놓은 아바이! 그는 도로관리원도 아니고 농장원도 아니다. 오직 이 땅,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것이었다. 나는 운전자아바이의 아름다운 소행을 출판물에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흥분된 어조로 그의 이름을 물었다.

《허허허, 뭐 별치 않은걸 가지구...》

운전사는 자기 이름을 대지 않았다. 것처럼 그는 겸손하고 소박하기도 했다.

나는 자동차사업소에 찾아가서야 그의 이름을 알아낼수 있었다. 사업소 당일군은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오늘은 그가 올해 수송과제를 석달이나 앞당겨 수행한 의의깊은 날입니다. 그는 검덕의 선광장을 건설할 때 그 누구도 자동차로 실어올릴수 없다고 한 대형기중기를 높은 산정에 끌어올린 그 기백, 그 정신으로 늘 수송전선의 앞장에서 달리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스쳐볼수 있는 길우의 한줄기 도랑물에서도 일거리를 찾고 제 몸을 내뒀군요. 걸음마다 위훈과 아름다운 소행을 낳는 그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그가 영웅이라는 한마디 말밖엔 더 할수가 없군요.》

영웅! 높은 정신세계! 그 말마디들은 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가사

산정에 대형기중기를 실어올린 영웅이라는 경이적인 사실, 그에게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신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바쳐가는 숭고한 정신이 있다는 당일군의 말은 나에게 새로운 격동과 흥분을 안겨준 것이었다.

어려운 모퉁이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사람들을 놀래우는 위훈의 금자탑을 세우기도 하고 나무밑에서 비를 굶고있는 사람도, 길우에 흐르는 한줄기 도랑물도 결코 스쳐버리지 않는 운전자아바이! 이것은 내가 보고들은 한두가지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한두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가 달리는 길과 그가 사는 거리와 마을에 소문없이 꽃피난 그의 가지가지 아름다운 소행들을 충분히 느껴볼수 있었다.

실로 그는 언제 어디서나 네일내일 가림없이 사람들의 손이 가야 할 일이면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행동할줄 아는 높은 차원에 올라서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영웅들의 정신세계이다. 이 땅, 이 나라를 위한 일에서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을 혁명의 요구, 자신의 의무로 감수하고 누가 보건말건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신을 바쳐가며 해제끼는 사람들,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정신적 품모를 체현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영웅이기에 사상정신적 면에서도 그렇듯 차원이 높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업소 당일군과 헤어진 다음에도 사람들이 존경하며 받드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아들이 내앞에 있기라도 한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영웅이 될것을 꿈꾸며 바라는 아들아! 나는 네가 영웅은 되지 못해도 영웅들의 이 훌륭한 정신 세계만은 꼭 따라배우길 바란다.》

영웅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지금도 바닥을 모르게 깊어가고있다.

## 내 마음엔 언제나 하늘이 열려있네

김철

내 마음엔 언제나 하늘이 열려있네  
어머니 우리 당이 열어준 하늘  
낮이면 해빛이 가득히 차고  
밤이면 별빛이 넘쳐 흐르네

내 마음엔 언제나 하늘이 열려있네  
우리 당이 펼치는 끝없는 하늘

희망은 크나큰 나래를 치고  
창조의 노래는 울리어가네

내 마음엔 언제나 하늘이 열려있네  
당의 기치 나뭇기는 영광의 하늘  
내 한생 안고 살 이 하늘에  
오늘도 붉고붉은 노을이 타네

# 빛나는 삶

김선

추억의 물결 파도치는  
혁명렬사릉에서  
사람들 저저마다 입속으로 외워본다  
...

1945 년 8 월 14 일 전사

...

1953 년 7 월 27 일 전사

...

혁명투사들은  
이렇게 우리결을 떠나갔더라  
20 여성상 일제와 싸워오다가  
해방의 날을 하루 남긴채  
눈보라길 이어 미제와 3 년간 싸우다가  
전승의 축포울릴 시간을 몇시간 남긴채

그들 개선광장에서  
환영의 꽃다발 받지 못했고  
그들 전승광장에서  
열병식 대렬에 서지 못했어라  
생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  
생에서 단 몇시간이 모자라

히나 그들의 삶은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삶  
그들 개선문의 주춧돌이 되고  
전승광장의 디딤돌이 되었더라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품  
우리 당의 품속에 안겨  
영광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  
세월을 넘어 영생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결을 떠나갔어도  
언제나 우리결에 가까이 있어라  
천만사람의 꽃다발을 받으며  
행복한 세월로 이어지는  
천만년대의 축복을 받으며

아, 행복한 삶의 세월을 단 하루 앞두고  
그들은 비록 한복숨 바쳤어도  
영원한 세월 값높은 삶을 누리며  
혁명가의 빛나는 생에 대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있어라

# 진 심

박함집

마음속 거울에 나를 비춰보듯  
복도에 걸린 유화앞에 서면  
피젖은 군복 조용히 헤치며  
영웅은 속삭여요 오늘도 나에게

-이 당비와 함께  
내 당원증을 당에 바쳐주세요!

준엄했던 싸움의 그날에  
생을 바친 너전사  
오늘도 꽃나이쳐너로 내앞에 서있는  
아, 당의 참된 딸  
안영애!

생의 마지막순간에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일가요  
아무나 쉽게 받을수 있는

그런 당원증일가요

하지만 이상해요  
복도에 들어설 때면  
그 부탁 나에게 하는것만 같아  
나도 몰래 마음이 숨엄해지는건

그 부탁을 안고 사노라면  
언젠가는 나도 당원이 되고  
영웅도 될것만 같아  
늘 가슴에 불을 달고 뛰는 마음

그런 날과 날에  
영웅은 언제나 나에게 속삭여요  
마음속에 늘 안고살아야 할  
더없이 귀중한 진심에 대해서



## 인사

정해경

무산역을 떠난 백무선협궤차는 온밤을 달려 새벽녘에야 서두역에 도착했다.

기차가 역에 와 몇자 푸릿한 어둠에 잠겨 조용히 새벽을 맞이하던 역홈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상봉과 리별의 정이 넘쳐흐르는 역전의 광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윽한 향수와 짜릿한 애정을 불러준다.

차봉수는 당반에서 손집을 내리울 생각도 잊고 서성거리었다.

어제낮에 도소재지에서 전기기관차에 오른 때로부터 협궤차를 바꾸어타고 밤새 농촌빠스칸만한 객차에서 부대끼 피곤은 둘째치고 예상외로 달라진 생활환경과 새 임무를 두고 생각이 무거웠다.

련합당위원회에 있을 때 몇번 다녀간곳이긴 하지만 기업소 초급당비서라는 새 직무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내리눌러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서인지...

천여명이 넘는 종업원, 수백리가 넘는 립산작업구간, 수많은 룬전기제, 연간 10 여만립방의 통나무 생산과제, 이런 수자들이 뇌리에 쿵쿵 들이박히었다.

더우기 서두의 후계림에 우려를 표시하던 관리국 일꾼들의 말이 활촉처럼 명치끝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다.

통나무를 생산하는것과 함께 베어낸 자리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무를 지닌것이 립산사업소여서 오늘에 살면서 생각은 래일의 숲에 가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에 대한 책임과 함께 래일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사는것이 립산사람들이었다.

《초급당비서동지 아닙니까?》

객차문가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봉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이 차안에 누가 비서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봉수는 목소리의 임자가 객차중심의 전등밑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가 이곳 서두림산사업소 초급당지도원 박춘길이라는것을 알았다.

《아니 이 밤중에 웬일입니까?》

봉수는 반색을 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밤차에 오신다는 전화를 받았습시다. 고생 하셨지요?》

인정이 넘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봉수는 기뻐다. 가슴을 부여잡고있던 못생각들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밤에 역에까지 나와 마중해줄줄이야...

뜻밖이었다.

봉수는 춘길지도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인상을 새기고있었다.

몇달전에 이곳에 료해사업을 왔다갈 때에도 춘길지도원은 역에까지 나와 도중식사가 든 가방을 차에 올려주며 뜨겁게 배웅해주었다. 그런데 오늘 또 그의 마중을 받게 된것이다.

《비서동지, 수고하셨습니다.》

춘길이 뒤에서 울려오는 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다. 목소리만 들어도 인품이 풍기고 인정이 느껴지는 인사였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사업소 경리와장동무가 아닙니까? 어디 출장을 떠나는 길입니까?》

봉수는 반가움에 넘쳐 춘길이의 어깨너머로 그의 손을 잡았다

《고생하셨겠습니다.》

다시한번 인사를 차리는 그의 넓고 부등부등한 얼굴에 미소가 환히 어렸다. 눈에서 번쩍 피어나 얼굴전체를 환하게 물들이는 그 미소가 몹시 인상적이었다.

기업소에 내려올 때마다 신세를 지군하는 경리과장이었다. 그는 춘길이앞으로 나서더니 당반우에서 봉수의 가방을 내리웠다.

《이러지 마십시오. 짐이라야 가방 하나에 배낭 한개뿐이구 또 처음 오는 길도 아닌데 이리 주십시오.》

그러나 경리과장은 배낭과 가방을 량손에 갈라 쥐고 승강대앞으로 나서는것이였다.

《전에야 손님으로 오시군했지만 이번에야 오시는 걸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함속으로 가십시오.》

경리과장의 말이다. 그러니 당지도원과 경리과장이 함께 봉수마중을 나온것이였다.

《오고가는 손님시중에 어디 견디여내겠습니까?》

봉수는 그의 수고가 헤아려져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다.

《후방일군이야 그 맛에 살지요. 그게 없으면야 무슨 후방일군이겠습니까?!》

심중에서 우러러나오는 목소리는 마디마디 후방일군의 자부가 깊이 어려있었다.

첫걸음부터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것이 미안했다. 이런 일꾼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지 두려울 것이 없을것 같았다.

《추웠지요? 호실을 따뜻이 달구어놓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합숙을 향해 걷는 경리과장의 말이다.

《며칠전에 우리 지도원동무가 도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긴 벌써 나무잎이 피구 봄이 한창이더라면서요? 숨동복을 입고 나갔다가 망신스러워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다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긴 아직 겨울이 한창인것 같습니다. 몇백리밖에 안되는 한 개 도안인데도 절기는 보름이나 늦어지니 그저 사철 따뜻한게 그리운곳이 서두입니다.》

경리과장은 보기 좋게 몸집이 부한데다 마디마디 넘기는 말소리도 참기름을 바른듯 술술 거치는 데가 없어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수고를 안해도 일없을걸 그랬습니다. 전에도 묵어간 합숙이 아닙니까?》

봉수는 진정 사의를 표했다.

《그래도 사람이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다. 새로 부임되어오시는데 혼자 합숙문고리를 잡게 해서야 도리가 되겠습니까?》

경리과장의 말은 잘 익은 돌배의 향기처럼 봉수의 가슴을 몽클하게 하였다.

사람이 인사법을 안다는것이 그리고 그것을 지킬줄 안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 ! 아마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자기를 인간으로 다듬는 전기간에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첫째가는 품성일것이다.

《비서동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경리과장에서 호실을 새로 꾸렸습니다.》

춘길이의 말이다.

《이거 나때문에 수고를 끼쳐 안됐습니다. 전에와보니 여기 합숙조건이 좋던데요. 나무고장에 공기 좋고 물좋지, 산골이라 해도 뭐 그리운게 있습니까.》

《글쎄 여기 왔던 사람들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일을 쓰게 못하다보니 아직 불비한게 많습니다.》

경리과장은 자못 흡족해서 말했다.

경리과장은 앞서 합숙현관복도로 들어갔다.

《거 누구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경리과장이 하는 말이다. 누가 복도 한끝에서 대답을 하는데 긴복도에 울려우렁우렁한 소리만 들릴뿐 말을 알아들을수 없었다.

복도에 들어선 봉수는 어쩐지 소리난쪽으로 눈길이 끌렸다. 누가 마지막호실 아궁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손으로 연기를 쫓으며 후후 입김을 불고있었다.

《 ? ...》

봉수는 의문이 실린 표정으로 경리과장을 바라보았다.

《암만 립산이라고 해도 밤낮으로 아궁을 달구어서야 나무를 당해내겠습니까?》

경리과장의 말은 그쪽 사람에게보다 봉수의 의문에 대한 예술적인 대답이었다.

《맥도 보지 않고 침통부터 빼든다구 겨울철엔 출장오는 손님들마다 호실엔 들어가보지도 않고 아궁부터 찾는다니까요.》

봉수에게 이렇게 말한 경리과장이 그쪽에 대고 다시한번 소리쳤다.

《그만하시구려. 우리 동무들이 손님들한테 그리 야박하지는 않을텐데... 놔두시우. 새벽에 한아궁더 넣게 하지요.》

《네. 겨울에 나무 가리는 아궁 없다더니...》

연기를 쫓으며 아궁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미안해서 우물쭈물 하는 말이다.

의문이 실렸던 봉수의 마음은 순간에 풀렸다. 봉수도 겨울에 출장지로 나가면 먹는것보다 잠자리에 대한 생각이 더 컸던것이다.

그러니 새벽불을 때는것에 심본 이해가 갔다.

호실성원을 위해 어느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소행일것이다.

경리과장은 호실자물쇠를 벗기었다. 호실에서 아늑한 공기가 확 풍겨나왔다. 금강산폭포를 인두화로 새긴 이불장과 옷장이 눈길을 끌며 가정적인 정서를 돋구어주었다.

이불장이 벌게 차곡히 들어찬 비단이불, 방에 잘 어울리게 놓인 침대와 원탁, 방안의 품위를 돋구는 전압조절기가 달린 목이 긴 탁상등, 자개가 박힌 차판, 보온병, 재털이...

봉수는 제집에 온것처럼 순간에 마음이 안정되면서 온갖 시름이 확 풀리는듯했다.

봉수는 몸을 푸근히 받쳐주는 스프링침대머리에 앉아 방안을 다시한번 둘러보며 말했다.

《호실을 잘 꾸렸습니다. 합숙생들이 좋아하겠습니 다. 이 호실은 비어있던 호실인가요?》

《외래자들이 더러 리용했습니다. 며칠전까지 출장은 동무가 있던것을...》

이렇게 말한 경리과장의 눈길은 봉수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놓치지 않으려고 망연히 헤매이는듯했다.

봉수는 방금전에 아궁에서 불을 때던 사람이 생각키웠다. 어쩐지 그 사람이 이 호실에서 옮겨간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지못게 갈마들었다.

《호실조절을 해주었습니다. 그 동무가 거반 산에 가 있다보니 호실엔 있는 날이 별반...》

호실주인이 산에 나가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지간히 마음이 풀렸다.

《목재생산기지라 전국 각지에서 안오는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고 누가 가는지 장악을 하해도 미처... 그저 이래저래 바쁜 사람이 경리과장동무입니다.》

춘길지도원이 꺼들었다.

《가정가지고 제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합숙생들의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더우기 장창 집을 떠다니는 출장원들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주위에서 암만 위해준다 해도 제집, 제 부모처자만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위해준다는거야 어디까지나 직무상 임무에서 나오는것이고 부모처자의 정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에 부모처자의 정을 대신할것이야 없습지요.》

경리과장의 말은 귀로 들린다기보다 부드러이 살결에 와닿는듯싶었다.

춘길지와 경리과장은 어서 쉬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봉수는 자리에 누웠으나 잠들수 없었다. 피곤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짙 차 어디에 의지만 하면 며칠이고 내쳐 뿔아떨어질것 같더니 정작 아늑한 잠자리에 눕고보니 새 일에 대한 욕망이 불붙듯 전신에 타오르며 마음을 격동시켰다.

누구에게나 인간생활에서 첫 인상이 귀중한것이다. 봉수는 지금 서두에 와서 받은 첫 인상을 떠올리고있었다.

《그래도 사람이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부임되어오시는데 혼자 합숙문고리를 잡게 해서야 도리가 되겠습니까?》

경리과장이 했던 말이 다시 음미되면서 즐거운 경음악의 선율처럼 봉수의 마음을 감쌌다.

몇번 와봐야 경리과장은 확실히 인사성이 밝은 사람 같았다. 춘길지도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리과장에 대해서도 이곳에 왔다면 관리국 일군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있었다.

자리에 누우니 군복을 때던 사람이 또다시 마쳐들었다.

(호실이 추워설가? 혹시 변소라도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뒤통을 뺏을까? 이 호실에 있다 옮겼다는 사람은 누구일까? ...)

하지만 이런 생각은 순간에 스쳤을뿐이다. 당조직이 있고 일군들이 있는 이상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을것이 아닌가!

봉수는 좋은 마음을 안고 깊이 잠들수 있었다.

...

봉수는 그이튿날 사업소일군들에게 부임인사를 한뒤 산지작업소로 떠날 결심을 했다. 산지작업소 실패를 료해하는 과정에 신청작업소의 통나무생산수와 식수면적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후계림문제는 책상앞에서 말로 듣기보다 눈으로 직접 보아야 더 정확할것이다.

사람마다 자기나름의 일본새가 있겠지만 봉수는 후계림문제부터 료해하고싶었다.

마침 경리과장이 신청작업소 산지합숙을 돌아보러 가겠더니 그와 함께라면 훨씬 더 빨리 산지를 료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이었다.

《비서동지, 신청작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역토장에 기관차를 대기시켜놓았습니다.》

춘길지도원의 말이다. 이때 경리과장이 떠날 차비를 해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비서동지, 역토장에서 기관차가 기다립니다.》

독촉하는듯한 어조와 선망의 미소가 비낀 얼굴로 보아 역토장에 나가 기관차를 확인하고 온것 같았다.

어쩐지 이 일이 고마우면서도 자기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해주는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봉수는 감정을 능그러뜨렸다. 어디까지나 성의가 아닌가!

《과장동무, 신청작업소까지 30 리밖에 안된다니 슬슬 걷지 않겠습니까?》

봉수가 이렇게 나오자 경리과장은 인차 수궁해나섰다. 그러면서 작업소 소재지에서 벌목장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벌목장까지 거리나 거반 맞먹는다고 주해를 달았다.

결국 림철기관차는 떠나가고 둘은 산길을 타게 되었다.

숲속에는 아직 군데군데 누렇게 바랜 척척한 눈무지들이 땅에 박힌 무슨 티처럼 희뜩희뜩 보였으나 역시 계절은 어쩔수 없는것이어서 눈무지결에 서있는 사스레나무는 염소방울같이 생긴 말깃말깃한 토색꽃술을 무슨 레스처럼 드리우고 봄기운을 풍기었다.

푸른 담벽처럼 밀막아선 삼송림속은 아직 겨울이 숨어있는듯 싸늘한 랭기가 풍겼으나 나무가지들은 서둘러 봄단장을 하느라 한창 검푸른 문양을 진하게 새기고있었다.

수림의 프락처럼 사개가 트인 골바닥 개울가에 서있는 채양버들가지들에 새빨강계 봄물이 올라 어찌 보면 그 빨간 가지들이 봄맛이 나온 숲의 정다운 손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봉수의 눈길은 산기슭, 봇나무숲으로 끌리었다. 방금 빨아입은듯 유난히 하얀 몸뚱이를 번쩍이며 빼곡이 들어선 봇나무군락을 보노라니 자연계에도 저들의 무슨 생활이 있어 그 뒤를 기다리고있는 것처럼 정들어보였다.

봇나무숲과 이어진 산중턱에는 크고 실한 몸통을 틀지게 세우고 이깎나무들이 서있었는데 그것들은 흡사 심술궂은 사내들이 계집애들에게 트집을 걸듯 봇나무숲을 넘겨다보는것 같기도 했다.

봄에 대한 견해와 주장은 사람마다 다를테지만 역시 봄은 숲에서부터 시작되는것 같았다. 사람들에게 봄을 알리는 현상중에 수목보다 더 정확한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무가지들은 봄을 알리는 신호기라고 해야 할것이다.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숲속 여기저기서 울렸다. 그 목소리는 아직 구성지거나 류창한것이 못되었다. 겨우내 자연의 구속속에 입을 봉하고있던 산새들의 발성련습이라고 할지, 그 목소리는 도간도간 끊기는 몹시 단조로우며 소심한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겨울을 이겨낸 자연의 무대에서 울리는 봄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할 때 그 소리에 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이채를 띠면서 이른봄의 정서를 돋구어주었다.

청신한 공기는 코안이 시리도록 싱그러웠다. 온갖 수목들이 다투어 쏟아놓는 청심제와도 같은 향기는 또한 얼마나 그윽한것인가...

차차 숲이 깊어지자 나무가지들이 지붕을 이루고 숲을 하늘세계와 격리시켜놓았다. 숲에 대고 소리치면 동화에 나오는 신기한 할아버지가 어둑컴컴한 숲 어디에서 지팡이를 짚고 채수염을 흔들며 나타날것만 같은 신기한 세계다.

풍만한 숲을 보니 마음이 승엄해지면서 심장의 활력이 더해졌다. 조국, 조국의 숲! 저절로 이런 감탄이 우리나라였다.

조국과 숲, 숲과 인간은 태고로부터 어차피 떨어질수 없이 이어져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신청작업소 전망이 어떻습니까? 나무원천이 얼마나 되는가요?》

봉수는 숲에 심취되어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물었다. 허나 봉수는 자기가 너무 방대한 질문을 했다는것을 깨닫고

《신청작업소 순환주기가 몇년입니까? 후계림전망은 어떤지요?》 하고 시정했다.

《30 년으로 설정은 했지만 생산에 급급하다보니 아마 30 년주기가 좀 힘든것 같습니다. 더우기 신청은 사업소의 만아들과 같아서 사업소계획이 까딱까딱 할 때면 신청에 대고 소리를 치지요. 아직 100 년을 베여낼 원천이 있다고는 하지만 차차 바빠하는 기색이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 당대에야 이 서두꼴안에서 나무가 밀창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경리과장은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봉수는 우리 당대로 선을 그어놓는 경리과장의 말이 심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후계림조성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림업관리국을 떠날 때부터 걱정스러웠던 문제를 상기하며 이렇게 물었다.

《하기야 하지요. 공업림에서 벌목림지를 정리하고 식수를 하지 않으면 새 벌구 채벌허가를 안해주

니 별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해 심어 그해에 열매 보는 농사와는 달리 몇십년을 가꾸어야 베여내게 되는것이고 그것도 대개 다음대에 가서야 베여낼수 있는것이 산림이어서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자는 말은 하는데 그대로 잘 안되는가봅니다.》

이것은 숲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산은 있다고 해도 숲이 없으면 고기없는 바다와 같고 자원없는 땅과 같을것이 아닌가? 우리 대가 아닌 다음 대에 가서도 산림자원이 끊어지게 된다면 오늘에 산 사람들에게 민족의 량심에 대하여 물을것이 아닌가? 무덤속의 진토가 되였다 해도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할것이다.

산지가 많은 우리 나라의 실정을 놓고볼 때 누구나 산림에 등한할 권리가 없는것이다. 나무신세를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득 대학때 한 로교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예로부터 숲을 가꾸는 일은 대를 물려가며 하는 일이어서 아들, 손자대를 생각하며 나무를 심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무를 찍어 쓴다고 했습니다...이 말뒤에 그 로교수는 학생들에게 산림학을 일생의 학문으로 삼고 조속종과 우량종을 연구발굴하여 산림조성사업에서 새로운 경신을 가져오자고, 그래서 조국의 숲을 대대로 푸르게 하자고 호소하였었다. ...

이런 생각에 파묻혀있던 봉수는 《딱-》 하는 소리에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확실히 무슨 타격을 받아 나무가지가 꺾어지는 소리였다

《누구요-?》

뜻밖에도 경리과장이 큰소리를 길게 뿔었다. 그 목소리가 이 나무, 저 나무에 미치며 컴컴한 숲을 헤치고 한끝까지 울려갔다가 누가 맞받아 소리치듯 되돌아왔다.

경리과장은 숲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였다. 그 여유있는 목소리에 수축되였던 몸이 펴지면서 저절로 긴장기가 풀렸다.

《예-!》

어딘가 숲이 우거진 머리우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봉수는 무엇한테 홀리우는듯한 생각이 들어 의문이 실린 눈길로 경리과장을 바라보았다.

《누가 나무우에 올라갔습니까.》

경리과장은 무슨 큰 발견이라도 한것처럼 기뻐하며 하늘을 배경으로 무슨 날새등지처럼 나무정수리에 까맣게 매달려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여기가 신청작업소 벌목림지입니까?》

봉수는 의문이 풀리지 않아 이렇게 물었다.

《금년여름에 들어온다고 프락포르길도 내고 벌목간선들도 쳐놓았습니다.》

경리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우에다 다시 소리쳤다.

《게서 뭘 합니까?》

경리과장의 말이 숲으로 파다히 퍼져나갔다.

《경리과장동무군요! - 림반을 좀 확인해보됐습니다.》

우에서 날아오는 목소리다. 경리과장을 아는것으로 보면 작업소사람임이 틀림없었다.

봉수는 의문이 풀리었다. 소반(림산에서 나무수종별로 정한 한개의 작은 구역)이나 림반(소반을 나누어 정한 벌목림지단위)을 확인하는데 그곳 지대에서 제일 높은 나무에 올라가 보는것이상 정확한것이 없었다. 이것은 대학때 실습에서 터득한것이였다.

그러니까 작업소의 누가 이해 봄에 들어올 림지의 경계를 확인하고있는 모양이였다.

《괜히 조심하시우!》

경리과장은 이렇게 주의 비슷하게 소리쳤다.

《소반이나 벌구가 잘못 정해진 모양이지요?》

봉수는 이렇게 물었다.

《아닙니다. 도림업설계와 산림경영부문 일꾼들이 작업소 준비실과 공동으로 림도를 떠가며 몇번이나 확인했다구요. 저 동무들은 몇년째 여기에다 채종림을 만들어놓고 봄마다 들어와서는 무슨 산목채취를 다닌다고 합니다.》

《어디서 온 동무들입니까?》

봉수는 다그쳐 물었다.

《산림과학원 도분원에서 온 동무인데 조림사업을 연구하는 무슨 연구사라는것 같습니다.》

(산림과학원 분원?)

어쩐지 합숙호실을 옮겨놓았다는 동무가 저 동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피뚱 떠올랐다.

그러나 어쩐지 경리과장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봉수는 신청작업소의 벌목장들을 돌아보면서 온종일 산림과학원 분원에서 왔다는 연구사에 대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자기 기업소에 온 과학자를 몰라보다니? ...)

봉수는 계획했던 산지료해로정을 바꾸는수밖에 없었다. 나무꼭대기에 매달려있던 연구사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얼른거리였다.

봉수는 온길로 되돌아섰다. 경리과장은 저녁에 후방일군협의회를 불러놓았다면서 봉수보다 앞서 기관차편으로 내려갔다. 경리과장은 봉수더러 저녁식사를 늦지 않도록 하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저녁빛이 깃들고있는 숲에 썰렁한 바람이 불었다.

봉수는 부지런히 걸음을 다그쳤다. 바람에 부대끼는 나무가지들이 와슬렁거렸다.

《어-?》

저쪽 맞은편 산중턱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숲사람들이 산중에 있을 때 자기를 알리느라 하는 신호였다. 이마 봉수의 인기척을 느낀 모양이였다.

《어-어허-》

봉수는 그곳에 대고 소리쳤다. 그리고나서 연구사가 매달려있던 숲쪽을 올라다보았다. 사람을 찾을수 없었다.

《어- 어허-》

저쪽에서 다시 응대가 왔다. 봉수는 숲을 헤치며 그리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저쪽에서도 사람이 자기한테로 찾아온다는것을 느꼈던지 《어-어-》하며 자주 소리를 쳐 위치를 알렸다.

40 이 넘어보이는 사람이 자기 키만한 어린 나무에 무슨 표쪽을 달고있었다. 이깎나무에 매달려있던 연구사였다.

《수고하십니다.》

봉수의 인사에 그는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 쭈물거리다가 《어떻게 여길 다?...》 하고 감사해하기도 하고 의문스러워하기도 하는 기색으로 바라보았다.

《나무에 번호를 답니까?》

봉수는 이렇게 말하며 방금 표쪽을 달아놓은 나무앞으로 다가갔다. 1227 이라는 수자가 손바닥만한 나무판에 새겨져있었다.

《채종림지가 아닙니까?》

표쪽을 단 나무들이 주위나무들보다 싱싱하기도 했거니와 경리과장이 연구사가 여기 어디에 채종림을 만들어놓았다던 말이 생각나 이렇게 물었다.

《예, 그런데 겨울에 산양이 서른아홉그루나 생장점을 잘라먹었군요. 그래서 다시 번호를 달던중입니다.》

《접했는가요?》

봉수가 이렇게 묻자 봉수를 산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지

《그랬습니다. 우량품종을 찾느라고 몇해째 산을 헤매고 다녔지만 보는것처럼 해놓은건 이게 답니다.》 하고 어린 나무들을 둘러보며 선선하게 대답했다.

《이곳 서두일대 토양상태를 조사해보면 부식층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 부식층밑은 화산사퇴적층이 두텁게 깔려있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있습니다. 년평균 기온이 1~2 도밖에 안되는데다 봄이 석달도 되나마나하고 여름이 숲에 1 개월밖에 깃들지 않으니 나무의 성장률이 낮은 형편입니다. 이 지대의 자연기후적 환경은 우리 나라 북부의 전형적인 아한대성 기후지요.》

이렇게 말한 연구사는 봉수가 자기 말을 심중히 듣고있는데 힘을 얻어 다시 이었다.

《림지의 피복상태며 지질상태로 보면 이깎보다 삼송이 더 적지인데 자연갱생되다보니 이깎림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작업소 일대의 수목들을 밀벌하고 삼송림으로 바꾸자고 채종림을 좀 꾸렸는데 뭐 잘되질 않습니다.》

봉수는 감동하지 않을수 없었다. 봉수가 여직 우려해온 후계림문제를 연구사는 실천으로 옮기고 있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산림과학원  
도분원에서 오신 연구사선생...》

《어떻게 그걸 다?》

《내 여기 립산에 새로 온 초급당비서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어제밤차에 오셨지요?》

이렇게 말한 연구사는 몇개밖에 남지 않은 표죽  
을 다 나무에 달아매고나서 말을 이었다.

《수고 많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쓰고사는 사람은  
많아도 나무를 자래우자고 맘먹는 사람은 적지요.  
자연을 대상으로 일하는 립산이니 울타리안의 공장  
과는 달라 마음쓸 일이 많을겁니다. 처음 만나서 이  
런 말을 해서 안됐지만 아무쪼록 산림조성사업에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연구사의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몽클해지면서  
얼마전에 어느 립산마을의 학교장을 만났던 일이  
생각났다.

그 학교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가 병설인 자  
그마한 학교였는데 학생수가 200 명이 못되었다.

그 학교 교장은 환갑을 넘긴 사람이었는데 그의  
사업수첩에는 해마다 학교에서 심어온 나무본수가  
적혀있었다.

매 학생들이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고등중학교  
를 졸업할 때까지 55 본의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졸업때는 나무인제인수사업이 학교의 큰 년례  
행사로 진행되는데 군대에 가서도 사회에 진출해서  
도 자기들이 심고 가꾼 숲에 대하여 잊지 못하고  
편지도 보내오고 출장길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  
였다.

이것은 나서자란 고향의 숲을 가꾸는데서만이  
아니라 한사람이 글을 쓰고 책을 보기 시작하여 생  
을 마치는 날까지 쓰는 팔프원료만큼 숲에 나무를  
보충해놓는다는 것이었다.

봉수는 이 교장한테서 큰 감흥을 받았다. 그 교  
장은 숲에 나무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생의 먼길을  
걸어가야 할 아이들의 작은 걸음에 공민의 큰 걸음  
새를 익혀주는 애국자였다.

이 연구사앞에서 봉수는 그때 교장한테서 받았  
던 감흥을 다시 느끼고있었다.

(내가 어제밤차에 온것까지 아는걸 보면 새벽에  
불을 때던 사람이 이 연구사동무가 아니었을까?  
...)

봉수는 따뜻한 방에서 마음을 풀고 잔것이 후회  
되었다. 후회라기보다 죄의식감이 가슴을 압박하였  
다.

순간 자기를 마중나와서 경리과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도 사람이 인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부임되어오시는데 혼자 합숙문고리를 잡게 해서야  
도리가 되겠습니까?》

어제 새벽에 기쁨을 주었던 경리과장의 말이 이  
제와서 봉수의 장기들을 할퀴듯 아프게 자극할줄이  
야...

《아무래도 비서동지야 당일군이니까 우리보다  
더 마음쓰겠지만 현지에 나와 돌아보다가 간혹 산  
에 공지가 있는것을 볼 때면 격분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군이 있는가 하고말입니다. 배여낸 몫으  
로 오늘은 평가를 받을수 있겠지만 빈자리가 생긴  
래일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연구사는 눈길을 들어 이윽도록 숲  
을 바라보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조국땅이 밭이 다르구 숲이 다르겠습니  
까? 밭에서는 포기농사를 하는데 숲에서는 왜 포기  
농사를 못하겠습니까? 사실 따져놓고보면 밭에서  
야 가을 한철에만 수확을 하게 되어있지만 숲이야  
가꾸기만 잘하면 빙빙 돌아가며 사시절 다 수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어서 한 3년만 손질해주면 자  
연속에서 저절로 자라는게 나무인데 이보다 더 큰  
리득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도 집약농사를 하고  
바다에서도 립체농사를 하는데 산이라구 왜 나무농  
사를 못하겠습니까?》

연구사는 처음만난 사람한테 실례되는 긴 연설  
을 했다고 느꼈던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저 참고해주십시오. 오늘 진종일 사람을 처  
음 만나다보니 반가운김에 하고싶었던 말을 막 쏘  
아놓았군요.》

연구사는 갑자기 흐려지는 날씨에 우려를 표시  
했다.

《어서 내려가십시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  
다.》

이렇게 말한 연구사는 부지런히 하얀 비닐바줄  
통구리를 풀었다. 하늘이 우거지상처럼 되는것을  
보면 진눈까비가 내릴 징조였다.

《고생들여 채종림지를 가꾸어놓아도 자연이 억  
제하지 짐승들이 침습하지 지어 찌퀴란놈까지 눈독  
을 들이니 마음을 놓을수 있어야지요.》

그는 풀어낸 바줄로 채종림지밖으로 둘러치기  
시작하였다.

《이 줄은 왜 드리우는가요?》

봉수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며 물  
었다.

《밭에 새들이 들가봐 줄을 띄우는거나 같은 리  
치지요. 짐승들도 이렇게 줄을 띄워놓으면 죽을텐  
줄 알고 발길을 꺼려하지요.》

봉수는 그앞에 더 말을 할수 없었다. 봉수는 줄  
을 늘어가는 그를 무한한 격동속에 바라보며 바줄  
을 풀어주었다. 종전까지 그가 숲을 배경으로 하나  
의 작은 점처럼 보였다면 지금은 그를 배경으로 숲  
이 자그마한 푸른 점으로 안겨왔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인가! 사람들은 날마다 늘  
어나는 생활을 누리면서도 과학자들의 이런 고심어  
린 노력의 열매로 새로운 종자가 탄생하여 알곡생  
산이 늘어나고 돌에서 천이 나오고 두툼한 소설책  
이 차례지고... 이런것을 우리 지도원들과 경리과장  
이 알고나 있을는지? ...)

하늘에서 한꼬치 두꼬치 진눈까비가 떨어졌다. 숲이 불안스레 설레었다. 날씨가 갑자기 차질 징조가 보였다.

하건만 연구사는 조금도 초조해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이 그본새로 줄을 늘어나갔다.

연구사를 바라보노라니 생각은 어제오늘일로 아지를 쳤다.

경리과장과 춘길지도원이 역에 마중을 나왔던 일이며 자기를 위해 꾸려준 호실이며 대기시켜놓았던 기관차며...

(이것이 잘못된 일인가?)

봉수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것이 도덕이 아닌가!

다만 도덕이 고유한 자기의 본성에서 리탈되어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 뜨거울 정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외시되는것이 가슴아픈 일이었다.

연구사와 함께 줄을 다 늘이고났을 때 숲이 컴컴하게 어두워졌다. 바람이 갑자기 세지는것을 보면 방금 하늘에서 진눈까비가 떨어질것 같았다.

서둘러 일감을 마무리한 그들은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얼마쯤 내려와서 갑자기 연구사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 이런, 한곳에 들릴곳이 있는데...》

그는 잠시 발방아를 찢다가 미안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비서동지, 제 잠깐 지체했다가 따라가겠으니 먼저 가십시오.》

봉수는 진눈까비에 젖은 몸을 구뭇하고 걸음을 돌리는 연구사에게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봉수는 함숙으로 가던 길에 사무실에 들렀다.

《우리 함숙에 산림과학원 도분원에서 온 동무가 있는걸 압니까?》

그는 우선우선한 얼굴로 맞아주는 지도원에게 물었다.

《그런 보고는 받았습시다. 그 동무들이 몇달씩 와있군하지만 별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말을 꺾어놓은 춘길지도원은 봉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가 재여보는듯하였다.

봉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생각해보았다.

(보고라니? 그의 호실에도 가보고 그와 같이 산에도 나가 그의 연구사업을 당적으로 도와주었더라면 이런 말을 할수 있겠는가?...)

춘길지도원이 자기를 마중하여 밤에 역에까지 나왔던 일이며 전에 돌아갈 때 도중식사까지 차에 올려준 일이며 경리과장에게 봉수의 숙식에까지 관심해준 성의와 기업소에 내려와있는 과학자에 대한 관심에는 어딘가 차이가 너무나 큰것 같았다.

봉수는 이런 감정을 안고 이렇게 물었다.

《지도원동무, 어려서 혹 과학자가 되어보고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산림조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사업같은것말입니다.》

《그런 꿈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어디 바란다고 되는 일입니까? 전 그런 재목감이 못됩니다.》

《그렇습니까?》

봉수는 이렇게 반문해놓고 잠시 생각해보았다.

누구나 다 되고싶어하면서도 다 못되는것이 과학자이고 이들이 하는 일이 힘든 사업이라는것을 알고있다. 하다면 지도원이 자기 기업소에 온 과학자에 대하여 왜 그렇게 무관심하였는가?

지도원은 당사업에 대한 견해가 똑바로 서있는것 같지 않았다.

왜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하는가?! 어머니들한테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고무와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항상 힘에 넘쳐 사는것이 인간인가? 이런 어머니의 이름을 지닌 당일군이 과학자의 고심 어린 노력을 몰라보다니?...

봉수는 갑자기 허전해지는 감정을 안고 사무실을 나서다가 다시 돌아섰다.

《지도원동무, 집에 뭐 좀 없습니까? 난 아직衣裳을 못오다보니 ...》

봉수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말을 했다. 눈까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니 피땀 생각키우는것이 있었던것이다.

《예, 그렇지 않아도 비서동지가 내려온다고 하길래 집에 뭐 좀 준비를 시켜놓았습니다.》

지도원은 반가운 기색을 지으며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서둘렀다.

《그렇소. 미안하지만 우리 호실로 좀...》

봉수는 사무실을 나섰다. 함숙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으나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었다.

함숙으로 내려온 봉수는 호실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말고 아궁으로 내려갔다. 방안온도가 어떻게 지간에 아궁에 불을 지피고싶은 심정뿐이었다. 아직 아궁에 저녁에 땀 불씨가 남아있어 인차 장작에 불이 달렸다. 불길의 널름거리며 타올랐다. 그 불길을 보노라니 또다시 연구사에 대한 생각이 못견디게 가슴을 틀어잡았다.

어쩌면 통나무는 짝어낼줄 알면서 후계림때문에 숲을 헤치고다니며 남모르는 수고를 하고있는 과학자를 몰라본단말인가?...

경리과장이 식당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호실로 들어서려다가 아궁앞에 봉수가 있는것을 본 경리과장은 펄쩍 놀라며 혀를 찼다.

《아니 이리저 마십시오. 이 동무들이?》

경리과장은 당황해하며 호실문을 열고 들어가 방바닥을 짚어본다 온도계를 본다 하더니

《호실온도가 24 도입니다. 불을 더 때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봉수는 아궁에서 일어나고싶지 않았다.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싶었다.

《과장동무, 어제 새벽에 저 마지막 아궁에서 불을 때던 동무가 연구사동무였지요?》

《예, 늘 산에서 열어가지고 내려와서 그런지 그저 함숙으로 들어서면 불부터 보는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구사동무가 있는 호실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봉수의 이 말에 경리과장이 함숙접수실로 들어가 한줄이나 되는 열쇠멍치를 가지고 나오더니 맨 끝호실을 열었다. 그리고는 먼저 들어가 방바닥을 짚어보기도 하고 닫겨져있는 이불장문을 괜히 한번 더 여닫기도 했다.

방안이 썰렁했다. 책상도 침대도 봉수가 쓰는것보다 못했다. 탁상등도 불병도 그랬다.

책상우에 책들이 일하던 그대로 이리저리 놓여있었다. 쓰다놓은 연필이며 지우개까지도 눈길을 끌었다.

봉수는 그 책들을 하나하나 정히 품에 안았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슴이 터질것 같아 견딜수 없었다.

봉수는 그 책들을 안고나와 자기 호실의 책상우에 가져다놓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인차 들어가게 하려고 본래의 위치대로 배열해놓았다.

복도에 따라나왔던 경리과장이 영문을 몰라 의문이 실린 눈으로 봉수를 주시하고있었다.

봉수는 다시 호실로 들어와 옷장문을 열었다. 봉수의 눈길은 옷장밑에 되는데로 끄저놓은 옷가지들에 끌렸다.

슈에서 뒹어진 옷옷이며 벗어놓은 양말이 옷장 한구석에 치우쳐져있었다.

불쑥 뜨거운것이 목젖밑까지 차올랐다. 이것만 보아도 객지생활에서 그의 수고가 헤아려졌다.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면 옷가지들을 끄저놓은채 두었으랴싶었다.

봉수는 옷장의 옷이며 연구사의 사품들을 자기 방으로 다 옮겨다놓고나서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들고 세면장으로 나왔다.

《비서동지, 주십시오. 우리 집에 가져다... 아니 제가 빨겠습니다.》

경리과장이 황급히 하는 말이였다.

물론 경리과장이 집에 가져다 빨아줄수도 있을것이고 세탁소에 맡길수도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봉수는 자신이 하고싶었다. 연구사를 위해줄수 있는 일거리가 생긴것이 기뻐다. 군대에서 대학에서 이런 일쯤은 배우고 남음이 있었다.

봉수가 비누거품을 일쿠며 빨래를 시작하자 경리과장이 옷옷을 벗더니 나머지 빨래감을 잡아쥐었다. 그리고는 비누칠을 하고 열성스레 문대기 시작했다.

봉수는 이런 경리과장을 보며 생각하고있었다.

(경리과장동무가 기업소에 후계림이 걸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풀려 내려온 과학자를 왜 외면했을까? ...)

봉수는 이런 서분한 마음을 안고 경리과장한테 말을 건넸다.

《과장동무, 이곳 서두에 나무숲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것 같습니까? 서두림산이 존재했을까요? 그러구 나나 과장동무같은 일군도 필요했을까요?》

《아니, 그거야 어떻게... 말자체 림산이 아닙니까? 숲이 없이야...》

이렇게 말한 경리과장은 봉수의 말뜻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사실 비서동지 사업이 지장될것 같아 호실을...》

《허허 그래서 호실을 옮겨놓았습니까! 내 사업이 뭐겠습니까! 강연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실천이 다르면야 군중이 당을 믿겠습니까?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자는것은 당의 방침인데 이 사업을 잘 도와주는것이 당사업입니다. 과장동무가 연구사동무의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어야 했을걸 그랬습니다.》

봉수는 경리과장과 진정의 말을 나누고싶었다.

《과장동무가 여직 나를 위해준건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같은 일군이야 수천수만이 넘지만 나라의 과학자야 어디 그렇습니까? 육체적 노동은 휴식으로 노동력을 보충받을수 있고 또 누가 대신할수도 있지만 정신노동이야 어디 그렇습니까? 이런 수고를 모르다니요? 더우기 사업소의 후계림문제때문에 온 연구사동무가 아닙니까? 체집에 온 진짜 귀한 손님을 눈여겨보지 않았으니 정말 잘못되었습시다.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경리과장은 빚어놓은 사람처럼 입을 봉하고 스택스적 빨래를 문대기고있었다.

봉수는 빨래가지들을 가지고 호실로 들어와 줄을 매고 넣어놓았다.

이윽하여 출길지도원이 배가 불룩한 가방을 들고 들어섰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가방에서 딸랑하는 병소리가 났다.

《우리 지도원동무가 함숙생 심정을 아누만요. 가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것 같은데 과장동무, 거 여기 특산이 뭐 좀 없습니까? 저 뜨끈뜨끈한 감자 곱돌장같은것말입니다.》

봉수가 이렇게 말하자 경리과장이 신발뒤축도 채 꺼신지 않고 식당쪽으로 사라졌다.

봉수가 앞은뱅이 책상을 가운데에 갖다놓자 출길지도원이 가방의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고급 상표가 붙은 술이 두병이나 나오고 감자튀개며 룡나물채까지 나왔다.

얼마뒤 경리과장도 쟁반에 음식가지들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출길지도원이 술병을 따려고 했다.

《가만 차리기가 힘들지 먹는거야 서두르게 있습니까, 조금 기다립시다. 내 좀...》

봉수는 복도로 나왔다. 연구사가 있던 호실로 가보았으나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진눈까비속에 아직도?...) 은근히 근심이 동해 났다.

봉수는 밖으로 나왔다. 얼마를 기다렸는지...

연구사가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돌아왔다.

《수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러다 병만나면 어찌자고 비웃도 안가지고...》



봉수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몸을 다짐하게 살렸다.

《새로 심은 나무들에 받침대를 세워주느라고... 이젠 습관돼서 별로...》

연구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더 밖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봉수는 급히 할말이 있다고 연구사를 호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어망결에 봉수에게 끌리워 호실에 들어선 연구사는 좌석이 다르게 마련된것을 눈치채고 《전 호실로...》 하고 황급히 돌아서려 했다. 그런것을 봉수가 끌어당겼다.

《연구사선생, 자 마른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봉수는 옷장에서 연구사의 옷가지를 내주었다.

《?》 연구사는 어안이 병병해서 자기 옷을 바라보았다.

《제가 연구사선생의 동의도 없이 여기로 호실을 옮겼습니다.》

연구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봉수가 내여든 옷을 바라볼뿐이었다.

《이 호실이야 원래 연구사선생이 있던 호실이 아닙니까? 제가 방해되지 않는다면 저하고 같이 있으시다.》

연구사는 미안해하기도 하고 감사해하기도 하며 결심을 못하고있었다.

《자, 어서 옷부터 갈아입으십시오. 다 남자들인데 뭐랍니다?》

봉수가 이렇게 말하자 연구사는 어쩔수 없었던지 옷장쪽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전 때없이 일하는 사람이어서 비서동지한테 방해가 될텐데... 있던 호실이 좋은걸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뭐 노여운 일이 있더라도 속을 풀어주십시오. 제 연구사선생의 승인도 없이 책이며 사품들을 다 날라왔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동무들과 나의 자기 비판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봉수는 연구사를 상머리에 끌어당겨 앉히고 나서 그에게 술을 따랐다. ...

연구사의 눈빛이 흐려졌다. 인간이란 진정이 통할 때 어린애들처럼 기뻐지기도 하고 녀인들처럼 인차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쏟기도 하는 법이다.

취기가 오른 연구사의 눈길이 줄에 늘어놓은 자기의 옷가지에서 굳어졌다.

《아니... 비서동지. 이리저 말걸 그랬습니다. 일해보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실천이어서 50이 되도록 술을 헤치고다녀도 뭐 별로 술에 보랜것이 없이 다니면서 이렇게 신세만 지고 삽니다. 과장동무, 지도원동무 욱해주시우. 뭐 이렇게까지! ...》

...연구사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온종일 술을 헤치고 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하랴. 게다가 눈까비까지 맞았으니...

춘길이며 경리과장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연구사의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연구사동무가 산에서 진눈까비를 맞고 얼어서 내려올것 같애 마음이 걸려 지도원동무랑 과장동무한테 민망한 부탁을 했됐습니다.》

봉수의 이 말에 춘길이의 눈빛이 흐려졌다. 뒤이어 경리과장이 머리를 푹 떨구었다.

봉수는 이들의 태도에서 일군된 자신들의 임무를 깊이 돌이키고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문제를 두고 당에서 얼마나 심려하고있습니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당의 결정지시들을 내려보내고... 과학발전을 위해 초를 녹이듯 고스란히 한생을 바쳐가는 과학자들에게 아낄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민모두가 집집의 문을 열고 그리고 사회의 모든 봉사일군들이 때에 가림없이 두팔벌려 귀빈으로 반겨맞아 들여야 할 사람이 우리 과학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방안에는 깊이 잠든 연구사의 숨결소리만이 흐를뿐이었다.

그 숨결소리는 온몸에 청청 감졌던 피로와 고뇌가 빠져나가는듯 시원하고 부드러웠다.

《누구나 다 되고싶어하면서도 과학자가 못되는 것은 재능과 지혜에서 그리고 노력에서 이들을 따라갈수 없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원동무,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우리 일군들은 웅당 이들의 사업과 생활상 편리를 돌보는것을 당적인 그리고 공민적인 의무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수는 여기서 말을 끊고 춘길지도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죄의식에 잠겨 앉은 자세를 풀지 못하고 긴장해있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를 차려야 하겠습니까? 자그마한 한개 기업소의 초급당비서한테는 인사를 지킬줄 알면서 나라의 과학자선생은 몰라보았으니 이게 어디 인사도리가 됐습니까? 과학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문제는 애국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사회적인 문제, 사상문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과학자는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국보란말입니다. 더 늦기전에 자신들을 돌이켜볼수 있게 된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봉수는 온밤 잠들수 없었다. 첫날 새벽 불을 때던 연구사의 모습이 자꾸 새록새록 떠오르며 잠을 말끔히 쫓아버렸다.

과학자의 정신세계에 반영된 좋은 인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감정은 그들의 심장을 조국애로 불태우며 창조의 열매로 빛나게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봉수는 새벽에 잊지 않고 덧불을 때리라 마음먹으며 그의 잠자리를 고스란히 지켜주고있었다.

## 인간들의 화원에서

리석

### 달밝은 창가에서

고요한 밤이면  
금실은실 비쳐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대는 창가에서 조용히 시를 읊더라

...

저 별이 뜬곳은 어디런가  
술도  
꽃도  
향기도 없는  
가없이 황막한 하늘

허나 별이여  
너는 빛나고있구나  
태양의 빛을 받아  
그리도 찬란히

...

고요한 밤  
하늘가에 반짝이는 별에 대한 시  
시인은 아니건만  
가슴속에 샘솟는 감정의 흐름을  
시의 선물로  
부드러이 읊어보던 그대

당일군  
그대는 별을 사랑했더라  
어둠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모진 추위속에도 얼줄 모르며  
영원히 한빛으로 빛나는 그 별을

그 별은  
그대가 바라는 별이여라  
그 별은  
그대가 사랑하는 별이여라

그 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그대 어디서나 만나는  
우리 땅의 뜻을 안고사는  
그 무수한 사람들의 눈빛이 아닌가  
그 사람들의 량심의 빛발이 아닌가

그것이  
그렇듯 소중한 사랑스러워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재부여서

오, 당일군  
그대는  
만물이 단잠자는 깊은 밤에도  
하루일의 보람에 겨워  
래일의 희망에 넘쳐  
시인은 아니건만  
시를 읊더라

달밝은 창가에서  
별에 대한 시  
별처럼 빛나는  
인간에 대한 시를

### 어느 한 병원에서

내 어느날 친구 병문안으로  
병원에 간 일이 있었네  
여기선 보이는것 눈처럼 하얀것뿐  
오직 의사의 물음과 환자의 대답뿐  
췌, 조용히-

친구의 호실 몰라 의무실문 두드리려 하는데  
반쯤 열려진 의무실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목소리

-선생, 이 글자가 K 자요 R 자요?  
묻는 사람은 약제사인듯  
처방전을 받아온 사람은 의사인듯

헌데 어인 일인가  
제가 써준 처방전 다시 보는 의사  
사색이 되었구나  
-내가 정말 큰일을...

K 자가 아니라 R 자요

후-큰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의사  
약제사의 손잡고 말하네  
-찾아와 물어보길 얼마나 다행이요

자기 사업의 실수를 두고  
자책하며 몸부림치는 의사의 모습  
아, 그저 스쳐지나며 불일이 아니구나  
우리 당의 품속에 삶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처방을  
내 저 의사처럼 내린 일은 없었던가...

## 그대가 듣는 말, 그대가 하는 말

한사람을 만나도  
심장이 뛰게 진리를 새겨주자  
또 한사람을 만나도  
그들이 가는 길에  
곧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자

그대의 가슴속  
언제나 뜨겁게 차흐르는 이 생각  
그래서 그대는  
오늘도 만났더라  
조립직장의 머리 흰 로당원아바이를  
설계사업소의 젊은 사도공을  
그리고 공장유치원 처녀교양원도...

그들의 말은  
마디마디 수수하고 레사롭고 평범해도  
마치 이 세상 가장 진귀하고  
소중한 진리의 구슬인듯  
한마디도 놓침이 없이  
고스란히 새겨듣는 그대

간혹 그들의 말에  
명백치 않는것  
얼핏 스쳐보낼수 있는것도  
그대는 다시 묻군하더라  
그 말에 깃든 숨은 뜻을 알려고

유치원에 처음 보낸 딸애 이야기  
군대에서 제대된 둘째아들 이야기

그리고 고등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당의 부름 받들고 건설장으로  
떠나간 손자가 보낸 그 편지의 사연...

그 어느 하나도  
무심히 듣지 않고  
레사로이 흘려보내지 않는 당비서

때로 그들의 말에  
웃기도 하고  
흥분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걱정도 하며  
그대는 천만가지 남의 일들을  
자기가 당한 일로 안고 마음쓰는 일군

오, 못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에  
언제나 귀기울이고  
진정을 다 바치는 그대  
기대옆에서  
혹은 함숙침대우에서  
혹은 깊은 밤 퇴근길에서  
그대가 그들에게 하는 말

-당에 속을 주고 진심을 주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사니  
얼마나 좋소  
래일은 오늘보다  
삶이 더 아름다와질것이요

## 인 상

인상이란 그 무엇이기에  
사람마다 그 일군을 만난  
첫 인상을 두고  
말하기 좋아하는가

인상이란 얼굴표정인가  
아니면 몸가짐인가  
사람들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의 표현인가

일부러 꾸며서 좋게 보이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꾸밈이 없어도 진정이 흐르는  
그것이 그 당일군의 인상  
사람들을 자기처럼 아꼈줄 알고  
자기 감정을 목새길줄 알고  
남의 생각을 헤아릴줄 아는

그 마음이 온몸에서 뿜겨나는것이어서

그래서

손잡고 한번 통성해도

허물없이 다 말하더라

마치 어머니앞에서처럼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사연도

가슴아픈 일, 기뻐던 일도

아, 늘쌍 당에 피줄을 이어놓고

한숨결로 사는 우리의 생명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당일군의 얼굴엔

살뜰하고 다정한 인상으로 꽃피거니

내 때없이 조용히

그 당일군의 인상을 생각하면

그는 더 가까이 내 마음속으로

웃으며 속삭이며 찾아오더라

오늘처럼 매일도

당을 따라 참되게 걸어가게

## 나는 왜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리종덕

생각해보면

무명적삼의 그 젖픔이

나에게는 어쩌면 그리도 부드러워

두볼을 하냥 비비였던가

나를 키운 어머니의 그 손이

그렇듯 마디퍼진 손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깊이 어루쓸것인가

어찌다 잘못을 저지를 때

채찍처럼 엄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그 음성

꿈결에도 이렇듯 젖어들것이나

세월이 가도 잊을수 없구나

다리북구장으로 나갔던 어머니

젖은 치마자락에

온밤의 피로가 감겨있었으련만

산수문제 풀다가 쪽잠든 이 아들을 보며

그리도 기쁨에 젖던 그 눈빛

오, 어머니의 가슴은

수령님 주신 분여지의 흙냄새와

날알향기로 젖어있던 가슴

어머니의 손은

조국을 받들어가던

성실한 근로가 박혀있던 그 손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던가

두볼을 비비던 그 젖픔이

조국의 따뜻한 요람이였고

그 손길 그 목소리 그 눈동자가

바로 조국이 나에게 준

숨결과 사랑과 의지였음을

어릴적 나의 세계였던 어머니는

조국이라는 크나큰 바다의

물방울이 아니던가

어머니를 알게 된 그날부터

천백배로 더 귀중해진

나의 조국이여

이 아들을 키우느라

그렇듯 마디 굵어진 어머니손이어서

내 이토록 어루쓰다듬고싶고

무명적삼이었던 그 어깨를

더 좋은 비단으로 덮어올리고싶은 마음이어서

오, 나는 이토록 사랑하는것이다

어머니 나의 조국을,

온밤 불심지를 다 태우며

내 가슴속에 사랑을 기울여준 어머니에게처럼

내 조국을 위하여서는

나의 피 한방울도 아껴두지 않으리라!

## 나는 로동당원이다

권정웅

온갖 대비는 모두 상대성의 기초우에 놓여있다는 말은 참으로 옳다.

내 어릴적 하루는 어찌도 그리 길었던지, 버력산에서 금돌을 줏고 잠자리를 쫓아 온 벌판을 달리고 미역을 감고 붕어를 한궤미나 잡고도 아직 점심때가 멀었었다. 다시 집을 떠나 미루나무에 올라 개구마리둥지를 털고 꽃강냉이청대를 하고 삭정이를 한단 해가지고 내려와도 해는 아직 장바 한기장이나 남군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책을 몇장 읽거나 글을 얼마간 쓰면 하루해가 휘딱 지나간다. 시간은 그렇게 다치고 심리의 부패는 왜 이렇게도 차이가 많은가. 해방돼서 인차 《정로》를 몇개 리세포에 돌려주고나면 범잡은 포수처럼 가슴을 내밀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바다를 단꺼번에 들이마신것만치나 빠근하다는 장편소설을 끝내고도그저 시름을 하나 덜었다는 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지만 만사가 다 그렇지 않았다는것도 또한 명백하다.

그것을 나는 내가 로동당원이라는 영예, 긍지, 자부, 의무감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작된 그때로부터 연연 40년이 넘는 지금까지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 어떤 때를 막론하고 그 체적과 농도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당은 나를 안아키운 은혜로운 품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은 당원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도록 늘 보살피주고 이끌어주는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임니다.》**

40여년전의 일이다.

화독에 장작을 집어넣고나서 책상에 앉은, 평양에서 왔다는 한 일군은 입당청원서를 앞으로 당겨 놓고나서 나를 한참동안 훑어보는것이였다. 스무살난 애송이, 무릎에 놓인 로동모, 석탄때를 채 가지지 못한 회색양복, 초점을 잃고 방황하는 시선, 그것이 나였다.

《어데서 왔소?》 해서 《고원탄광이요.》 했다. 《왜 공산당에 들려고 하오?》 《사람답게 살고싶어서요.》 《여직까지는? ...》 《왜놈의 머슴이였구 마소와 같았지요.》 이때 나는 머리가 쥘 울려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강서군 장산탄광에서 목욕탕물이 잘 데워지지 않았다는 해서 바가지로 정수리를 넘겨치던 나까무라감독놈의 낯짝이 떠올랐던것이다.

해방전 그때 나는 열네살이였다. ...그 일군은 나를 묵묵히 바라보더니 무릎을 마주하고 가까이 다가앉는것이였다. 《손을 보지요.》 두손을 그앞에 내밀었다. 《됐소, 나가보오.》 나는 주춤거리다가 나오며 《틀렸구나.》 했다. 나와 함께 6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30분이나 1시간씩이였다. 그런데 나만은 세마디안팎에 나가라는 소리다. 하기는 서대문감옥에서 나온 사람, 농소에서 투쟁한 사람, 《맑스머리》들인데...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가. 군당상무위원회는 나 하나만을 입당비준했던것이다. 오르며 40리, 내리며 40리길을 장밤 걸어 새벽녘에 나는 온 탄광거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버력산에 올라섰다. 팔을 벌리고 푸른 하늘을 향해 목청껏 웨쳤다. 《아! 나는 당원이다!》

그때로부터 4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 메아리는 아직도 가슴에서 울렁이고있다.

토지개혁을 위해 로동자과전대로서 풍산군 능귀면 화전마을을 찾아갔다. 그때도 그 메아리를 타고 난생처음 농민들앞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토지를 주시였습니다.》** 하고 연설을 했었다.

몇해 안가서 전쟁이 터졌다. 미제가 우리의 창조물을 모두 불태우는것이다.

밤마다 부상병들이 차판으로 들어왔다. 췌기밥을 만들어가지고 치료대와 함께 부상병들을 찾아갔다.

《동무들! 용기를 내시오.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이끌고계시기때문에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

이때도 나는 가슴속에서 울렁이는 그 메아리에 밤에 낮을 이어 달려다닐수 있었고 폭풍에 날려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수 있었다.

전후복구건설도 형태를 달리한 하나의 전쟁이였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짐을 졌다. 혁명이 이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이 그길로 불렀던것이다.

이때도 나는 내가 로동당원이라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때문에 말그대로 허리띠를 졸랐다. 력사의

모든 갈피를 뒤져보아도 이때의 이 세대처럼 힘겹게 일하고 참을성을 발휘한 사람들은 없었다.

적진에 뛰어들 결사대를 무을 때도 《로동당원 앞으로!》 이었고 폐허를 헤치고 벽돌을 주을 때도 《로동당원 나오시오!》 였다. 전선에서 건설장에서 생명이 요구되는 마당에서는 언제나 로동당원으로 자리가 차있곤하였다. 하여 오늘 동방일각에 강대한 주체조선이 서있게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이 위업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이시며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에 의한것이다.

이 경탄할만한 력사적 전변의 와중속에서 살아온 로동당원이라면, 더구나 우리 글을 깨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글로 적어 후대들과 함께 세계만방에 전할 의무를 지니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소극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루빨리 토굴집에서 나오기 위해 지금 3선광장이 일떠선 검덕의 동쪽비탈에 주택건설이 시작되었다. 거기서 보고 들은 목공이야기를 적은것이 1954년 여름 신문에 실린 단편소설 《7 급공최아바이》이다.

그에 뒤이어 금골, 리파간의 철도락석감시원에 대한 단편소설을 썼다. 강계 좀 못미쳐 고인으로 장소만 바꾼것이 《백일홍》이다. 등장인물이나 그들의 생활 모두가 직접 보고 들은것이다. 산불이 나지 않았나 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진달래꽃은 검덕끝안의것이다.

이런 과정에 차차 답이 커져서 1966년에 장편소설 《준엄한 길》을 창작발표하였다. 거기 나오는 탄광생활 모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것을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야기로 가져간것이다.

차츰 작가로서의 안목이 생기면서 력사의 본질에로, 핵으로 침투하려는 욕망이 생기였다.

조선력사가운데서 근대에 속하는 장구한 기간은 사대망국의 과정이었으며 세계근대사의 극동문제란 언제나 조선을 누가 어떻게 식민지화하겠는가 하는 문제로 얼룩져있었다.

한것이 어떻게 되여, 누구에 의하여 천여년 굴러오던 바퀴를 돌려세워 자주적인 나라, 주체의 나라로 온 누리에 존엄의 빛을 뿌리게 하였는가.

이 엄숙한 질문앞에서 나는 작가답게 진실을 말할 의무만이 있었다. 하여 나는 사실에 비해 엄청나게 미급한 장편소설 《1932년》을 써냈던것이다.

여기서 나는 작가로서 한계단 비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준엄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였었다. 체험이나 보고들은것에서부터 취재, 연구 그리고 적극적인 허구와 상상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다시 말해서 나는 행성에서 떠나 우주를 날아 태양을 살펴보아야만 하였다. 무엇이 그런 빛을 무엇이 그런 열을 무한대로 뽑고있는가를 탐구해야 하였다.

임당심의자가 학력이나 경력 같은것을 따져볼 여지조차 없었던 내가 과연 이 거창한 창작사업을 감당해낼수 있을까? …

스스로 자기를 저울질해보지 않을수가 없었다.

우리 당은 나를 두번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켜 놓았는데 그 하나는 학력이 없는 한 당원을 작가로 키워낸것이며 다음은 작가로서 응당한 수준에 놓이도록 성장시킨것이다.

바로 다름아닌 우리 당이 뽑어주는 추진력에 의하여 우리 당이 가리키는 궤도를 따라 나는 우주를 날았던것이다.

방금 나는 총서 《불멸의 력사》(해방후편)의 첫 작품인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을 끝내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창작 방법과 로정과 그에 대한 대답은 변하지 않을것이다.

해마다 10월이 온다. 그러면 의례히 우리 당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한 나자신에 대한 생각도 깊어진다.

창작을 화독에 집어넣던 그 방에서부터 그어진 일직선은 문수거리 한켠에 자리잡은 창문이 밝은 이 창작실에 와닿는다. 모든것이 달라졌다. 나도 이제는 애송이가 아니며 시간은 더 가속을 띠게 되었고 써놓은 글들은 부피에 비해 무게가 반비례된다. 손을 가슴에 가져간다. 그러면 손끝에 만져지는것이 있다. 《당원증이다.》

순간 가슴은 높뛰고 공지가 부풀어오르며 온몸에 힘이 뻗어간다.

《아! 나는 로동당원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고귀한것이 또 어데 있을까.》

## 뜨거운 담보

## 리기창

예로부터 이르기를 어엿한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부모들의 뒤받침이 있고 앞날이 촉망되는 학생들에게는 유능한 스승의 남다른 가르침이 있다고 했듯이 우리 시대의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들의 뒤에는 언제나 그들의 발기를 열렬히 지지하고 떠밀어주는 당에 충실한 일꾼들이 서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생활적 진리를 최근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어느 한 화학공장의 당일꾼을 취재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확증할수 있었다.

나는 그날 초급당비서동무가 공장도서관에 갔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찾아갔다. 나는 비서동무가 아마 도서관운영사업을 지도하려니 짐작하고 갔으나 조용한 열람실에서는 많은 독자들이 조용히 앉아 독서에 열중할뿐이어서 도서관장녀인에게 물었더니 좀전에 책을 빌려가지고 시험소로 갔다는 것이었다. 나는 직업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혀 비서동무가 어떤 책을 빌렸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새로 받은 영문기술잡지를 가져다왔습니다.》

《아니 비서동지가 영문을 보십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기예요?》

내가 저으기 놀라며 묻자 녀인은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비서동무는 화학공업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때는 로어를 배웠지만 화학공장당비서로 임명된후에 자습으로 영어와 일어까지 뻘었다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비서동무는 공장적으로 제일 많이 책을 읽는 《열성독자》로 등록되었다면서 나한테 그의 도서대출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거기에 적힌 수백권의 도서목록을 더듬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것은 그가 대내외의 신간 화학공업기술도서들은 물론 문학예술, 교육, 축산, 건축, 농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책들을 읽고있었기때문이었다. 명색이 작가인 나도 그런 분야의 도서들을 미처 다 읽지 못하고 있는터에 온종일 당사업으로 여념이 없을 당비서로서 그 많은 책을 읽으며 또 그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을수 있는 학식을 소유하고있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정말 우리 당비서동무는 다방면적인 박식가랍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독학가인지 당비서동무의 사무실과 집의 창문에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있답니다.》 하고 도서관장녀인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녀인의 말을 듣자 당비서에 대한 류다른 호기심을 품고 시험소로 향했다. 당비서가 무엇때문에

남달리 그토록 여러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글타글 노력을 기울이는것일까? 단순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일까. 순간 나의 머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떠올랐다.

내가 당비서를 어서 만나고싶은 충동에 이끌려 시험소에 찾아갔으나 기술협의회중이었다. 알아보니 시험소의 한 기사가 시도한 새로운 촉매법에 대한 기술혁신안이 일정에 올랐는데 당비서동무의 참가밑에 결속을 짓는다는 것이었다.

창문너머로 피곳 바라보니 기술혁신의 주인공인듯한 젊은 청년이 앞에 나서서 도면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있었다. 뒤이어 몇사람이 그자리에 일어서서 토론하였다.

얼마후에야 협의회가 끝났는지 젊은 기사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방에서 나왔다. 새로운 촉매법의 성공이 내다보이는듯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화기가 넘쳐흘렀다.

《자, 이걸 읽어보오. 참고가 되겠는지...》

협의회때 한켠에 앉아있던 안경끈 중년남자가 청년에게 두툼한 기술도서를 안겨주었다. 알고보니 그가 바로 당비서였다.

나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후더워졌다.

그가 무엇때문에 오늘 도서관을 찾아갔으며 날마다 밤길도록 여러 분야의 서적들을 것처럼 열심히 탐독하는가를 알수가 있었다. 그것은 공장의 전반사업을 떠밀어주는 당비서로서 기본생산직장을 비롯한 후방부의 부업농장이며 건설직장, 공장대학과 기능공양성소며 탁아소, 유치원, 공장의 문화회관사업에 이르기까지 당적 지도를 실속있게 하며 그들속에서 제기되는 창발적 의견들에 대해 사소한 편견없이 당적인 지지와 믿음을 주고 과학기술적으로 파악한 확신성있는 담보를 안겨주기 위해서이리라! 나의 예견은 옳았다. 당비서동무를 만나서 내가 도서관에서 본 도서목록에 대한 말을 꺼내자 그는 느슨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과학과 기술의 시대의 당일꾼은 자기가 담당한 지도단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폭넓게 알아야 당적 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있지요. 당일꾼자신부터 기술혁신의 성공을 확고히 담보할수 없이야 어떻게 전투원들을 새로운 혁신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겠습니까!》

바로 이런 참다운 일꾼들이 있기에 빛을 보지 못한채 파묻힐번했던 기술혁신의 귀중한 새싹이 소

생되고 난관앞에 맥을 놓고 동요하며 주저했던 창조자들의 가슴속에 드림없는 신심과 열정이 안겨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새로운 《80년대속도》 창조의 세찬 불바람이 휘몰아치고 전례없는

영웅적 위훈과 놀라운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모든 일터마다에는 이렇듯 우리 시대의 참다운 당일군들이 서있는것이다.

## 먼 후날에도

강창영

지금은 멀리 흘러갔어도  
내 정녕 잊을수 없구나  
포성이 멎은 그해 여름날  
재더미우에 첫 삼을 깊숙이 박던 날을...

락조 비낀 저녁하늘가로  
가슴을 펴고 날던 새무리들에  
내 푸른 꿈을 엮어보며  
뜨거운 눈굽을 적시던 그런 날이 나에게 있다

폭탄구덩이를 메우던  
나의 집 그 앞뜨락이  
불에 그슬린 동구밖 그 잔디밭이  
이 가슴에 손금처럼 새겨져 사라질줄 모르누나

그 나날은 어려웠다  
허리띠를 조이고 새 터전을 닦던 그날은  
어려웠어도 그날에 우리의 꿈은  
그 얼마나 밝은 앞날에 잇닿아있었던가

조국이 어렵던 그날에  
나 하나의 안락을 꿈꾸며 살았더라면  
그때가 나의 가슴에  
어찌 이토록 귀중한 추억이 되랴

그 어느 길가의 산자락  
무너져내리는 돌각담  
밤새껏 쌓던 남모르는 추억이  
때없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어느 건설장의 겨울밤  
용접불에 달아오른 두불에  
눈덩이를 문지르며 희열에 넘쳐 일하던 그날이

내 가슴에 소중히 남아있거니

기쁘도다 기쁘도다  
그 어려웠던 나날이 오늘의 기쁨이 되어  
내 흘러간 청춘기에  
이러한 추억을 남겼음은,

하여 나는 말하고싶구나  
노을이 내리는 가로수밑을  
만시름 잊고 걷는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기다리는 인생의 많은 나날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려보는 저 푸른 가슴들에,

추억을 간직하라  
조국의 어려움을 작은 어깨우에  
말없이 나누어지던 그런 추억을  
사랑만을 받은 추억이 아니다  
자기 심장의 피를 덜어  
그 조국을 열렬히 사랑한 그런 추억을

아, 나는 추억한다  
빈터우에 첫 삼을 깊숙이 박던 그날을  
폭탄구덩이를 메우던 복구건설의 그밤을  
그리고 몰탈 묻은 병어리장갑을 끼고  
사랑하는 처녀가 섬겨주는 벽돌로  
새 거리를 일떠세우던 그 나날을

추억이 기쁨만이면 얼마나 좋으랴  
허나 그 추억이 부끄러움이면, 수치면  
그것은 얼마나 구슬픈것이라  
아, 조국을 받들어난 깨끗한 랑심으로  
한생 땀뻑하고 긍지로운 추억이어



## 그는 평범한 리당비서였다

문성보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과학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 줄달음치고있는 과학자들로부터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받들어나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다 기울여나가는 숨은 공로자들과 혁신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우리로동당시대 이런 숨은 공로자들과 혁신자들의 한생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는데서 당일군들은 남모르게 자기 숨은 노력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고있는것이다.

최승민도 흔히 농촌에서 볼수 있는 평범한 리당비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당일군이 진정한 당일군입니다.》**

우리가 팔들면 손끝에 구름이 휘감긴다는 하를 아래 첫동네인 하남산밑 남천협동농장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자기네 리당비서 최승민동무를 가리켜 《사람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볼줄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었다.

어떻게 되어 사람들은 최승민을 그토록 존경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인가.

### 그의 눈에 비친 소중한것

밖에서는 이해의 첫눈이 소복소복 내리고있는 깊은 밤 뒤집을 진 리당비서 최승민은 생각에 잠겨 오래동안 자기 사무실을 거닐었다. 얼마쯤 창가에서있기도 하고 그러다간 책상우에 퍼놓은 농장원명부를 한동안씩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는 착잡한 생각속에 잠겨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퇴근직전에 농장기사가들이 들고온 새 농장원명부에는 나이가 많았어도 계속 로력자로 일한 4작업반 리봉화아바이가 부대로력자명단에 들어있는것이었다.

거기에 시선을 멈춘 최승민은 기사장에게 물었다.

《리아바이가 이걸 요구했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기사장은 주뚝뚝말했다.

《이젠 나이가 많아 너무 부담을 주는것 같아서... 그리고 그곳 반장이랑 분조장이 그걸 요구하면서 초안을 냈기에...》

《음...》

최승민은 여기에 그 어떤 석연치 못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리아바이 이름밑에 빨간 줄을 그었었다.

기사장이 돌아간 다음 최승민은 다시 리봉화아바이 일로 하여 생각이 깊어졌다.

며칠전 결산분배날 불룩한 돈봉투를 들고 자기를 찾아와 자랑과 공지에 차서 말하던 아바이 말이 귀전에 쟁쟁했다.

《비서동무, 올해두 작년만 못지 않게 차례졌수다. 봉투채 저금소에 맡길 생각이웨다.

비서동무, 며칠전 반장이 날 찾아와서는 다음해 부턴 부대로력으로 들어가라기에 딱 잘라버렸수다.

<그건 땅과 떨어지라는건데 내 몸에서 심장이 없어진다는 소리나 같애. 그래 이젠 쓸모없다구 밀어낼셈인가? 안돼, 땅과 함께 있어야 난 늙지 않구 더 오래 살아...>

그랬더니 뭐 년세도 년세구 해서 날 생각해서 그런다나요? 허참 기가 막혀서...

비서동무야 내 심정을 알아주리라 봄네다.》

그런 그였는데 부대로력자라니... 그래서 생각이 깊은 최승민이었다.

얼마후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캄캄한 어둠의 장막이 눈바투 내리드리웠는데 숨통치같은 함박눈이 얼굴과 목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향방없이 폭신한 눈길을 걸었다.

문득 저 멀리 비탈아래 논벌에서 불빛이 병긔했다 사라졌다가는 또 병긔!

귀기울이니 웬 쟁기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웬 소리인가?

가늠해보니 4반 흙팔이전투장이였다.

(원 어느새 5리길인 예까지...)

최승민은 문득 놀라며 소리나는쪽을 향해갔다.

누군가 폭쟁이로 땅을 파고있었다. 힘겹게, 그러나 안간힘을 다해서.

《게 누구요?》

밤작업을 끝낸 전투장에 혼자 남아 일을 하는게 누군지 빨리 알고싶어 최승민은 급히 다가서며 물었다.

《예, 저올시다.》

이러던 저쪽은 인차 상대를 알아본듯 일손을 멈췄다.

《비서동무가 아니시우? …》

뜻밖에 리봉화아바이였다.

《아니 이 밤중에 웬 곡괭이질을…》

《글쎄 지난해에 여기 샘통이 터졌댔수다. 땡해를 받아 벼가 덜 여물었지요. 그래서 내 손을 좀 땀수다. …》

최승민은 생각이 깊었다.

(땅과 함께 일생을 같이 해온 이 로인은 얼마나 귀중한것을 안고 살아가는가. 이런 진실한 농군들의 뜻을 귀중히 여겨주고 받들어주어야 하는것이 당일군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가슴후터워난 최승민은 아바이를 도와 수로를 파나갔다. 이 일이 단순히 논밭의 땡해만을 없애는 일이 아니다. 땅을 다루는 농사군의 참된 자세를 보여주는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좀체로 힘든줄 몰랐다.

이튿날 최승민은 작업반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리봉화아바이의 아름다운 소행을 모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리봉화아바이가 심장속에 지닌 소중한 뜻을 한생을 꽃피워주어야 한다고 그루박아 말했다.

《우리 일군들이 매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가 지닌 아름다움을 먼저 보아야 하오. 이것이 가장 소중한것이요. 그 뜻을 받들어주고 꽃피워주는 게 당일군의 본분이 아니겠소.》

작업반장은 깊은 자책과 감동 속에 그 말을 들었다.

그후 리아바이는 혁신자로서 모범농장원으로서 근심한 농민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계속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 곡식대와 속삭이는 사람

김달삼은 6 작업반 1 분조장이다. 너부죽한 얼굴에 말수 적은 그는 실천을 앞세우는 흠냄새 폭배인 진짜배기농사군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곡식대와 속삭이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씨를 뿌리다가도 《허 거 흠냄새가 잘 들었군. 포단처럼 깔고 자고싶다니까…》

꿀짜기모판의 파릇파릇한 강냉이모를 돌아보면서는

《허 밤새 몰라보게 자랐는걸. 그래그래 래일이면 또 단물(비료)을 뿌려줄라.》

부풀어오르는 강냉이이삭을 보면서는 《저런, 땅살이 포동포동 오른다니까. 어디 한번 입을 맞춰볼가?》

이러며 정말로 강냉이이삭에 불편을 비벼보는 것이었다.

여하튼 그의 온 넋은 분조땅과 농사일에 쏠려있었다. 그런 그에게 한가지 맺힌 매듭이 있었다. 그 매듭을 풀어주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수 없는 최승민이었다.

김달삼분조장은 직심스레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일에서 타산을 앞세우거나 농장원으로 서 주인다운 태도가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말밭에 오르는 일부 분조원들을 원칙적으로 꾸준히 교양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대하며 되게 혼뜨감을 내주는 때가 종종 있곤하였다. 그에게서 지적받거나 혼뜨감을 당한 분조원들은 일에 성수를 낼 대신에 오히려 의견만 가득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달삼분조장을 일부 사람들은 외면하고 도외시하였으며 과격한 분조장으로 보았던것이다.

이런 분조장을 료해한후 최승민은 생각이 깊었다. 왜 한개 분조를 책임진 분조장이 이렇게 사람들의 말밭에 오르게 되는가. 그에게는 땅에 대한 애착과 남다른 열성을 가지고 땅을 직심스레 다루고 한 알아라도 더 많은 낱알을 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농민의 본분을 다하려는 좋은 점이 더 많지 않는가.

최승민의 눈앞에는 어느덧 이곳 리에 온지 3년이 지난 어느날 6 작업반 당세포총회를 지도하고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던 때 일이 떠올랐다. 그때 최승민은 길옆포전에서 들려오는 웬 말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자, 너두 이걸 먹구 그저 신세값음만 하려무나. 그러면 며칠후에 또 백설기(이삭비료)를 한되박씩 안겨주지 않으리. …》

궁지와 환희, 기쁨에 어린 석성한 음성, 그것은 1 분조장 김달삼의 목소리였다.

최승민은 호기심에 발끝걸음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한달구지 싣고나온 두엄, 그것을 삼치에 담아 검실검실한 강냉이대마다 묻어주며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흰한 달빛속에 바라보였다.

《곡식대와 속삭이는 사람.》

그것을 직접 목격하는 최승민은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 끝난 이 저녁에 집집마다 텔레비존 앞에 모여앉거나 온 가족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을 때이건만 곡식대와 마음을 나누며 만풍년을 가꿔가는 분조장, 누가 시키건말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오직 당에서 맡긴 분조농사를 말없이 수직수직 해가며 거기에서 삶의 희열과 보람을 누

끼는 달삼이었다. 땅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온 녀를 오직 거기에 바쳐 알찬 열매를 마련하는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그였다.

(진짜배기 농사군의 저 가슴속에 얼마나 뜨거운 것이 소용돌이치는 것인가.)

최승민은 그에게 나서며 인사를 건넸다.

《비서동지가 어떻게… 오늘까지 여니 포전은 말끔히 분토를 다 주었는데 이 포전을 채 못줬기에…》

장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제쪽에서 어줍어하는 그의 소박한 말이었다.

승민은 그의 손에서 삼치를 받아들고 두엄을 주어나갔다. 그는 운반해오고…

이런 달삼분조장에게 물론 일시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 부족점만을 보고 바른길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일군이라. 하여 최승민은 그를 종종 만날 때마다 분조원들, 특히 일부 결함있는 분조원들과는 어떻게 사업하며 사업작품과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달삼은 자책 어린 눈길로 최승민을 바라보았다. 최승민의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뜨겁게 받아안은 것이다.

최승민은 분조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더욱 분발할 결의에 차있는 달삼분조장을 미덥게 여겼다.

그후 달삼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분조를 이끌어 나갔고 결함있는 분조원들을 자기 친형제와 같이 따듯이 일깨워주고 옳은 길로 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분조원들과 농장관리일군들은 나날이 변모되어 가는 달삼분조장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곤 하였다.

최승민은 그런 분조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과업을 분조가 담당 수행하도록 분공도 주고 여러가지 농사문제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감들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달삼분조장은 어김없이 실천해 나갔다.

사무실에 돌아온 최승민은 어떻게 하면 소출을 더 낼 것인가 하는데 온 녀를 쏟아붓고 분조원들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달삼분조장에 대하여 오래 생각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달삼분조장은 그렇게도 마음속에 그리며 원하던바대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달삼동무가 붉은 당원증을 품고 60 리 밤길을 떠난 소식을 안 친척들과 벗들은 퇴근후 모두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한마을에 사는 동생이며 매부, 이웃동네의 사촌들… 집안은 명절처럼 들끓었다.

그러나 달삼은 집보다 먼저 분조포전에 들렀다.

(…너희들을 키우는 건 농사군인 나의 본분인데 오늘은 이렇게 해빛같은 은혜를 안겨주니 정말 당은 나의 어머니구나…)

달삼은 뚫어오르는 걱정을 달래이지 못한채 강냉이대들만 어루쓰다듬으며 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뒤이어 집안식구들과 분조원 몇이 포전으로 달려나오자 달삼은 감동에 젖은 음성으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모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한마음 땅에 바쳐 만풍년을 마련합시다.》

《그럼시다.》

《옳소. 은혜에 보답해야 하구말구…》

모두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최승민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렸다.



《결국 여니때는 잘 풀리지 않고 묘연하던것도 이렇게 포전엘 나가면 스프르 풀리지요. 사람과의 사업에서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일한 결과이지요.》

땅은 그를 가꾸는 농민들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농사를 자체의 힘으로 잘 짓자면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마음부터 먼저 가꿔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실보다 포전에 더 붙어살지요. …》

(사람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볼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직한 당일군들이 모든 단위, 모든 초소들에 서있거늘 우리 당과 인민은 혼연일체이며 우리 조국은 영원무궁토록 번영할것이 아닌가.

우리는 무한한 희열과 긍지에 넘쳐 농장을 떠났다.

## 모 자

오영재

온종일  
어쩐지 개운치 않은 마음  
웬일인가  
드디어 생각이 미쳤으니  
아침에 한 친구에게  
자기의 여분있는 모자를 준 일

무엇이 잘못된것 있으랴  
친구도 고맙게 여기는데...  
허나 그것으로 위안이 되진 않았거니  
그에게 준 모자는  
자기의것보다 낡아보이는것

어제날 한전호에서 함께 싸운 전우  
한덩이의 주먹밥도 먼저 권하며  
날아오는 탄환도 제먼저 맞받으며  
서로 위하던 사이인데  
모자 하나가 무엇이었기에  
량손에 그것을 들고 저울질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였는가

여분을 주는것이  
어찌 남을 위한것이라  
자기에게 아까운것 소중한것을  
서슴없이 떼어줄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위함이거니

어느것을 가져야 하고  
어느것을 주어야 함을  
가려볼수조차 없게 한 그것  
평범한 날 평화로운 날에 저도 모르게 젖어든  
온갖 생활의 유혹이  
눈을 이렇게 멀게 했는가

이튿날 별치 않은 일을 만들어  
친구의 집을 찾아간 어제날 병사  
돌아올 때 슬쩍 모자를 바꾸어썼네  
그것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

이제와선 그것도 부질없는것이였네  
치렬한 고지의 육박전에서  
동이란큼 심장을 키워던 어제날 병사  
두려움에 놀라기까지 했거니

-어찌랴  
조국앞에도  
내 이런 모자를 내민다면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면  
그때엔  
내 생명에도 마지막이 오리니...

## 조국의 하루하루는

리릉현

이 하루도  
밤이 새도록 부푸는 가슴을  
그 누가 주었더냐  
레사로이 흐르는 이 하루를 두고도  
너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구나

이 아침  
읍으로 가는 새벽길  
야영의 등산모를 쓰고  
떠들썩 떠나가는 너희들 모습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  
너희들을 벌써 불러주었구나

아, 노래속에 웃음속에 흐르는  
너희들의 이 새벽길에

나의 생각도 새삼스레 따라서는것  
먼 후날에 너희들도  
이 새벽길을 추억하리

그저 즐거이 달려가는 자욱자욱  
그저 즐거이 보내는 이 하루하루  
너희들이 재잘대는 그 웃음소리를  
나는 다시 이렇듯 문득  
내 자라온 길에서 듣게 되누나

흘러가버린 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함은  
어쩔수 없건만  
그 나날에 피어난 아름다운 행복을  
너희들의 붉은벚타이에서

새겨안은 기쁨

이것이였구나  
내 어린 시절 모르고 받은 사랑  
머리에 흰서리 내리는 오늘에도  
조국이 있어  
저 어린것들과 함께  
변함없이 잡아보는 어머니의 손길

내 처음 쓴  
연필의 사각소리  
너희들의 책갈피에서 듣게 되는구나  
내 등산모 쓰고 오르던  
금강의 오솔길이  
너희들이 뛰어가는 저 언덕에 뻗어있구나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달라도  
조국의 이 하루하루  
너희들이 보내는 순간순간이  
나에겐 어린 시절을 불러주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불붙고있구나

그 추억  
오늘과 하나로 이어진  
조국의 변함없는 사랑이기에  
금강의 단풍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붉은넥타이가 타고있구나

## 그들은 구면이었다

리병철

때마침 먹구름이 밀려오며  
천둥번개 으르렁대고  
창날같은 소나기 쏟아져내리는데도  
무릎에 차오르는 비물속으로  
새로운 지원자 하나 삼을 잡고 들어선다

-동무 감기 들겠소  
비나 몇거던 들어오라구  
병사시절 사관장이었다는 작업반장  
구령조 섞인 말투로 웨쳤다  
그러나 천둥번개 비소리때문인가  
젊은이는 들은척도 않고 들어선다

기초호 저끝에서 비물을 흠치노라  
수건을 뿔아들던 그 작업반장  
새로 들어선 젊은이와 얼굴이 마주쳤다  
어데선가 낮익은 두 눈빛  
마주보고서는 서로 기억을 더듬었다

서해갑문? 태천?  
순천비날론?  
서두수 물물이 공사장? ...

자고 일던 지난날의 모든 풍막속에서

손을 찌던 무수한 우등불두리에서  
구두끈을 조이던 그 모든 행군길에서  
서로 얼굴을 찾으며 한삽 두삽  
허리 한번 펴지도 않고 그들은  
새끼줄 따라 기초호를 째나갔다

이윽고 쏟아지던 비도 멎고  
으슬으슬 땅거미 찾아들무렵  
-어서 비켜나라요!  
밤교대동무들의 불같은 성화에  
등을 떠밀려 나서는 사람들

이 사람들속에 약속이나 한듯  
작업복 옷통을 훌훌 벗는 두 젊은이  
흙무지우에 높이 서서  
땀과 비물을 마주 쥐여쥘다  
-어디서 만났던가? ...  
기억도 마주 쥘다

아무리 기억을 마주 쥐여쥘다  
좀처럼 생각은 떠오르지 않아도  
시대의 행군길 함께 걸어온  
그들은 서로 틀림없는 구면이었다  
구면이었다

## 아버지

정창윤

추석이다. 하늘도 푸르고 대기도 신선한 교외의 아침이다.

가족들을 앞세운 나는 들국화가 다보록이 피어난 산자락길을 걷고있다. 성묘의 길이고보니 세상 떠난 아버지생각뿐이다.

모든 불효자식들이 후날을 당하여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 또한 밝은 날 푸른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지 못한채 발밑만 굽어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효성을 다하지 못하였던 내가 이제 그령전을 찾아뵙고 잔을 부은들 그 무슨 위안을 얻으련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의 짐은 얼마간 덜어질것으로 여겨진다.

저만치 앞에서는 제물을 담은 싸리바구니며 비닐구력을 든 어머니와 안해, 아이들이 가고있다. 그들중엔 출가한 누이동생 혜옥이도 있다. 그들은 나를 향하여 빨리 따라오라고 손을 흔들며 소리쳐부르기도 하지만 나는 그저 그 걸음 그 속도이다.

한일생 참대처럼 곧고 바르게만 살아온 아버지였다.

한일생 그 누구를 향하여 큰소리 한번 쳐보지 못한 아버지였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수한 옷을 입고 똑같은 길로 출근하여서는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길로 퇴근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창고장이였다.

내 생각엔 아버지가 만일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태어난다 하더라도 창고장밖에는 또 다른 일을 모를것 같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수천수만가지의 직업이 있다는것을 모르는듯하였고 또 알고 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외아들이나 나는 아버지를 몹시 따랐다. 그래서 유년시절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흘러보냈다.

창고마당은 희고 반듯하며 넓었다. 뿔을 갖고 물기훈련을 하여도 나 혼자였고 돌이나 흙을 가지고 집을 세워도 나 혼자였다.

주먹이 쉰 심술쟁이 큰 애들의 간섭이 없는것이 아주 좋았다. 아버지가 자주 내다봐주는것이 또한 좋았다. 그대신 무슨 놀음에서나 인차 싫증이 나곤 하였다.

그런 때면 나는 아버지가 있는 창고안으로 들어가곤하였다.

여름이면 창고안은 시원하였고 겨울이면 훈훈하였다. 언제나 깨끗한 창고는 한일자로 놓인 길다란 집이었다. 공기창들이 드문드문 났을뿐 출입문

이란 외통문이었다. 축수높은 전등들이 높은 천정에 매달려서 밤이나 낮이나 환하게 밝혀주었다.

아버지의 사무책상은 출입문열에 놓여있었다. 책상우엔 전표들을 꽂아놓는 고정판이 있었고 각종 물품들의 입출고정형이 기록되는 대장들이 주련이 세워져있었다.

아버지는 그 장부책들에 깨알만큼씩 써넣은 수자들을 들여다보면서 주산을 뒹겨보곤하였다. 그 다음은 장부책에 적혀있는대로 물품수량들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창고안을 한 바퀴 돌곤하였다. 그때면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창고안을 돌아보았다.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차곡차곡 가려져있는 창고였다. 그중에서도 많은것이 천통구리들이었다. 모직류, 비단류, 면류들이었는데 그 색깔이나 무늬들도 다양하였다. 빨강고 푸르고 노란 그 색깔들로 하여 눈이 부실지경이었다. 그 다음은 구두지함들, 장화지함들, 목도리나 모자나 모포들이 천정에 당도록 쌓여있었다.

이런 창고는 많았다. 약간씩 거리 뜨게 여러채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 여러채를 책임진 창고장이었다.

내가 탐낸것은 빨간애나멜칠을 한 세바퀴자전거였다.

《나 이거.》

아버지를 따라 창고안을 돌던 나는 아버지앞으로 나가면서 자전거 하나를 잡아당겼다. 나에겐 이 창고안의 물건들은 무엇이나 아버지의 마음대로 처분하는것으로 생각되었다.

《응, 이거말이나?》

아버지는 내가 잡아당겨다가 타고앉아있는 자전거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타고싶다면 타야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것이 있어.》

나의 귀구멍은 항- 넓어졌다. 이것보다 더 좋은것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긴것이며 또 어디 있을까? 나는 타고앉았던 자전거에서 얼른 내려왔다.

《나 그 좋은걸 탈래.》

《그럼 가자.》

아버지는 내가 탔던 자전거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창고의 맨구석쪽으로 갔다. 그곳은 파손된 제품들을 쌓아둔 장소였다. 기차나 자동차로 운반하던 도중에 간혹 못쓰게 된 제품들이었다.

세발자전거도 망그라진것들이 몇개 있었다. 본체는 성한채로 남았지만 바퀴들이 떨어져나가거나

운전손잡이가 떨어져나간것들이었다. 이를테면 폐기된것들이었다.

아버지는 성한채로 있는 본체 하나를 꺼내더니 떨어져서 제각기 널려있는 바퀴들을 찾아내었다. 조립하자는것이였다.

《이제 새로 조립하면 특등품이 될거다.》

《더 든든하나?》

《물론이지.》

아버지말이라면 무엇이냐 그대로 믿던 나였다. 아버지는 잠간사이에 자전거 하나를 조립해주었다. 앞바퀴는 빨간것, 뒤바퀴들은 푸른색, 손잡이운전대와 본체색갈 역시 제각기였으나 나는 특등품이라는 아버지말을 그대로 믿고 대만족이였다.

마당으로 끌고나온 나는 텃을 부리면서 타고돌았다. 방금전까지 돌집을 짓던 집터도 깔아몽개면서 온종일 창고마당을 돌아쳤다.

《좋으나?》

밖으로 나와 나의 자전거타기를 한동안 지켜보던 아버지가 물었다.

《특등품이야.》

나는 아버지가 대준대로 신이 나서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몹시 다행이라는 얼굴표정으로 내 자전거 바퀴들에 기름까지 쳐주고 들어갔다.

그날 나는 이 자전거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퇴근하였다.

우리 집은 단층이여서 마당도 있었다. 거기서 밤에도 타보자는 심산이였다.

그런데 그 나의 특등품자전거는 사흘째되는 날 앞바퀴가 떨어져나갔다. 나는 울었고 아버지는 앞바퀴를 본래대로 만들어놓느라고 저녁상에도 제때에 앉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국이 식어가자 짜증을 내었다.

《그까짓거 집어던지랴요.》

《...》

《아무렴. 제 아들한테 폐물조립품을 타게 한단 말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싸움을 거는 어투였고 아버지는 귀머거리행세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쪽을 향하여 얼굴 한번 돌리지 않고 자전거수리만 하였다. 그래서 나의 세바퀴천연색자전거는 본래의 모양대로 굴러가게 되였다.

나는 수리한 자전거를 타고 마당을 한바퀴 돌아본 다음 저녁상에 붙어앉았다.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의 우리 집 식구들은 언제나 즐거운 기분이었다. 이때면 따뜻한 가정의 온기가 식탁주변을 떠돌았다. 이런 온기는 말없는 아버지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 만들어지곤 하였다.

구역의 전력감독원인 어머니는 집집의 아래방 옷방에서 떠돌아다니는 소식에도 밝았고 골목골목

들에서 오가는 소식들에도 밝았다. 밖에 나가서는 드살균이라는 말을 듣는 어머니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더없이 살뜰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날만은 짜늘한 분위기가 밥상주위를 싸고돌았다. 어머니곁에서 밥을 먹는 나나 아버지곁에서 밥을 먹고있는 혜옥이도 미구하여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것만 같아 조심스럽게 술을 놀리고 있었다.

《세바퀴자전거 하나에 만원을 하우 천원을 하우? 제 창고에서 그까짓거 하나 내온다구 벼락이 내리요? 공짜루 가지는것두 아닌데...》

드디어 어머니측에서 결고들기 시작하였다.

《...》

《외아들 외딸밖에 없는 아버지가 그렇게도 제는 게 많아요? 당신은 감정도 없는 사람이요?》

《그게 우리 집 창고요?》

아버지의 첫 결심은 병어리나 귀머거리행세로서 이 유쾌하지 못한 분위기를 넘기려 한듯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공격구역을 바짝 조여들자 더는 그런 귀머거리행세를 할수 없었다.

《그따위 못난소리를 또 하우? 그런 소린 너무 많이 들었던말이요. 어떤 사람은 제 창고가 되어서 손을 대우?》

《그런 나쁜놈들에겐 량심이 없단말이요.》

《량심이요? 그래 파철조박무이자전거를 제 아들한테 태우는게 아버지의 량심이요?》

어머니는 더더욱 어성을 높여었다. 아버지는 밥술을 놓고 상에서 물러나고말았다.

이것은 나의 유년시절 추억들중 어느 한 토막이다.

그후엔 나도 학교에 입학하였기때문에 더는 아버지를 따라 창고마당에 가서 뛰놀 시간이 없었다. 그다음엔 나의 인민학교시절과 중학교시절이 흘러갔다. 뒤이어 병사시절이 흘러갔다.

세월은 빨랐다.

나는 다시금 평양으로, 나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내가 전연초소에 있었던 기간 평양도 달라졌고 우리 집도 달라졌다.

평양거리는 눈앞이 돌 지경으로 변화해졌고 고층건물들은 하늘을 치받으며 일어섰다. 나에게 있어 평양은 나서자란 고향이건만 모를 집, 모를 거리, 모를 이름을 단 기관청사들이 많았다.

우리 집 역시 여러모로 변했다. 내가 입대전까지 쓰고있던 단층집대신 넓은 고층살림집으로 이사해가서 살고있었다.

아버지의 머리도 희여졌고 주름살도 늘었으며 구불사하던 어깨는 첫눈에도 확연히 알릴정도로 앞으로 휘여들었다.

어머니도 인젠 전력감독원자리에서 물러나 가내작업반 반장일을 보고있었다. 그중에서 몰라보게 달라진것은 혜옥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식료공장기사로 있는 그는 키도 후리후리하고 지식도 많아졌다.

단하나 변하지 않은건 아버지의 직무였고 성격이었다.

아버지는 예 이제 다들바없는 수출품종합창고의 창고장으로서 아침이면 어김없는 제시간에 출근하였다가 저녁이면 아무런 기분변화도 찾아볼수 없는 낮색으로 퇴근해오곤하였다.

대학생이 된 나는 학교에 갔다오면 옷방에 들어박혀서 공부만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는 여전히 티각태각이 벌어지곤하였다. 혜옥은 그것을 우리 집 생활의 음률이라고 음악적인 표현을 달았다.

어머니의 보다 높아진 옥타브에 비해 아버지의 보다 세련된 리듬으로 하여 우리 가정에서만 고유한 화음을 이루고있었다.

선창은 항상 어머니편에서 떴었다.

어머니; 령감한테 욕심도 없소? 인젠 혜옥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 흐음(돌아왔던가 늙군한다.)

어머니; 외동딸을 잘 입혀서 거리에 내세워놓으면 나쁘게 뭐가 있는가말이에요.

아버지; 또 그 소리요? 우리 혜옥이가 어쩔다는거요? 나라에서 내준 천으로 입고다니면 되는거지 뭐가 더 있어야 하오.

어머니; 령감누엔 어제 우리 집에 왔던 딸애동무의 몸치장이 안보여요? 전부 희한한 천으로 두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까짓것때문에 사람급세가 오르고 내리는건 아니요.

어머니; 의복이 날개라는걸 몰라서 하는 소리요?

아버지; 알면 어찌라는거요.

어머니; 그런 천들은 령감창고에 쌓이고 덧쌓여있지 않소.

아버지; 나더러 나라의 재산에 손을 대라는거요.

어머니; 한생을 령감처럼 살면 뭐가 남겠소. 무덤우에 풀밖에 더 돌겠소.

아버지; (이때부터는 완전한 귀머거리가 된듯하였다.)

어머니; 한일생 창고지거나 해먹구러. 제털 뽑아서 제 구멍에 넣으면 창고지기는 때우지 않을거외다.

아버지; (돌아놓는듯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귀머거리행세가 시작되던 더욱 드살이 나서 옥타브를 올리였다.

이때면 나는 우울해지는 기분을 어쩔수 없었다.

어릴 땐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아버지를 저처럼 들볶는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은 모든것이 명백하였다.

어머니는 나쁘고 아버지는 옳았다. 그랬으나 아들인 나에겐 어머니를 규탄하고싶은 중요심같은것이 생기지 않았다. 한발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보고 저런 강짜를 들이대는것도 리해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들볶아대는 마음의 밑바닥은 결코 검은것이 아니였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남들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혀서 내세우고싶은 불같은 마음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것이였다.

모든 아들들에게 자기 어머니의 행위를 두고 변명해주고 용서해주고싶은 마음이 있듯이 내 심정 또한 그러하였다. 하면서도 한편 어머니의 그 무분별한 왕드살에도 끄떡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하여 감탄하였고 고맙게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만일 어머니의 저 불협화음에 견디여내지 못한다면 아들인 나는 그 수치심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측은하게 여겨지는것 또한 아들의 마음이었다.

나도 거리에서 희한한 옷차림을 한 녀인들을 간혹 보곤했다. 어떤 때는 몸치장이 지내 야단스러워 불쾌감을 자아냈다.

어느날 우리 집엔 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와 한 상사에 있는 오랜 인수원이였다.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와 한직장에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아버지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곤하였다. 그는 이날 술병을 들고 우리 집에 나타난것이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한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명절날에만 술을 마셨는데 그것도 집안에서 조용히 한둘이서 마시였다. 언제나 자신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절제있는 생활을 해온 아버지는 대사집 손님으로 가셔도 한두잔 들고는 일어서곤하였다. 사람들이 만일 아버지가 독하기로 소문난 술도 두세병쯤 마셔버린다는것을 안다면 매우 놀랄것이였다. 그런데 이 손님만은 하 오랜 세월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보니 그것을 알고있었다.

그가 오늘 우리 집에 온것은 혜옥이때문이었다. 우리 집에서는 오빠인 내가 대학에 다니고있었기때문에 혜옥이부터 정혼할 예정이였다.

《혜옥이 신랑감을 탐문했수다.》

손님은 첫잔을 들고나서 듣기 좋은 테너음으로 말하였다. 키는 작은편이고 얼굴은 좁아서 볼품이 없는 체격이지만 쾌활성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였다.

《우리 집 걱정을 언제나 함께 풀자고 애쓰는 아저씨가 정말 고마워요. 그래 그 신랑감이 어데 있나요?》



아버지대신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이리쿵저리쿵 이야기관이 벌어졌다.

손님은 자기 친구의 머느리로 혜옥이를 보내자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드살균이지만 손님접대에서는 일등이었다. 원래 식찬만드는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다 성의 또한 큰 것이어서 안주상은 푸짐하였다.

미달이문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외국어문법공부를 하고있는 나에겐 아래방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죄다 들려왔다.

인수원아저씨와 어머니말소리뿐이었는데 늦게야 아버지말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 총각직장이 어데라고?

손님; 수출입회사이지요. 날고뛰는 청년이웨다. 장래를 의심할건 없수다.

아버지; 사랑이란 생나무껍듯 하는게 아니잖나. 서로 리해하구 정을 주고받으면서 일생을 기약하는것인데...

손님; 그럼 인차 저희들끼리 만나보게 합시다. 했을 때 어머니가 다시금 남정네들의 말참에 끼여들었다.

어머니; 발전성이 풍부한 총각이겠군요?

손님; 그렇구말구요.

어머니; 그런 총각에게 우리 혜옥이가 눈에 들가요.

손님; 잘 차려입혀서 내보내구려.

어머니; 우리 혜옥이한테 특제품 달린옷하나 없는걸요.

손님; 그게 무슨 소린가요. 혜옥이가 그렇단말이요.

어머니; 우리 집이 그렇다는걸 이제야 아시는가요.

손님; 아-니, 형님이 창고를 가지고있으면서 제 딸 《완피스》 하나...

어머니; 그래서 매일밤 이 집이 조용치 않은거랍니다.

손님; 하하하, 알만하외다. 아주머니두 참, 형님성미가 본시 그런걸 어찌겠소.

아버지가 이 순간 어머니를 쫓아버리는듯하였다.

《여보, 두부국이 죄다 식었소.》

손님; 더운국은 무슨 더운국이요. 술이 좋으니 국이 식어도 아무일 없수다. 형님은 이런 술을 자주 맛보겠지요.

아버지; 이런 술은 오늘 처음 맛보네.

손님; 이 술이야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술이 아니요.

아버지; 그렇지만 그게 어디 내가 마시란 술인가? 그달그달 수출계획량도 뺏뺏한데.

손님; 형님은 너무 그렇게 살지 마오. 혜옥이한테 특제품 《완피스》 하나 없다니 그게 될말이요. 형님이 마음먹으면 그까짓 완피스정도겠소. 제 딸이야 생각해야지요.

아버지; 그만하게.

손님; 아, 혜옥이도 그렇고 아주머니 생각도 좀 해주어야지요. 내가 늘 인수해다가 창고에 넣지만 매번 여분이 몇메터씩은 있는 법이 아니요.

아버지; 나도 그쯤한건 아네. 하지만 창고장에겐 여분이 없네. 일단 창고에 들어온 이상 국가재산으로 등록되네.

손님; 형님이 제 딸과 제 로친네의 옷감 한벌 다쳤다구 문제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 됐네 됐어. 내 량심이 더러워지는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네. 오랜 당원이 그따위짓을 하면 되겠나. (아버지는 45년도 당원이였다.)

손님; 형님도 이제 창고장을 곧 그만두게 될겁니다. 총국에 조동된 마파장후임으로... 이건 혼자만 알고계시오.

아버지; 벌써 비서동지하고 말이 있었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마파장자리에 앉히자고 제기한다고 하더군.

손님; 그래서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 대답은 무슨 대답이겠나. 당원이야 당이 하라는대로 하면 되는거지, 거기에 무슨 리유나 구실이 있겠나.

손님; 비서동지도 더이상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마파장자리에 앉힐 사람은 별문제가 아니지만 창고를 책임질 사람을 얻기란 쉽지 않다구 하더군.

손님; 결론은요?

아버지; 그거면 조직의 의사를 충분히 아는거지 결론은 무슨 결론이야.

혜옥은 약속한 날자에 인수원아저씨가 소개한 총각과 만났다. 그들이 만나서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주고받은곳은 대동문에서 대동교까지였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긴 그 총각은 헤어질 때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의 소박성은 내 마음에 듭니다. 허영심같은건 전혀 없는것 같군요. 몸치장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군요. 동무네 가정을 지배하는 분위기를 알만합니다. 사흘후에 내 결심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비꼬는 어투였다.

총각은 정확하게 사흘후에 자기 결심을 전달하였다. 인수원아저씨가 맥폴린 걸음으로 나타났다.

총각이 거절한다는 소식을 갖고온것이다. 자기는 장차 비행길 타고 대외무역을 다녀야 할 사람인데 류행에 민감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녀성과는 리상(성격과 취미)이 맞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당사자인 혜옥은 다시는 그런 《맞선보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아버지는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차라리 잘됐다. 그런 녀석한테 시집가야 행복할수 없는거다.》

나는 처음에는 남만치 이목구비가 그췌한 녀동생의 인격이 무시당한듯한 울분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깊은 말을 듣고는 인차 마음을 가라앉혔다. 생활은 복잡다단하고 사람들의 개성 또한 천태만상이 아닌가.

다만 성미급한 어머니가 음계를 두세개씩 뛰어넘으며 옥타브를 올리기 시작했다.

《당신같은 <꼭자>하고 한생을 살면서 내 가슴엔 채만 남았단말이요. 이젠 아이들 앞길까지 망쳐놓으려드니 이 집 꼴이 뭐가 되겠소.》

《...》

아버지는 어머니의 불협화음에 아무런 리듬도 표현하지 않았다. 마치 귀머거리나 병어리처럼 방한복판에 바위같이 든든하게 앉아있었다.

《당신은 그 총각들이 말하는 류행이라는게 뭔지나 아오? 아는가말이요?》

《...》

아버지는 담배만 피웠다.

이날밤 혜옥이가 내 방으로 올라오더니 책장에서 조선말사전을 뽑아서 펼쳤다. 혜옥이가 무슨 단어를 알려고 하는지 궁금하여 나도 사전우에 머리를 떨구었다.

《오빠. <꼭자>라는 어휘가 왜 사전에 없나요?》

《너 그건 왜 찾아보니?》

나는 혜옥의 울적한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어머님 나빠요. 난 아버지가 불쌍해.》

《부모들의 일에 참견하는 버릇을 붙이면 못 써.》

혜옥이도 내려가고 옷방엔 나혼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아래방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던 아버지가 종시 일어나 성냥을 굶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침묵이 흘렀다.

지금 아버지는 담배를 빼금빼금 빨면서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그 심중을 헤쳐보려고 했으나 나로서는 도저히 깊이를 가늠할수가 없었다.

나의 공부는 앓은 방아를 찧기 시작했다. 눈앞엔 혜옥이가 떠오르고 혜옥이와 약혼하기를 거절하였다는 청년이 떠올랐다. 나는 오빠로서 혜옥이를 잘 알고있었다. 오빠이기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혜옥은 남들에게 자랑할만한 처녀였다. 성실, 근면,

다정다감, 양보없는 정의감, 외유내강, 이런 처녀였다. 생김새도 미인이라면 미인일수도 있을만큼 부드럽게 균형잡혀있다. 도대체 그 동무가 말하는 류행이란 무엇일까? 나는 이것이 알고싶었다. 내가 알고있는 류행이란 그 동무들이 말하는 류행과 다른 뜻이란말인가? 아마도 그 동무들이 말하는 류행이란 단어의 폭은 내가 알고있는 류행이란 단어의 뜻보다 넓은듯하였고 또 다르게는 그 무슨 은폐된 요구를 담고있는것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때까지 약혼문제를 놓고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아직은 학업 일념뿐이였다.

나도 약혼문제를 코앞에 놓으면 그 동무가 말하는 류행이란 말의 참뜻을 깨닫게 될가? 류행이란 그의 단어속에 어떠한 요구조건이 있는지 생활적인 항목으로 깨닫게 될가?

잡들지 못하는건 아버지뿐이 아니였다. 나 역시 잡들기엔 너무도 생각이 복잡하였다. 아니 그날밤은 온 식구가 잡들지 못하고있었다.

히나 그 일로 해서 우리 가정의 생활에서 어두운 그들이 비낀것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잠이 모자라 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웠고 서로 찬거리를 권하며 아침을 먹고 아버지는 창고로, 나는 대학으로 혜옥은 제 동무들과 웃으며 출근했다.

이런 어느날이였다. 그날은 어머니와 혜옥이가 큰 이모네 집에 다녀왔다. 큰 이모네는 순안에 살고있어서 어머니와 혜옥은 늦게야 돌아왔다. 그런데 이날따라 아버지는 보통때보다 더 늦게 퇴근하였다.

혜옥이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몹시 피곤한듯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놓고 그우에 보를 덮어놓은 다음 잠들어버렸다.

아버지는 열두시가 넘어서 퇴근하였는데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밥상에서 물러난 후엔 의례히 그러하듯 담배 한대를 피워물고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리고나서 출퇴근벨가방에서 점심팩을 꺼내놓는듯하였다. 이 역시 보통때와 똑같은 동작이였다. 그런데 전에 듣지 못하던 부스럭소리가 옷방까지 들려왔다. 이상한 감촉을 받은 나는 문틈으로 아래방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나는 《저런》하고 입밖으로 소리를 내지를번하였다.

아버지가 가방속에서 천말이를 꺼내서 자기앞에 퍼놓고 보는것이였다.

눈이 부시게 빛을 발산하는 화려한 천이였다. 나로서는 그때까지 본일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는 희한한 천이였다. 빨간 천과 풀색 천이였는데 번들거리는 그 천들은 전등불을 받아 아래방벽면들과 천정까지 물들이였다.

아버지는 그 두 천말이를 한발정도씩 퍼놓고 내려다보고있었다. 옷방쪽으로 구불성한 어깨를 돌려

덴채 앉아있어서 내가 문틈으로 내려다본다는것은 모르고있었다.

처음엔 머리를 든채 앉아있던 아버지는 그 천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하여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고개를 꼭 떨어버린채 들지 않았다. 그때의 아버지 어깨와 잔등에서는 약간의 탄력성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숙여버린 아버지의 머리는 영원히 솟아날것 같지 못했다.

《아-혜옥이때문이구나.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 드살에 굴하였구나.》

나는 사기조박으로 가슴속이 굽히우는듯 아팠다

나는 아버지의 시선과 부딪칠가봐 겁이 났다. 그래서 미닫이틈에서 물러나 책상에 앉았다. 했지만 그 순간부터 내 눈엔 교과서내용의 단 한줄도 려결되지 않았다. 동사와 형용사가 헛갈리고 주어와 술어도 구별할수 없었다. 그대신 방금전에 문틈으로 내려다본 아버지의 숙인 머리와 휘여든 잔등이 그 글줄들우에 나타났다.

굴복한 아버지, 허물만 남은 아버지... 틀림없이 아버지는 보통사람들이 갓출수 없었던 높은 자세를 집어던진것이다. 가깝게는 어머니의 끝없이 계속되는 불협화음에, 다음은 혜옥의 신랑감으로 나섰던 희떠운 자식의 더러운 리기적 타산앞에 굴복한것이다.

래일부터 아버지는 로당원의 청렴과 결백, 강했던 의지를 잃어버린 수치심때문에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걸어나갈것이다.

아버지의 수치-그것은 아들의 수치다.

나는 책상에서 물러나 자리에 누운 다음 소리없이 울었다. 그러면서 입술을 사려물고 비상한 결심을 하였다. 래일아침 그 천조박들을 꺼내놓고 기뻐한다면 당장 찢어버리거나 부엌아궁에 처박아버리겠다고... 나역시 너동생 혜옥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입히고 치장시켜주고싶었다.

만일 저 특제품호화천으로 달린옷을 해입힌다면 혜옥이가 나타나는곳이면 어데나 환할것이다. 그때면 리기적 타산이 밝고 처가집덕이나 입어볼가하는 고무풍선같은 녀석들은 류행에 민감한 처녀라고 울리추면서 매달릴것이고 장인, 장모로 될 사람들앞에서는 재간껏 발라맞출것이다. 그러면 한번 얻어진 아버지인만큼 그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기 위하여 매일매일 저 출퇴근용 멜가방속에 무엇인가 한두가지씩 넣어가지고 올것이다. 남이야 어떻게 제혼자 잘살려고...

나는 이렇게 될 래일의 우리 집을 결코 그냥 둘수 없었다. 더 늦기전에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이런 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아버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막아야 하였다. 그러기 위

해서는 당장 래일아침부터 결심한대로 행동하는것이였다.

결심은 굳었지만 마음속 슬픔만은 가셔지지 않았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무렴 저렇게 될수 있을까? 어쩌면 참대처럼 굳던 아버지가 나라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가?

나는 방금전에 눈으로 본 일이건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꿈을 꾸것 같기도 하였다. 그래서 다시금 미닫이틈으로 아래방을 내려다보았다. 확인 또 확인하고싶었기때문이다.

아버지는 아까와 변함없이 등을 돌려덴채 머리를 꼭 숙이고있었다. 눈앞에 펼쳐놓은 천쪽들에서는 눈이 시굴정도로 빛이 발산되었고 그 빛에 천정과 벽들은 물들어있었다.

잠자던 어머니가 그 어떤 인기척을 했던지 옷몸을 벌떡 일으켜세웠다.

《아니 이게 뭐요?》

호화천이 펼쳐진것을 보게 된 어머니는 잠기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환성을 올렸다.

《...》

아버지는 머리조차 들지 않았다.

《야, 참말 희한도 하구만. 애야, 애 혜옥아, 아버지가 네 옷감을 갖고왔다.》

어머니는 자기곁에 누워자는 혜옥이를 흔들여 깨우며 소란을 피웠다.

《...》

아버지는 그래도 머리를 들지 않았고 아무런 말도 없었다.

《령감이 개심했수다레. 이진 참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요.》

어머니는 천말이쪽으로 다가앉으며 손을 내밀었다. 했을 때 죽은 사람처럼 머리를 꼭 숙이고있던 아버지가 벼락같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들었다.

《뭐요? 개심... 이진 보자보자하니까 체면까지 없어졌구만. 나는 백번 죽었다가 살아나두 이따위 짓은 안한단말이요.》

갑자기 무서워지리만큼 탄 사람이 된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엄하였다. 재판장에서 론고장을 읽는 검사나 판결문을 읽는 판사들의 목소리에서만 느껴지는 싸늘한 랭기가 담긴 음성이었다.

《아니... 이 령감이》

어머니는 돌변한 아버지의 불같은 눈총을 받아가 죽어 손을 도로 걸어들었다.

《이진 내가 한것이 아니란말이요.》

아버지는 그 자세, 그 어조로 반복하였다.

《당신같은 속물데기가 드살을 부린다고 내가 흔들릴줄 알았소. 그동안 하두 말갈지 않은 소리로 양탈을 부리기에 못들은척했을뿐이요. 아무렴 일생을

당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산 내가 이따위 천조박에 눈이 어두워 량심을 팔아먹을줄 알았소.》

《...》

어머니는 완전압도되어 입조차 열지 못하였다. 이런 일은 나로서 처음보는것이였다.

《그 사람이 오늘 인수해온 물품들을 싣고와서 현금출고증을 흔들며 내걸을 빙빙 돌더니 가방속에 저걸 넣어놓고 갔단말이요. 혜옥일 입히라는거겠지. 고맙지만 난 그따위 선심은 바라지 않는단말이요. 당장 이것들을 꺼져서 내 가방속에 넣소. 나 역시 당신처럼 딸이 귀하지만 제 량심을 팔아서 구해들인 옷같은건 입히고싶지 않소. 이제 혜옥이한테 진짜배기 총각들이 나타날거요. 우리 사회엔 류행이니 뭐니하면서 노랑물을 바르고다니는 희떠운 녀석보다 성실한 청년들이 절대다수요. 이젠 의심할 일이 못되오.》

나는 미담이문에서 물러나서 자리에 다시 누웠다. 한번 더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게 된 나는 크나큰 자랑을 안게 되였다. 한편 이런 아버지를 잡시나마 의심했다는걸로 하여 자신의 경술을 사정없이 저주하였다.

우리 집 생활은 다시 예전처럼 이어졌다. 우리 집안의 선물, 우리 집안의 톨동을 타고 하루하루 흘러갔다.

어머니의 쉬임없는 드살, 아버지의 침묵과 귀머거리행세, 혜옥의 조용한 자세, 나의 힘겨운 탐구... 그러면서도 화목하였다.

어머니는 예이제 다들바없는 《황제》였다. 만일 어머니를 《황제》자리에서 퇴위시키자면 우리 집의 화목은 깨졌을것이다. 그렇지만 개조대상 《황제》였다. 아버지도 나도 혜옥이도 어머니의 낡은 사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예술적으로 투쟁하였다.

어머니의 사상개조는 장기전을 함으로써 해결될것이었다.

가을이 되자 나는 한학년 더 진급하였고 혜옥은 인품높은 총각에게 시집갔다.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경사에 비해 너무도 큰 슬픔이 온것이다.

아버지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였다.

나와 혜옥은 그리고 매부는 자식으로서 어머니는 안해로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다.

현대의학이 도달한 고공의 높이로써도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병이었다.

우리 집은 어두워졌다. 웃음도 없어졌고 활기도 없어졌다. 어머니의 드살조차 그리울 정도로 적막해졌다.

병원에 다녀올적마다 어머니는 우리 오누이 몰래 눈물을 흘리곤했다.

그러나 당조직만은 맥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병에 좋다는 약이 있는곳이면 거기가 어데건 사람들이 갔다오곤하였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나도 당원이다. 그러나 우리 당이 한 평범한 당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것처럼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아버지가 일하는 창고의 전채산을 다 합친다 해도 비교할수 없는 것이였다.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고있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목매며 부르짖었다.

《여보! 내가 당신속을 지지리도 태웠구려. 환장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 좋은 세월에 뭐가 부족하다구 타발만하면서...》

《허허... 그러기 사람은 늙어서도 썸이 다 못든다고 하잖소.》

웃으면서 하는 아버지의 말이였지만 자책감이 짙게 어려있었다. ...

《몹시 미안하구나. 당원이 당조직에 부담을 주다니... 너는 공부를 끝마치면 아버지가 당을 위하여 더 하지 못한 일뭇까지 말아서 해야 한다. 이 은혜는... 너무 커서 대대로 보답해도 다 못할것 같다.》

병상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이였다. 어떤 날엔 또 다른 부탁도 하였다.

《내가 죽거든 어머니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 너희들에겐 참 좋은 어머니였다.》

해는 더 높아졌지만 교외의 푸른 하늘은 여전히 맑고 대기 또한 그대로 신선하다.

추석날을 기다려 돌아가신 아버지묘를 찾아가는 아들의 마음은 무겁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말을 제대로 지켜가며 살고있는가를 돌이켜보는 마음이 기때문이다.

멀지 않아 내 나이는 중년고비에 들어선다. 그리고 며칠전에 아버지가 한생을 바쳐 성실하게 지켜섰던 창고가 있는 상사의 사장으로 임명되였다.

나는 아버지가 일하던 창고에 자주 들러볼것이다. 그때마다 아버지처럼 티하나 없는 당원의 량심을 지니고 내가 살며 일하고있는가를 검토해보려 한다.

저앞에서는 어머니가 손자들과 손녀들속에 포위되어가고있다. 녀동생 혜옥이도 가고있다. 시아버지를 본일 없는 안해도 가고있다.

나는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이 추석날 하루를 보내려 한다.

부디 안식하시라 아버님의 깨끗한 령혼이여.

## 헤어져 살아도 남이 아니다

홍현양

### 압록강철교를 건으며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가슴을 울리고  
땅을 흔들며  
압록의 철교를 달리는 소리

차창아랜  
푸른 물결  
출렁이며 흘러가는  
압록강의 푸른 물결  
세월의 물결

아, 추억이여  
귀밀머리 희끗한 나에게  
시간을 묻듯  
차바퀴  
차바퀴소리로  
쉬임없이 들려주는 그 무엇  
그 무슨 뜻인가

불붙듯  
달아오르는 눈시울  
조국의 사절로  
압록강을 건너가는 이 시각에  
속삭이듯 울리는  
차바퀴소리여

차창의 저 달도  
그날의 그 달빛  
불속을 헤치고 이 다리 건너가던  
고아들을 생각하시며  
수령님 잠 못드시던  
그날의 그 달빛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  
그 누가 영광의 이 길우에 세웠느냐  
그날에 이 다리 건너갔던  
애어린 교아였던 나를...

어이하여  
수령님 잠 못드시던  
그 밤을  
그 달을  
이 가슴에 차창가에  
목메게 비쳐주느냐

아, 차바퀴소리  
차바퀴소리여  
네 소리 들으며  
내 가보지 않은곳 어데 있으랴  
저 먼 발칸에도  
적도의 하늘아래에도

허나 압록강철교를 건을 땀  
네 소리  
조국의 깨우침으로  
어머니의 간절한 당부로  
뼈와 살속에 스며드누나

잠시 가더라도  
조국의 아들임을 잊지 말라고  
잠시 가더라도  
수령님의 기쁨이 되어 돌아오라고  
아, 언제나 -

- 압록강 국경에서 -

## 옛 교정에서

-길림 육문중학교를 방문하며-

낮익은 프락이다  
글썩는 소리가 울려온다  
음악실 창너머 흘러나오는 노래  
이 모든것  
지나간 나날이 간직한  
소중한 삶

꽃들이 한창  
여름을 무르익힌다  
옛 교정에  
잊지 못할 위대한 자욱을 빔내이며  
한번 피는 계절을  
천만년 세월의 향기로 수놓으며...

아, 걸음걸음  
승업해지는 프락  
위대한 수령님 드나드시던  
교정의 키낮은 문가에  
개신문의 푸른 하늘이 비끼여와  
가슴이 뭉클 젖어든다

에서 조국은 수천리  
아득한 저 하늘 한끝에 있어도  
어찌하여 이 교정에 들어서면  
서먹함을 잊게 되는것일가  
집떠난 그리움을 모르는것일가

수령님 배우시던 교실  
수령님 앉으셨던 책상을 쓸어보면  
조국의 숨결이 흘러온다  
나라없던 설음이  
아린 재가 되어 가슴에 쌓이누나

아 그 설음  
그 원한을 가시려  
우리 수령님  
진리의 등불을 밝히신 교정이기에  
그 빛발따라  
한번 피는 삶  
낮선곳에 오질 않았구나

조국 떠나  
타향천리에 와 있어도  
그리움을 잊게 하는  
옛 교정  
길림육문중학교여

우리 수령님  
여기서 바라보신 백두산은  
지척에 있구나  
위대한 그 자욱 깃든곳이  
천만리에 있다 해도  
조선의 해빛을 고이 안고있구나

## 벗에게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싸운 고지의 흠을 지원군 렬사가족에게 주었다-

벗이여  
그대를 찾아왔다  
병사들의 손과 손을 거쳐  
조선인민의 마음과 마음에 받들려  
한줌의 흠이...

피가 스민 흠이어서  
그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뜻이 있는 흠이어서

천리 먼곳에 있지 않게 한다  
벗들의 마음을...

오, 이 한줌의 흠이 있어  
리별은 우리에게 없으리  
이 한줌의 흠에  
그대 아버지의 숨결이 어려있어  
오성산이 함께 솟아있다!

-베이징에서-

## 서리꽃이야기

물안개가 물들어  
아지마다 물들어  
동지달 칼바람속에 피어나는 꽃  
실실이 버들마다  
송화강 버들마다 피어나는 서리꽃

길림땅의 전설처럼  
길림땅의 버들숲에 감돌아들어  
눈보라속에서도 몽게몽게  
피어나는 물안개  
송화강의 물안개

타빈을 돌리며  
송화호연제에서 떨어지는 물보라  
무성한 버드나무 실가지에 피어서  
겨울에도 봄날의 진달래꽃인양  
피어나는 서리꽃  
백설의 눈꽃

하늘이 그저 준 꽃이라면  
이처럼 소중히 여기라  
서리꽃  
서리꽃

송화강의 하얀 서리꽃  
버들잎에 그저 핀 꽃이라면  
그처럼 자랑스러우랴  
서리꽃  
서리꽃  
길림의 아름다운 서리꽃

바친 땀  
전류의 불꽃이 꺼질줄 모르듯  
송화강엔  
얼음을 모르는  
물안개가 피어난다  
서리꽃이 피어난다

새 중국의 전설처럼  
칼바람  
눈바람을 뚫고  
길림땅을 수놓는 서리꽃  
삼복더위 아래서도 자랑이구나  
보람찬 로동이 꽃피워주는  
백설의 눈꽃이...

-풍만 수력발전소에서-

## 조선춤

-장춘시 조선족 문화회관에서-

손에 손을 잡고 빙빙  
어깨장단  
발장단에  
마음도 심장도  
한피줄로 뛰는 사람들아

연분홍치마  
초록색치마  
땅에 살살  
발끝에 살살 끝머

춤판에 부르는 처녀들아  
처음 만나  
미처 통성은 못했어도  
조선사람  
조선춤으로  
하고싶은 말이 다 통하누나

아  
조선춤으로

조선사람들과 함께  
의사가 통하는 이 저녁  
환희에 잠긴 이 저녁

평양 친선의 밤

**김일성** 광장에 물결치던 춤가락으로  
광복거리 건설장  
흥겨운 설참에 추던 춤가락으로  
인사를 전한다 벗들에게...

멀고 가까운곳  
멀고 가까운 사람들 있다 해도  
옹헤야 장단에  
어깨가 들썹 마음도 들썹

조선춤장단에 한형제로 되누나

아, 떨어져 산다고  
어이 남이 되랴  
타향에 산다고  
어이 조선사람이 아니랴  
옹헤야 장단이 풀어주는 그 뜻

너도 조선사람  
나도 조선사람  
말없는 정을 칭칭 감아주는  
환희의 이밤  
조선춤이 제일이구나!

## 송화호

바람 한점  
구름도 한점없는 하늘  
물결도  
그 빛을 담아  
푸른빛

백두산의 천지가  
그대로 옮겨진듯  
첩첩 산발들도  
그 기상을 닮은듯

송화호 물결우에  
떠나가는 유람선들우에  
빨강고 파아란  
처녀들의 옷자락이  
구시월 단풍처럼 타고있구나

기슭엔 푸른 산발  
숲속엔 휴양객들 눈부시고  
한글이 돌아서면  
물마시러 흘러내리는

젖소떼의 영각소리

아, 물을 보러  
산천만을 보러 가는  
배길이 아니구나  
친선의 바다  
단결의 노래로 흥취한  
송화호여

눈덮인 준령을 넘으며  
피도 눈물도 함께 나는 형제들이기에  
물을 봐도  
산천을 봐도  
생각은 하나같구나

산새들이 나는 저 하늘  
꿀향기 넘쳐나는 호반에  
조선의 춤노래  
중국의 춤노래를  
송화호의 절경으로 영원히 새겨가누나

-송화호 유람선에서-



## 아라디풍경

산이 산을 어깨결고  
병풍처럼 솟아난 땅  
빨간 벽돌집들이  
푸른 벌을 향해 창문을 연 마을

오붓하다 하기엔  
가없는 들판  
드넓다 하기엔  
빙둘러 산이 막힌 아라디

마을 이름 귀에 설어도  
인정만은 한형제의 피를 타서  
악수를 나누며 오가는 말도  
숨김없이 오가는 조선말

반갑다 아라디촌이여  
닭들이 모이를 쫓는 마당가에  
달처럼 환한 아낙네의 웃음  
아이를 찾는 소리도 우리 말이구나

아 어느 집 창가에서 흘러나오는가  
능수버들 민요가락  
바람타고 날아온 민들레씨가  
아라디 들판에 진하게 핀 고장

경상도 할아버지  
함경도 할머니가  
두손을 잡고서 놓지 못하며  
구들방에 앉혀주는 조선사람마을

그 인정이 따라서며  
푸른 동쪽에 아물대던 흰 적삼이  
눈에 삼삼 새겨지는  
아라디 풍경이여

-길림시 아라디 조선촌에서-

## 5 호도여

흰구름 피어나는  
천지의 무지개빛  
그 슬기를 타고 왔느냐  
송화강 물결따라  
예까지 왔느냐

다섯마리 호랑이  
백두산의 호랑이  
송화호에 누웠는듯  
그래서 그 이름도  
5 호도런가

벗들과 손잡고

섬바람을 마신다  
참나무 봇나무  
숲속을 거닌다  
시상을 고르며 생각에 잠겨...

오, 중국의 벗들아  
이렇게 손잡고 다정히  
5 호도를 밟으니  
폭풍도 두렵지 않아라  
마치 백두산 호랑이의 숨결소리 듣는듯싶어...

-송화호 5 호도에서-

## 압록강의 영원한 흐름처럼

배민욱

《철교다, 압록강이 보인다!》

쿵쿵, 쿵쿵...

렬차는 둔중한 몸체로 교각을 힘차게 구르며 철교에 들어선다.

쭉쭉 뻗은 쇠란간사이로 도도히 흐르는 압록강 맑은 물이 한눈에 안겨오는데 물찬 제비마냥 뽀얀 물갈기를 날리며 미끄러지는 한척의 유람선이 보인다.

압록강!

백두산천지의 푸른 물줄기가 아아한 산굽이들을 에돌아 두 나라의 지경으로 흘러 흐르는 력사의 강,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이야기도 빛나는 영웅서사시도 뜨거운 친선의 정도 고스란히 네품에 간직 한채 흘러가느냐...

이 순간이 지나면 이국산천, 우리의 가슴가슴은 깊은 감회로 설레이고있었다.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차창가에 모여앉은 우리는 새로 일떠서는 고층살림집들을 눈바래며 200 일 전투로 들끓은 대건설장소식들을 흥미진진하게 담론하였고 푸르른 전야에서 금시 미역이라도 감고난 듯 청신한 벼모들이 미풍에 하느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작황에 대하여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고있었다.

하나 지금은 약속이라도 한듯 깊은 명상속에 잠겨있다.

조국을 떠나는 이 시각 모두들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까? 몸은 비록 두 나라지경을 넘고있으나 마음은 떠나온 평양에 남아있을것이었다.

...불밝은 창광거리의 살림방에서 저녁마다 귀여운 자식들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래경연무대를 시청하며 웃고 떠들던 정다운 고향집, 대화학공업기 지건설장에서 혁신자로 이름떨친 만이의 편지를 받아들고 대견함을 금치 못하며 새로운 힘과 열정으로 보도기사의 글줄을 펼쳐가던 즐거운 일터...

참으로 이 순간도 조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창조되고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 꽃피날것인가.

어제까지만 하여도 범상히 여겨지던 그 모든것이 오늘따라 왜 이다지도 소중한게 가슴에 안겨오는지...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서인듯 렬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천천히 천천히 철교를 넘어선다.

## 달에 대한 추억

중국 《장백산》잡지사의 초청을 받고 방문길에 오른 문예출판사대표단을 태운 국제렬차는 어둠에 잠긴 중국동북의 대지를 질풍같이 달리고있었다.

차창밖으로는 우중충한 검은 산발들이 장벽처럼 막아섰다가 황급히 몸을 사린다. 그런가 하면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창문들이 환한 웃음발을 날리며 마주쳐왔다. 그것도 한참나, 너무나도 짧은 상봉의 아쉬움때문이었는지 불빛은 뒤로 물러서서도 오래동안 가물거린다.

렬차의 쉬임없는 심호흡소리, 레루이음째에서 울리는 달가닥소리, 거기에 맞추어 창턱에 놓인 차잔의 신바람난 장단소리, 조는듯 마는듯 희미한 전등빛이 간신히 어둠을 몰아내는 차칸에는 교요가 깃들었다.

《부장동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새로운 시상이 떠오른것이 아닌가요?》

오래동안 계속되는 침묵에 싫증을 느껴서인지 일행중 제일 나 어린 동무의 말에 우리는 차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오동무에게 시선을 모았다. 시인이며 편집부장인 그는 그제서야 깊은 꿈에서 깨어난듯 그윽한 눈길을 돌렸다.

《달을 보오. 저 초생달을. 전화의 그날에도 저렇게 초생달이 하늘중천에 걸려있었지...》

《? ...》

우리는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검푸른 하늘가에 목화송이마냥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속을 유유히 헤치며 우리를 따라 쉬임없이 달음칠치는 초생달, 전화의 그날에도 저렇듯 지칠줄도 두려움도 모르고 포연질은 전호가를 밝히어주었으리라.

우리는 오동무의 말에 조용히 귀기울인다.

은 하루 찌는듯한 폭양속에서 적들의 일곱차례 공격을 물리친 고지에는 날이 저물었다. 수십배가 넘는 원썩들과의 가렬한 싸움에서 전우들은 하나둘 조국의 고지를 부탁하며 쓰러졌고 탄알도 떨어져갔다. 처절한 격전의 여운인듯 뿌리채 뽑히운 나무등결에서는 재빛연기가 꾸역꾸역 타래쳐오른다.

전사들은 전호가에 조용히 기대어 포연을 헤가리며 서서히 떠가는 초생달을 바라보고있었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러 총을 멘지 삼년석달

...

누구인가 부는 피리소리에 맞춰 은은히 울리는 동무들의 노래선률속에 그리운 고향마을이 눈앞에 다가온다.

(분여받은 제땅에서 첫 농사를 잘 지어 사농은 점박이누렁소에 척 올라앉아 풀피리를 불며 오르던 고향마을의 뒤동산, 저녁어스름이 덮이기만 하면 동네 장난군들과 함께 기어들군하던 곱단이네 참외밭 언출을 밟는다고 고래고래 고향지르다가도 우리를 오라고 하고는 달고 향기로운 노랑참외를 쪽쪽 쪼개여 주던 곱단이 할아버지의 사람좋은 얼굴모습, 코물을 흘쩍거리며 슬그머니 등뒤로 설익은 참외를 떨어뜨리던 배나무집 들깨를 보며 할아버지는 시물 시물거렸고 우리는 얼마나 배를 그리워하고 웃었던가...)

뚜루룩, 따따따

순간 자지러진! 총소리가 귀중한 모든것을 없애려는듯이 들려왔다. 인민군전사들은 아직도 단내가 풍기는 총에 탄알을 재웠다. 고지에 단 한명이 살아남는다 해도 원수들에게 이 사랑하는 고향땅을 한 치도 빼앗길수 없음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이때 전방초소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동무들! 중국인민지원군동무들이 왔소...》

전사들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서며 전호에 뛰어드는 지원군동무들을 그리안았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 봉쇄를 뚫고...》

《통즈! 우리는 친형제들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의 원수인 미제를 두고 우린 지체할수 없었습니다. 자, 함께 날강도를 몰아냅시다.》

그들은 이렇게 손에손을 굳게 잡았고 이렇게 한 전호에서 어깨를 걸고 미제를 죽였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깨나란히 전호가에 기대여 그리운 고향집어머니들을 그리었다. 그날에도 초생달은 하늘중천에 높이 떠서 부드러운 빛발을 아낌 없이 뿌려주었다. ...

《그 동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이번에 꼭 만났으면 좋겠구만. 이젠 그들도 나처럼 늙은이가 되었을거요.》

《정말 만나면 얼마나 반가와할가요. 그런데 부장동무 지금도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구말구, 어떤 인연이 있는 사이인데 몰라본단말이요.》

생각깊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단장동무가 꼭 가라앉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정말 쉽지 않은 전우들이지요. 작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장백산>잡지사 남영전사장동무의 아버지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조선전선에 나와 용감히 싸우다가 오성산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그 오성산의 싸움터에서 흠을 한줌 가

치고갑니다. 부친의 피와 땀이 스민 이 흠을 보며 남영전동무는 어제날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단장동무의 뜻깊은 이야기는 끝났으나 우리는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만세소리 높이 웨치며 원수들의 화점을 향해 용사들이 치달아오르던 청바위엔 세월의 푸른 이끼가 덮이고 돌이 부서져 모래가 되고 모래가 타서 재가 루 날리던 전호가엔 소나무가 우거졌다.

허나 민족분렬의 비극을 절감케 하는 매국의 장벽이 바라보이는 오성산전호가의 흠 한줄에는 아직도 그날의 포연이 스배여있었다. 침략자 미제를 용서치 말라는 두 나라 전우들의 피타는 웨침이 응결되어있었다.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가는 단장동무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다. 우리는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정을 안고 전우들을 찾아가고있었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그때 홍안의 어깨에 총을 메었던 오동무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으나 피끓는 심장을 하나로 불태우던 영원한 청춘시절의 벼들을 찾아가고있는것이다.

렬차는 여전히 달빛속을 미끄러진다. 우리의 마음은 렬차보다 앞서 달리였다.

오동무도 사색의 깊은 바다를 헤치며 전화의 날부터 쓰기 시작한 시어들을 조용히 이어간다.

《...초생달, 초생달도 우리와 함께 가고있다.》

## 사연많은 상봉

우리가 이곳 《봄의 도시》 장춘에 도착한지도 벌써 이들이 지났다.

남호의 푸른 물로 삼면이 둘러싸인 남호빈관! 수림을 련상케 하는 울창한 정원, 어찌보면 호텔이라기보다 여름 한때를 즐겁게 보낼 산촌의 별장을 련상시킨다.

우리를 역두에서 반가이 맞이하고 순간도 떨어질세라 동행하여주는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이며 《장백산》잡지사 고문인 김영준동무는 우리들에게 설명하였다.

중국공산당 중요회의를 계기로 세워진 이 호텔은 지금 이 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의 벼들과 중국인민들에게 이름난 휴식터로 되었다고 한다.

이 오붓한 호텔에서 우리는 길림성 류희림부성장을 비롯한 당과 정권기관일군들을 만나 친선적인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그들이 차린 즐거운 연회에도 참가하였다.

그들은 면담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이끄시는 우리 문학의 자량찬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고 문예출판사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조중친

선의 가일충발전에 그리고 두 나라 문학의 교류에 큰 기여를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비록 짧은 기일이지만 우리는 중국동지들의 뜨거운 환대와 형제적 친분을 가슴 뿌듯이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중국의 벗들과 함께 련환모임도 가지고 석양이 깃든 아름다운 남호기슭을 거닐며 문학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서 견해일치를 보았다.

관계부문 일군들뿐 아니라 우리를 맞아준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친혈육의 따스한 정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우리가 물건들을 팔고사느라 붐비는 사람들속을 천천히 헤치면서 장춘백화점을 돌아볼 때였다. 한 매대앞을 지나던 우리는 누구인가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신발매대에서 상반신을 한껏 내민 30대의 녀점원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동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왔지요?》

그 녀인은 우리 가슴마다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장을 정중히 가리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녀인은 두손을 마주 잡고 흔들면서 우리를 반겨주었다. 방금까지만 하여도 물건고르기에 여념이 없던 손님들도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길을 터워주었다.

우리는 친절환 그 녀인과 손님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이윽해서 매대앞을 떠났다.

어찌 그뿐이라, 아침마다 방긋 웃으며 반겨주던 호텔안내원처녀도, 자전거우에서 날과람을 일쿠며 달리다가 아침산책을 하는 우리에게 꾸벅 인사하던 순진한 총각로동자도...

우리의 가슴은 기쁨과 긍지로 부풀어올랐다. 정말 오늘 우리 인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 동경속에서 살고있는가. 수천년 민족사에서 우리 민족이 언제 오늘처럼 남의 존중과 신뢰속에서 마음껏 세계만방을 활보할수 있었던가!...

순간 우리 눈앞에는 언젠가 영화에서 본 가슴아픈 장면이 떠올랐다.

-수십쌍의 조소어린 눈길이 연단을 향한 만국평화회의장, 하늘을 우러러 약소민족의 울분을 터뜨리던 애국지사가 칼로 배를 가른다. 구천에 사무친 원한인양 내뿜는 붉은 피...

그렇다. 이것은 우리 민족수난의 력사의 한 세 부였다.

어찌 우리 민족뿐이라, 바로 어제 우리가 참관했던 이전 《만주국황궁》에서도 일제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에게 들썩운 그 재난의 년대기를 몸서리치며 되새겼었다.

친선의 정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더욱 깊어지는데 우리의 가슴 한구석에는 서운한 생각이 아직도

실구름처럼 서려있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앞장에서 우리를 맞아주었어야 할 주인공인 《장백산》잡지사 사장 남영전동무가 여직껏 나타나지 않기때문이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헤아린 《장백산》잡지사 부주필 김택원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아쉽게 되었습니다. 동지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기 두시간전에 우리 사장동무는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국가적인 중요회의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았지요, 그가 동지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렬차에 소식을 띄웠는데 아마 못받은 모양입니다. 베이징에도 전보를 쳤습니다. 베이징에도착해서 즉시 차표를 예약하여놓으면 이틀후에는 차표를 살수 있으니 래일저녁쯤엔 도착할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거듭 사죄하는 부주필동무의 말을 듣는 우리는 오히려 민망해졌다. 우리가 좀더 일찌기 방문통지를 했더라면 하는 자책감이 갈마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아침식사를 하려 승강기를 내려서는데 낮익은 사람이 헐떡거리며 이쪽으로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후리후리한 키, 가름한 얼굴, 피곤이 한껏 실렸으나 깨끗한 정이 넘치는 눈길...그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남영전사장이었다.

《아니, 이저 바람을 타고왔소, 아니면 구름을 타고왔소?!》

우리들의 반가운 환성에 그는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저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손님보다도 늦게 오는 불손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원참.》

《뭘요. 원래 기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법이라우, 이렇게 만나니 더 인상이 깊구만요.》

우리의 통답어린 말에 그는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그제야 우리는 그의 옷차림새에 눈이 갔다. 땀에 화락해진 상의, 회색면지가 묻은 바지가랭이와 구두, 얼마나 바쁘게 달려왔으면 저렇게...

우리는 그의 가식없는 진정에 코마루가 찡해졌다. 얼마후에야 우리는 그가 이렇듯 멀리 베이징에서부터 바람처럼 나타난 경위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베이징행 렬차가 매화구역에 덜커덩 멈춰섰을 때 남영전은 달콤한 꿈에서 소스라치듯 깨여났다. 며칠전부터 회의준비때문에 눈코뜰새 없이 돌아치다나니 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무엇이 이 안온한 연석침대에서 깊은 잠에 폴아떨어진 그를 깨워주었는가?

《긴급소식입니다. <장백산>잡지사 사장 남영전동지! 중요한 일이 있으니 속히 돌아가주십시오. 재삼 말씀드립니다. 속히 돌아가십시오.》

속히?... 속히 돌아가라는 긴급소식이 그를 깨워 주었던 것이다.

무슨 일인가? 어떤 급한 일이 열차에 오르지 몇 시간밖에 안되는 사람을 집으로 부른단말인가?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굴리었다. 순간 장난이 세찬 셋째아들의 귀여운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내가 떠나올 때까지도 그 녀석이 어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제 엄마가 걱정하지 않았던가. 그때는 벌써 해저물녘, 그렇다면 그에게 불상사라도...)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조여들었다.

(분명 말할수 없는 피치 못할 불행이... 빨리 돌아가자. 그 어린것이 이 아버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랴...)

뒤이어 눈앞에 얼른거리는 병원침대...

그러나 그는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맡긴 채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있었다. 집은 분분초초로 멀어지고있었다. 낭영전사장은 베이징에서 얼마나 귀중한 사업이 기다리고있는지를 리성으로 깨닫고있었다...

《참, 그런데 베이징역두에 내려서야 저는 조선 동지들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그런 줄 알았더라면 매화구역에서 돌아설걸... 허튼 생각만 하다보니 참, 참. 그러니 어찌 일본도 지체할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원래 입이 무거운 그에게서 반복되는 《참, 참,》이라는 그 한마디 말속에는 형제적 의리를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진정이 넘쳐나고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가 예약도 하지 않고 어떻게 차표를 샀으며 그 중요한 사업은 어떻게 뒤로 미루고 왔는가를 더 묻지 않았다. 수십년력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우정으로 넘친 상봉의 밀바탕에는 얼마나 뜨겁고 가슴치는 사연이 숨배여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우리였다.

중국방문의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전우들에게

김종백

물어보자 전우들아!  
위훈의 전호가에 섰던 그날이  
사선을 넘고넘던 적후의 밤길이  
세월이 흘러서만  
자랑스럽게 추억되는가를

그것은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죽음의 지뢰원을 기어이 넘었고  
아찔한 벼랑도 애써 올랐기때문  
모든 어려움을 이겼기때문

이겨서 얻은 영예  
그것이 우리것이 아니었다면  
적후의 찬눈우에 잠들던 밤이  
오늘도 우리 몸을 얼कु리  
한개의 주먹밥 열이 나누던  
눈길속의 굶주림이 삶에 깃들리

고요가 깃든  
봄밤의 보슬비소리

따스한 요람에 안긴  
아기의 불웃음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으로 되지 못하리

우리 목숨 열백번 잃어도  
오직 하나 얻어야 할것은  
승리자의 영예  
그것이 있다면 고생도 락이 되고  
죽음도 영생으로 빛나리  
사랑은 꽃이 피고  
우정은 마를줄 모르는 깨끗한 샘물이 되리

이기자, 이겨내자  
아픔도 어려움도  
놀랍게 다가서는 시련의 폭풍앞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도

하여 온 세계와 맞먹는  
하나를 얻자  
승리자의 영예를!

##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와 가사창작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리수립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최근에 창작한 노래가운데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묘사한 딱딱한 노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를 배우들은 잘 부르지만 인민들은 부르기 힘들어합니다. 물론 시나 가사는 함축된 형상속에 심오한 사상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작품의 사상이 생활에 바탕을 두고 생활속에서 흘러나와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생활과 동떨어져서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습니다. 생활이 있어야 예술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깊이있고 풍부하게 그려야 작품의 철학적깊이가 보장될수 있습니다.》

시와 가사를 생활적인것과 철학적인것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창작하는것은 생활의 철학으로서의 시가문학의 인간학적 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형상의 근본요구이다. 서정의 문학인 시가창작에서 정서와 열정을 생활적이면서 철학적 깊이를 가진 감정으로 부각하여야 산 인간의 감정세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표현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사상정서생활을 참답게 이끌어줄수 있다.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와 가사라야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두고두고 불리워질수 있다. 생활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담은 시와 가사는 대중들에게 쉽사리 이해되고 공감을 받을수 있으며 세월과 세월을 넘어 오래도록 애송되게 된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군인들과 후방인민들의 생활감정을 현란한 시어나 철학적인 문구를 쓰지 않으면서 소박하고 진실하고 깊이있게 노래한 《전호숙의 나의 노래》(심봉원), 《아무도 몰라》(정서촌), 《샘물터에서》(최로사)와 같은 전시가 요들을 그 대표적인 레로 들수 있다. 생활적인 형상속에 사랑하는 조국과 생활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담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전쟁의 포연이 가셔진지 3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노래들을 즐겨부르며 거기에서 삶에 대한 희열과 투쟁에 대한신심을 얻고있다.

시가문학에서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의 가사를 창작하는것은 오늘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고 풍부하게 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묘사한 딱딱한 시와 노래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생경하고 까다로

운 형상으로 하여 일련의 시가작품들은 대중들속에서 건인력과 감화력을 상실하고있다.

철학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가문학이 담아야 할 철학은 생활의 철학이며 그것은 혁명적인 생활속에 정서적인 형태로 존재하고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쓴다고 하면서 생활을 도외시하고 생활적으로 쓴다고 하면서 정서의 깊이를 놓치는것이 오늘 일반적인 결함으로 되고있다. 생활을 노래하며 그것을 정서적으로 깊이 추구한 시와 가사, 생활의 진리를 생활적인 감정으로 느끼게 하는 시와 가사들이 너무나도 적다.

물론 시인과 생활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따라 시와 가사의 양상은 다양할수 있다. 그러나 양상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생활이 철학을 안아오지 못하고 철학이 생활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시로서는 죽음이다. 생활이 있고 정서적깊이가 있는 시만이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친숙한 생활의 길동무로 될수 있다.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와 가사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시가문학의 교양자적 사명과 혁명적 기능을 더욱 높이 발양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 1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와 가사를 창작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생활을 풍만하게 노래하면서 깊이가 안겨오는 시와 가사를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생활적인 양상의 시와 가사에서 생활과 철학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참신하고 감흥을 주는 생활을 담은 문제와 생활감정의 깊이를 철저히 생활적인 형식으로 천명하는 문제이다. 시와 가사에 담긴 생활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생활적인것이 깊은 세계를 느끼게 하는 바로 여기에 생활적인 시와 가사에서 창작의 기본과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주되는 결함은 상식적인 생활과 생경한 정치해설로써 시와 가사를 따분하게 꾸리는 현상이다. 생활은 있으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상식으로 되여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따분한 생활을 되풀이하며 더우기 그것을 정치상식의 견지에서 해설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엮어나가는 현상들이 적지 않다.

시와 가사에 생활을 형상하는 목적은 생동하고 참신한 생활정서로써 작품의 정서적 견인력과 감화력을 얻어내게 하는 데 있다. 상식적인 생활은 그 일반성, 류형성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작용하는 힘과 매력을 잃은 생활아닌 《생활》이다.

최근에 창작된 농촌주제의 시들을 놓고 보아도 토지개혁을 노래하는 시에서 분여지의 흙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는다거나 로적가리를 쌓아놓고 애국미를 바칠 생각에 밤을 새우는 등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로 될 것이다. 3대혁명소조원을 노래한 시들에서 남보다 일에 앞장서는 생활을 엿비슷하게 펼쳐놓던 것이나 최근시기 적지않게 창작되는 탄부들을 노래하는 시들이 대체로 땅속깊이 들어가는 입갱장면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 또한 그러한 예로 된다.

이러한 생활들은 독자들이 이미 같은 주제의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시와 가사들에서 흔히 보아 온 것으로서 이제 시적 가치를 잃고 있다. 시적인 의의를 가지는 생활이란 참신한 생활이며 정서적 감흥을 주는 생활이다. 비반복성과 정서성, 이것이 생활과 시적인 세부를 탐색하는데서 우리의 기본과제로 나서야 한다. 시적인 의의를 가지는 생활은 언제나 투쟁의 한복판에, 혁명적 생활의 주류에 있는 생활이다. 참신하고 개성적인 생활이라고 하여 그것을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영역에서 벗어나 변두리에서 찾아서는 의의가 없다. 생활의 시적인 참신성은 우리 현실의 주류에서 시인이 개성적인 감각으로 탐색한 특징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가사 《전호숙의 나의 노래》나 《아무도 몰라》와 같은 작품에 담겨진 생활이 강한 인상을 주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도 그것이 미제를 쳐부시는 가렬한 전투장과 전선을 지원하는 후방의 로력전선이라는 투쟁의 기본마당에서 탐구된 개성적인 생활이라는데 있다. 가렬한 전투의 찰시간에 전호에 기대여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전사의 생활이며 김매던 밭머리에서 전선에 나간 애인의 편지를 받고 기쁨에 넘치는 처녀의 생활, 이 모든 것은 투쟁속에서 찾은 특징적인 생활이며 투쟁속에서 개성적으로 탐색된 생활세부들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인들로 하여금 대건설행군으로 들끓는 투쟁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이며 특징적인 생활을 찾아내어 시와 가사의 형상세계를 더욱 인상깊고 풍부한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시와 가사에 담아야 할 생활은 참신하고 개성적인 것으로 되어야 할뿐 아니라 풍부한 정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가 풍부한 생활이란 우리 시대 인간들의 기백있고 고상하며 발랄한 감정을 넘쳐나게 담은 정서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전시가요 《샘물터에서》가 담고있는 생활을 두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샘물터에서 처녀와 병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발랄하고 약동적인 생활에는 전쟁의 시련도 억누르지 못한 군민이 하나로 엮힌 삶의 정서가 충만되어 있다. 군대를 아끼고 지성껏 도와나서는 처녀-서정적 주인공의 가락하고 활달한 생활감정에는 전쟁의 포화를 짓누르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신념에 찬 약동하는 정서세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의 시가문학에서 이러한 생활세계를 너무나도 적게 본다. 우리의 시와 가사들에 반영된 생활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점잖은 일면으로만 나가고 있는가 하면 요란하고 기백이 강한 일면으로만 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주목되어야 할 것은 지난날 《일터의 휴식》, 《최령감님 평양구경》, 《웃음꽃이 만발했네》와 같은 가사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락천적이고 약동적이며 낭만적인 생활, 웃음과 해학이 넘쳐나는 생활들이 최근시기에 매우 드물어진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고무하고 흥분시키는 보다 씩씩하고 락천적인 생활을 담은 시와 가사가 더욱 많이 요구된다.

오늘의 투쟁속에서 감명깊고 독특한 생활을 찾아서 그것을 통하여 인민들의 정서생활에 기백있고 고상하며 약동하는 세계를 풍만하게 안겨줄 때 시와 가사는 큰몫을 하게 될 것이다.

생활을 탐구하는 문제와 함께 생활적인 양상에 맞게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이 문제해결의 기본고리는 생활의 정서적 깊이를 보장하는데 있다. 생활을 찾고 생활적인데서 시적 계기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할뿐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계기를 해명하는 과정에 생활의 구체성, 비반복성을 튼튼히 견지하는 것이다. 계기의 해명과정은 생활-정서적으로 깊이 이루어져야 시와 가사에 론리적인 심도가 아니라 정서적 심도가 보장될 수 있으며 형상의 철학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는 시가작품들은 생활을 정서적으로 해명하는데 품을 들일 대신 생활 그자체를 감각적인 표상으로 전달하는데 그치고말거나 여기에 개념적인 해설과 직선적인 구호를 결부시킴으로써 철학적 깊이를 생활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은 개념적인 해설과 정치적 구호를 기계적으로 결부시키는 경향이다. 이것은 탐구된 생활마저도 빛을 잃게 하고 생활적인 양상을 파괴하며 서정성을 거세한다.

생활이 주는 정서적 감흥의 근저에서 사상정신적인 깊이를 밝혀내면서 그 사상정신적인 것을 다시 정서적인 것으로 환원시켜 열정의 형식으로 생활정

서의 정수를 천명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중요한 문제는 생활에 대한 섬세하고 풍부한 감각을 열정으로 승화시켜 강렬하고 심오한 정서를 부각하는 것이다. 정서의 깊은 세계를 열어내기 위하여서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감각이 열정으로 이행하는 이 과정, 이 고리에서 생활의 감각적인 요소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작실천은 왕왕 이 고리에서 시인이 감각적인 요소들을 버림으로써 정서적 일반화를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생활정서의 정수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이 환기하여준 섬세하고 풍만한 감각을 열정의 계발에로 고스란히 지향시키고 이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감각적인 것을 열정에 확고히 안반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과 열정의 튼튼한 연관과 결합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생경한 론리의 외적인 투입을 막아낼 수 없고 열정, 다시말하여 정서의 깊이를 생활적인 감정으로 담보할 수 없다.

가사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생활적인 정서로써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게 된 것도 이 고리에서 감정의 생활적인 요소, 생활적인 론리를 확고히 견지한 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번에 인민군협주단에서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라는 노래를 지어왔는데 가사를 구수하게 잘 썼으며 곡도 잘 지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구수하게 잘 쓴 가사라고 하신 말씀은 생활적인 정서를 풍만하고 깊이 있게 부각한 이 작품의 형상적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창작수기에 의하면 가사를 쓴 시인에게서 노래의 대상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공정은 그닥 큰 문제가 아니였다고 한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온 나라에 펼쳐진 금파만경이 그 색채와 향기와 음향에서 시인의 감성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자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절의 4 행은 쉽게 씌여질 수 있었다.

하늘엔 파사론 해빛넘치고  
땅우엔 금나락 설레이네  
농장벌 지나던 병사는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네

그러나 이러한 감각적인 생활표상만으로는 깊은 세계를 드러낼 수 없었다.

시인에게 고충을 준 것은 이 섬세하고 풍만한 감각을 강렬하고 심오한 열정의 천명으로 떠밀어야 할 다음의 공정이었다. 생활에 대한 섬세하고 풍만한 감각은 마땅히 생활에 대한 강렬하고 심오한 열

정으로 승화되어야 하였으며 이 과정을 개념적인 론리의 투입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정서의 감각적인 형식으로 마무리야만 정서의 깊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었다. 시인은 다시 현지로 나갔으며 모대김의 나날에 한 병사의 뜻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자주 이 농장벌을 지나가는데 가끔 벼포기들이 아지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농장벌에서 조국을 지켜선 병사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소리가 어데 있겠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농촌지원전투에 나가서 한포기한포기 모를 심고 김을 땀 때 우리는 그 벼포기들이 어서 자라나 우리의 부모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조국의 기쁨이 되어 농사일에 대하여 그토록 걱정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자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꾸밈도 없이 자신의 생활감정을 토로하는 병사의 말을 듣는 순간 시인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 풍년벌에 파도치는 벼이삭의 설레이는 그 어떤 자연계의 음악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심혈을 기울이시며 가꾸어오신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이며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대한 인민의 송가인 것이다.

그리하여 가사의 형상세계에는 깊은 정서가 울려나오게 되었다.

…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  
병사의 가슴에도 파도쳐오네

…

이 땅에 수령님 베풀어주신  
그 사랑 못잊어 설레이다네

…

가사의 결구들에서 솟아오르는 시인의 열정, 그것은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생활적인 느낌을 고스란히 안고 그 심오한 깊이를 울려주는 철학의 세계이다.

생활정서의 깊이를 탐구하는데서 이것이 귀중하다. 설레이며 파도치는 벼이삭들의 현실적인 음향속에서 인민의 기쁨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그 사랑에 끝없이 감사드리시는 인민의 진정을 생활적으로 한껏 무르익혀 울려주는 이 시의 형상적 성과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이것이 생활감정의 정수이며 생활과 철학의 통일인 것이다.

이 가사의 창작경험은 생활에 대한 개성적이며 구체적인 감각을 열정으로 지향시켜 정서의 깊이를 생활적으로 열어내는 것이 정서적 일반화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임을 깨우쳐준다.

정서적 감흥이 시적인 열정으로 승화되지 않아 모대길 때 시인은 책상앞에 앉아 머리속에서 개념적인 말마디를 꾸며내며 덧붙이는 놀음을 하지 않



았다. 그는 바로 자기에게 정서적 감흥을 준 그 생활에 다시 더 깊이 들어갔으며 생활의 주인공들과 함께 정서도 열정도 모두 무르익혀내기 위하여 애썼다. 만약 이 계기에서 생활을 떠났더라면 개념적인 말마디를 첨가하는 결과를 피할수 없었을것이다. 시인이 생활속에 들어간다는것은 생활의 주인인 자기의 서정적 주인공들의 생활감정을 깊이 파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대중의 목소리가 그 어떤 격식도 추상적인 론리도 없는 생활의 진실한 목소리이기때문이며 생활의 목소리로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주기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대중의 목소리가 가지는 시적인 가치와 매력이 있다.

우리는 창작가들이 해주혁명학원에 나가서 창작한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에서도 온 나라사람들이 친형제로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혈연적이고 가정적인 생활정서가 열정의 깊이를 천명하는데 확고히 안반침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혈연적이고 가정적인 생활정서에서 감정의 정수를 천명함으로써 가사는 정서의 깊이를 생활적으로 담보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아버지로, 영광스러운 당의 품을 우리모두의 집으로 노래하는 심장의 목소리는 참으로 생활적인 동시에 철학적인 깊이를 안고있다. 명작들의 성과와 경험은 한결같이 생활에 대한 감각과 열정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풍부한 서정성을 얻어내는 과정을 철두철미 생활에 의거하여 생활정서의 깊이를 얻기 위한 지향속에 밀고나갈 때 생활이 담기고 철학이 울리는 시와 가사를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 2

생활과 철학의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시와 가사의 형상을 부각하는 문제는 다른 한편 철학적인 양상의 시가문학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철학적이면서 생활적인 느낌을 안겨주는 시와 가사를 쓰는 문제, 다시말하여 생활의 진리를 집약한 철학적인 론리를 생활이 느껴지도록 전개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흔히 형상의 전면에서 생활의 진리를 피력하는 경우 생경하고 무미건조한 론리를 피치 못하리라고 생각하기가 일쑤다. 그러나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이러한 생각과는 얼마나 판이하게 형상을 창조하였는가.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흩이 되어 뿌릴 덮어주리라  
...

이 가사에서 사람들은 조국과 인생에 관한 심오한 철학을 참으로 생신한 생활적 감각과 강렬한 정

서적 충격속에 받아안는다. 가사는 무엇보다먼저 철학적인 시와 가사창작에서 불가피한것으로 생각되던 생경하고 난해한 론리의 구사를 완전히 걷어내고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가장 생활적이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천명해내고있다.

누구나 볼수 있듯이 가사에는 모호하고 어려운 개념과 표현이 없으며 형상은 선명한 생활적 표상으로 투철하다. 여기에는 계절의 움직임에 따르는 나무와 잎사귀의 자연스러운 관계, 유기체의 운동에 따르는 심장과 피방울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을뿐이며 그것이 깊은 뜻을 천명하는 방향으로 부각되어있다. 까다롭거나 아리송한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가장 생활적이고 통속적인것이 가장 심오한 론리를 표현하고있는것이다.

가사가 보여준 긍정적 경험은 또한 생활의 참된 진리를 커다란 힘을 가진 정서적 화폭과 하나로 결합시켜 전개한것이다. 가사의 근저에는 조국을 위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철학적인 론리가 움직이고있다. 시인은 자기의 모든것을 삶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바치는것이 가장 고귀하고 참된 삶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무미건조한 개념적 추구나 론증의 방식으로 전개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체현자의 숭고한 내면을 정서적으로 예리하게 강조하는 특징적인 화폭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실현하고있다.

하기에 인간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그리지 않은이 가사의 화폭에서 인간의 숨결을 느끼면서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세계를 련상하며 강렬한 정서적 흥분을 체험한다. 중요한것은 철학적 양상을 가진 시와 가사의 화폭이 철학적 론리를 실무적으로 도해하는 화폭이 될것이 아니라 철학을 체현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과 의지를 감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집약적이면서 련상작용이 강한 정서적 화폭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세찬 바람 불어와 떨어질 때에조차 탄곳이 아니라 자기를 피워준 나무의 뿌리를 덮어주는 흙이 되기 위하여 뿌리우에 떨어지고야마는 잎사귀의 형상, 여기에는 자기의 청춘을 조국 위해 아낌없이 바치는 인간의 정신과 의지가 뜨겁게 배여있다.

이 가사가 보여준 긍정적인 경험에 비추어 창작 실천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성과도 있지만 극복해야 할 결함들이 적지 않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것은 철학적인 양상의 시와 가사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람용함으로써 생활적 형상을 거세하는 현상이다.

일련의 시와 가사들은 철학성문제를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개념적인 말마디들로 굵매려는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운명》이라는 어휘, 《인생》이나 《삶》이라는 어휘, 《심장》, 《생명》, 《넋》, 《존엄》이라는 어휘들이 가사에 적지 않게

람용되고있는것을 그러한 레로 들수 있다. 당을 노래하는 가사들이 어머니라는 형상적 비유에 철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명》이라는 어휘를 적지않게 쓰고있는것은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지어 개념적인 어휘들을 가지고 난삽하고 애매한 어휘결합들까지도 만들어내고있는데 때로는 그 의미를 알수 없는 《생명의 녀》이라는 단어결합까지도 나오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지난 시기 가사문학에서 정치적 표현을 직선적으로, 구호식으로 인입하여 서정성과 철학성을 거세하는 경향이 많았다면 오늘에는 그것이 양상을 달리하여 철학적인 개념을 무력대고 인입하여 서정성도 철학성도 다같이 마비시키는 다른 하나의 그릇된 경향으로 바뀌여지고있다. 시가문학의 철학성은 결코 철학적인 용어나 개념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에 의존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감정의 정수를 통하여 생활의 진리를 표현하는 시적 일반화의 심도에 의존되는 문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적 일반화의 무기나 그 어떤 추상적 개념도 모두 구체적인 생활정서로써 천명해낼수 있는 위력한 수단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일부 시인들속에서는 철학적인 논리를 생활적으로 표현하는 데서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데로부터 철학적 양상의 시가창작에서 개념적인 용어들을 쓰는것을 불가피한 일로 생각하며 추상화, 개념화된 형상을 자기위안하거나 변명하는 현상도 은연중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매우 그릇된 관점과 태도로 된다. 개성화와 일반화의 유기적 통일이라는 위력한 수단은 그 어떤 추상적인 내용도 구체적이며 생동한 생활과 정서로써 표현할수 있는 만능의 형상무기이다.

여기에 하나의 시구절이 있다.

...

그대 믿음 하나면 더는 바랄것 없기에  
그대 품에 안겨사는  
꾸지람도 좋았고 아픈 때도 고마웠다.  
오직 그대만이 끝까지 들어주는 이야기가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대 창문을 마주 향해 열리는  
내 마음의 하늘은 티없이 맑았다.

...

(시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김철)중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 구절에서 《오직 그대만이 끝까지 들어주는 이야기가 있어》라는 하나의 세부에 주목을 돌리자. 참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성공한 표현이다. 이 간결한 생활적 표현에는 한 인간의 운명, 아니 온 생애가 비껴있는듯싶다. 이러한 운명적인 느낌속에 우리 당의 위대하고 자애로운 품이 참으로 방불하고 절절하게 표현되었다. 당을 자기 운명의 어머니로 노래하는 시인의 느낌,

천만마디말로써도, 그 어떤 추상화된 개념으로서도 표현할수 없는 운명적인 느낌이 《운명》이라는 말 한마디 쓰지 않고 여기에 생활정서적으로 함축되어 표현된것이다. 이 하나의 레는 문제가 철학적인 양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심오한 정서적 일반화의 부족, 생활탐구의 빈곤에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철학적인 양상의 시와 가사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람용하는 경향과 함께 형상적 비유를 논리의 실무적인 도해에 귀착시키거나 생활을 떠나 주관적이며 난삽한 형상으로 끌고가는 경향도 지적되어야 한다. 철학적 양상의 시가문학에서는 흔히 생활의 진리를 생활적으로 표현할 목적밑에 형상적 비유나 상징의 수법에 의거한다.

물론 비유나 상징이 시적 일반화에 옹계 활용되면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에서와 같은 훌륭한 철학적 형상을 낳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과 떨어져 생경한 논리를 도해하며 분식하는 수단으로 되거나 시적 일반화의 허약성을 가리우기 위한 방편으로 리용될 때 형상에 역작용하게 된다.

상징의 수법이 생활을 떠날 때 추상성을 가져온다. 철학적 양상의 시가문학창작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눈에 띄우고있는바 주목되는것은 상징이나 비유를 논리의 도해수단으로, 개념적 논리에 형상의 옷을 입히는 서투른 방편으로 리용하는 현상이다. 이 경우 형상은 생경해지고 무미건조해지기가 일쑤이며 생활의 논리를 타지 못한 공연한 비유적 꾸밈새로 하여 착잡해지기가 일쑤이다. 하나의 레를 들자.

...

청춘의 가슴속에 남몰래 뛰는  
심장의 속삭임은 무슨 뜻인가  
목숨도 아낌없이 길이 지키리  
고마운 조국에 알리는 뜻이지

심장의 목소리를 조국은 알아  
보람찬 인생길로 나를 이끄네  
날 때부터 변함없는 그 심장 있어  
어머니조국은 날 불러준다네  
아들아 내 아들이 날 불러준다네  
(가사 《심장의 고동소리》 (장문필)중에서)

이 가사는 혁명적 의리에 관한 철학적 논리를 도해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인 비유로서 착잡하게 엮어놓고있다. 심장-나와 어머니-조국사이에 심장의 고동소리를 통하여 그 무슨 뜻깊은 대화가 진행되는 매우 아리송한 의인화를 통하여 시인이 말하려고 한것은 조국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인듯싶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이 논리가 정서적 형상을 거침이 없이 단순히 고동소리-대화의 형식으로 실무적으로 도해되고 설명되어있다. 여기서 심장의 고동소리란 형상의

외피일뿐 생활적 형상으로 되지 못한것이다. 그것은 여기에 우리 시대 인간의 정신과 의지가 인상깊이 느껴질만한 생활정서가 깃들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오히려 고동소리-대화의 비유적 형식은 내용을 착잡하게, 아리송하게 만들어놓았을뿐이다. 여기서 비유는 개념적 논리의 단순한 도해를 가리우기 위한 방편으로 씌여지면서 생활을 떠나 그자체로서 분석되는 과정에 오히려 형상의 애매성, 논리의 모호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가사의 3절은 논리의 모호성을 질게 드러내고있다. 《심장의 목소리를 조국은 알아 보람찬 인생길로 나를 이끄네》라는 구절은 마치도 전체 인민이 아니라 의리에 대한 높은 자각을 지닌 사람들만을 조국이 이끌어주는듯이 표현하고있으며 지어 《날 때부터 변함없는 그 심장있어》라는 구절에서는 혁명적 의리의 감정이 그 어떤 선천적인것인듯한 인상까지도 주고있다.

이 가사는 비유와 상징으로 개념적인 논리를 도해하면서 생경한 도해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로 리용할 때 생활을 떠난 비유적 형상 그자체의 분석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는 형상의 모호하고 애매한 것으로 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신중한 교훈을 주고있다.

그러면 문제해결의 근본고리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생활의 진리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인 체험에 있다. 비유와 상징을 꾸미기에 앞서 자기가 주장하려는 철학적인 진리가 산 인간의 생활감정으로써 자기에게 체험되고 통감된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체험의 기초도 없이 상징이나 비유부터 고르는것은 결국 생경한 논리를 실무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이며 비유적 형상을 차디찬 도해의 무덤으로 착잡하고 모호한 추상의 세계로 끌고가는 근본요인이다. 체험적으로 파악된 진리, 그것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로서 생활적으로 감득된 진리를 의미한다.

## 독자연단

# 생활이 진실하게 안겨옵니다

유찬명은 단편소설 《백양나무 설레는 저녁에》(양해모, 《조선문학》1987년 10호)의 인상깊은 주인공입니다. 저는 내가 바로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으로 불리운것이 어찌지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유찬명 ?!

나는 과연 것처럼 한점의 티도 없이 깨끗한 랑심을 건설장에 바쳐왔던가. ... 정말이지 거울과도 같이 자기를 비쳐보게 되는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단편소설 《백양나무 설레는 저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터전을 잡아주시고 대야금기지로 일떠세우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는 여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압연분공장건설장에서 실지 있었던 사실을 무대로 소설화한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이 나오자마자 우리 건설자들의 참된 길

시인은 자신에게 체험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그 어떤 철학도 시형상에 옮겨서는 안되며 비유적 형상을 부각함에 있어서도 그 형상적 초점을 해당하는 진리의 체현자의 정신과 감정, 의지를 예리하게 부각하는데 두어야 한다. 철학적 양상의 시가작품에서 형상의 기본은 논리의 실무적 도해가 아니라 진리를 안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집약적인 정서적 표현에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건대 생활감을 정서적으로 진하게 주는 철학적인 비유는 결코 머리속에서 꾸밀수 없으며 시인의 정서적 체험의 결과로써만 가능하다. 숭고한 자각과 의지를 지닌 우리 인민의 정신적 미를 구체적인 생활에서 정서적으로 통감할 때라야 그들의 삶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예리하게 집약한 철학적인 비유가 태어날수 있다. 중요한것은 생활속에서 체험하고 통감한 주인공들의 정신과 의지를 형상의 기저에 깔면 그것으로 철학적인 논리를 전개할 때 비유나 상징이 도해나 추상성을 극복하고 철학을 생활적으로 선명하게 안겨주게 된다는데 있다.

생활의 진리에 대한 생활-정서적 체험의 심오성과 철학적 논리와 산 인간의 정신세계의 유기적 결합속에 이루어지는 형상의 심오성, 바로 여기에 문제해결의 근본고리가 있다.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시와 가사는 결코 탁상우에서 쉽사리 나올수 없다.

작은 그릇을 가진 시와 가사에 생활의 진리가 응심깊이 담기게 하려면 시인이 품을 들여야 한다. 한편의 시와 가사를 그 어떤 문학형식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혁명과 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자각하고 심혈을 쏟을 때, 대건설행군으로 들끓는 벽찬 현실의 한복판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깊이 파악할 때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대답하는 훌륭한 작품이 창작될것이다.

동무로 되었으며 자기들의 깨끗한 랑심을 말없이 묵묵히 건설장에 교여가는 그 《유찬명》이가 소설에서만이 아닌 오늘의 현실속에 너무도 많이 살아있는것으로 하여 더 친근해진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깨끗한 랑심을 지닌 수많은 《유찬명》이들에 의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단계확장공사는 제기일에 어김없이 끝내게 되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전으로 충성의 보고를 올리게 된것입니다.

단편소설 《백양나무 설레는 저녁에》는 확실히 들끓는 현실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박용문

## 과학자의 모습

박창민

평양행 열차는 어둠이 덮인 대지를 누비며 기세 좋게 달렸다.

불빛 환한 열차안에는 행복의 려행길에 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었다.

방송야회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다는 배우들의 앞가슴에 빛나는 훈장과 메달이 불빛을 받아 더욱 눈부신 빛발을 뿌렸다.

손님들은 그들의 즐거운 이야기에 끌려들어가 짜그르르 웃음을 터치곤하였다.

다만 열차에서 만난 나의 대학시절의 옛스승인 과학자 유선생만이 차창에 던진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깊은 탐구의 세계에 가있었다.

열차가 신포역에 들어섰을 때였다.

평양전학을 간다는 소년단원들이 열차에 오르며 법석 떠들어댔다. 힘이 남아돌아가는 시절이라 잠시도 진정할 줄 모른다.

잠시후 소년들은 열차안의 길손들을 둘러보다가 환성을 올렸다.

《아, <땡땡 할아버지> !》

《<박무> !》

《<도라지꽃> 주인공!》

아이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웃고 떠들며 우르르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영화배우들의 얼굴을 모를리가 없었다.

화면에서 자주 낯을 익혀 그들에게는 《구면》이었다.

열차안에 웃음소리가 더 높아졌다.

오직 과학자만이 여전히 자기 세계에 묻혀있었다.

아마도 그를 《무감정가》로 알았는지 내열에 앉은 처녀애가 어딘가 모르계 불만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할아버진 어디까지 가시나요?》

그래도 유철선생은 대답이 없었다. 아직도 자기 세계-과학세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허, 할아버지라니 ! 유명한 과학자선생님을 보고...)

나는 저르기 무안스럽고 바빠맞아 처녀애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뭐냐, 유명한 과학자 유철선생이다.》

《유철선생님 ? ...》

호기심어린 아이들의 눈길이 일시에 《할아버지》에게로 쏠렸다. 아이들은 다시금 환성을 올렸다.

그 이름이 귀에 익었던것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로과학자의 얼굴을 알아볼리가 없었다.

새별같은 눈동자들이 자기를 지켜보건만 한생을 과학탐구의 사색속에 살아가는 이 과학자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로과학자 유선생 !

금시 존경과 경의의 감정이 가슴가득 솟구쳐올랐다. 볼수록 돋보이는 과학자의 모습이였다.

저 과학자야말로 얼마나 조국앞에 큰 일을 해놓은 성실한 사람인가.

그의 삶은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불타는 열정과 고충, 진정과 깨끗한 양심으로 수놓아져있다.

그는 얼마전에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에서 크게 기여할 중요한 발명을 하고 새로운 과학세계의 비밀의 열쇠를 쥐려고 현지를 돌아보고 오는길이였다.

참으로 유선생은 한생을 과학탐구를 위한 길에 바쳐왔다.

남들이 단잠을 자는 깊은밤에, 아차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빚어낼수 있는 일각이 천추같은 시운전의 로앞에서 가슴을 조이기도 하였다.

때로는 수백번재의 실패에서 오는 락심으로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을 잃은채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를 또다시 일떠세운것은 과학탐구의 보람찬 전선으로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과학자의 량심과 혁명적 신념이였다.

시대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안고 과학탐구의 길에 흥안의 젊은 시절도, 중년시절도 다 바치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청춘의 기백을 안고 분투하는 유선생.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구상을 현실로 펼쳐가는 저렇듯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어 돌에서 실을 뽑아 천을 짜고 날아나는 굴뚝연기를 잡아 회유금속을 뽑아내며 새로운 만풍년의 씨앗을 뿌리는것이 아닌가.

나는 취재차로 조국의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어델 가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날수 있겠다.

로앞에 가면 로운전공이 되어 보호안경을 끼고 새로운 용해법을 연구하는 그들을 보았고 공장에 가면 만사람의 관심속에 새로 만든 기계를 시운전하는 그들을 보았다. 농촌에 가면 시험포전에서 밤을 새우는 그들을 보았고 대건설장에 가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주는 미더운 그들을 보았다.

저런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어 거창한 창조물들이 땅에 수풀처럼 솟아오르고 저런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어 우리 당의 혁명적 열정과 철의 의지가 과학의 열매로 주렁져 조국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높은 봉우리로 힘차게 치달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과학탐구의 초소에 스스로 자신들을 세우고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한생을 열정속에 바쳐가는 사람들!

당과 국가에서는 그들의 숨은 노력과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며 분에 넘치는 영광과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꽃방석이 아니라 금방석을 깔아주고 싶다는 내용의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 믿음,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오늘과 같은 과학자대부대를 키워 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 수필

# 고마운 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생을 살아갈 때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품이 없다면 인생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버림받기마련이다.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했고 설사 나라가 있다고 해도 참다운 제도가 아니면 불행한 삶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백방으로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나는 그것을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조국의 명예를 떨치고 돌아온 한 레스링선수를 취재하면서 더욱 절실히 느꼈다.

그는 여러차례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세계의 금메달을 쟁취한 경량급의 전도유망한 선수였다. 몸매가 날파람있어보이고 근육이 강편처럼 단단하

서 가리키시는 더 높은 과학의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어느덧 열차는 평성역에 들어섰다.

로과학자가 내렸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 나를 싣고 손님들을 싣고 열차는 천천히 역구내를 벗어났다.

차창으로 불밝은 과학도시 평성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 어느 다층주택, 그 어느 연구소의 창문에도 불빛이 흐른다. 밝게 흐른다.

《과학도시가 다른데. 보라구. 불꺼진 창문이 하나 있는가.》

《과학탐구의 불빛이지.》

《우리 과학의 래일을 밝혀주는 불빛이지.》

손님들이 불밝은 거리를 내다보며 하는 말이였다.

나의 눈앞에는 새로운 과학의 성문을 열어제길 탐구의 열쇠를 마련하러 연구소로 들어서는 로과학자 유철선생의 모습이 사라질줄 몰랐다.

## 송준

게 생긴 박동무는 내가 찾아온 사유를 듣자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의 경기에 대해서야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조국에서 살 때는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내 조국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긴 행복에 잠겨 살면 그 고마움을 다 모를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외국사람들과 접촉하며 그들의 생활을 알게 될수록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우월하며 은혜로운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싶었다. 박동무는 나의 심정을 알아차린듯 창밖에 눈길을 보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중해 기슭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세계 각국 선수들의 레스링경기가 진행되고있었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당의 주체적인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투지전》, 《기술전》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련속 승리의 전과를 올리고있었다.

기름같은 지중해의 물결이 기슭을 써는 어느날 저녁이었다. 하루 경기를 끝낸 각국 선수들은 호텔의 마당과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 나라 선수들도 정원을 거닐며 경기에서 이긴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런데 외진 나무밑 의자에 한 외국선수가 홀로 앉아 얼굴을 싸쥐고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간 박동무는 그가 준결승 경기에서 패한 남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 선수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절망에 잠겨 몸부림치고있었다. 불시에 동정심이 든 박동무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웬일인가고 물었다. 그 선수는 초점 없는 눈길로 박동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난 망했소. 아, 목을 조일 훈련비, 내 누이동생 넬리의 학비 ! ...》

그는 끝내 눈물을 주르르 흘리었다. 박동무는 그만 그 정상이 딱하고 측은해서 한동안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재차 물었다.

《훈련비란 뭐요? 그래 돈을 내면서 훈련을 한단 말이요?》

학교를 다닐 때 학비라는 말조차 몰랐고 훈련을 하면서도 영양제를 공급받고 생활비를 받아오면서 살아온 박동무로서는 그의 말을 이해할수가 없었다.. 그러나 더욱 놀라는것은 그 외국선수였다.

《누가 훈련을 공짜로 시켜준단말이요? 경기에서 졌으니 빗진 훈련비는 갚을 길이 없구 길거리에 쫓겨나게 됐소.》

《아니 당신이야 나라의 영예를 위해 훈련하고 경기를 하지 않소?》

박동무는 점점 의혹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나를 위해 경기를 하는거요. 나라가 무슨 상관이요? 내가 경기에서 지면 오히려 나라가 나에게 그 보상을 요구한단말이요.》

외국선수는 주먹으로 의자를 탕 치며 울분을 터트리었다.

《?! ...》

박동무는 비로소 자본주의사회 선수들의 운명을 이해할수 있었다. 참으로 억이 막힌 일이었다. 인민을 돌보지 않는 사회, 인민이 제도를 저주하는 사회, 과연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런 사회의 억압속에서 인간의 존엄이 또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고있는가.

박동무는 문득 아득한 별빛아래에 있는 조국이 그리웠다. 누구나 화목하고 한 형제처럼 사는 내 나

라, 식의주의 걱정이 없이 세상에 부러움 모르고 행복을 누리는 내 조국 !

박동무는 그날 저녁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체육인으로 활동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느끼며 조국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억세게 싸울것을 결심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마음도 숙연해졌다. 경기에서 진것으로 하여 인생이 파멸된 자본주의나라 선수, 이것이 어찌 남아메리카의 한 나라 선수의 처지만이라, 공화국남반부의 체육인들의 처지는 더욱 참혹한것이다.

언젠가 나는 신문에서 남반부의 체육선수들이 해외에 경기를 하러 갔다가 러비가 떨어져 돌아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사연을 읽은 생각이 났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

미제침략자들의 발굽밑에 짓눌려 자주권을 잃고 자본주의의 질곡속에서 신음하는 남녘의 겨레들의 비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다. 남반부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날에날마다 피어린 싸움을 벌리고있다.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그렇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이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외국의 벗들은 우리 나라 체육선수들이 그 어떤 경기에서도 세계강자들과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비결이 사회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에 있다고 말하군 한다. 진정한 어머니품-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우리 나라 선수들은 자기의 용맹과 기술, 투지와 창조적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에게는 운명을 책임지고 살피주는 고마운 제도,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는 위대한 품이 있다.

바로 레스링선수인 박동무도 이런 고마운 품이 있기에 세계 강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던것이 아닌가.

## 진지한 생활체험, 그것은 창작의 러전이다

청진에서 시인 주광남동무와 헤어진 우리는 태천수력발전소건설연합기업소에서 현실체험을 하며 창작하고있는 소설가 김성관동무를 찾아 청진-신의주행 열차를 타고 정주청년역에 내린것은 새벽녘이었다. 거기서 다시 정주-구장행 열차를 갈아타고 태천역에 내리니 때는 오후 2시경이다.

열차행군으로 조국땅의 먼 북쪽에서 서쪽으로 달려오느라 어지간히 피곤하였으나 단풍으로 온통 붉게 물든 산밭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기는 우리는 산촌의 경치에 한껏 매혹되었다. 우리의 가슴은 끝없이 상쾌하였다.

퍼그나 가을한 풍요한 논밭들, 논판마다 무독히 쌓여있는 벼단들, 과일들을 실어나르는 자동차들의 바쁜 경적소리, 흥에 겨워 일손을 다그치는 농장원들... 좋은 계절이다.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요.》 우리 일행중 누군가의 말이다.

한 10여리 더 걸어가노라니 저멀리 태천발전소 언저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건설연합기업소입구에서 우리는 한패의 젊은 건설자들과 함께 떠들썩 웃으며 걸어오는 소설가 김성관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우리를 알아본 그는 매우 반가워하였다. 자기를 찾아오게 된 사연을 안 그는 땀도 들일겸 저쪽 풀밭에 가앉자고 우리를 끌었다.

《현실체험이 중요하다는데거야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지요. 그때문에 모든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작한 작품들은 그 질적 수준에서 왜 서로 다른가요. 난 이 문제를 이곳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갔다.

그가 이곳에 와서 건설자들과 함께 얼마동안 생활하는 과정에 그의 자료수첩은 많은 사실과 사건들로 가득찼다. 그만하면 글감을 찾은셈이다. 흡족했다. 그는 서둘러 글을 써내려갔다.

어느날 그는 자기가 쓴 작품의 초고 한개 장을 노동자들앞에서 읽고 의견을 물었다. 건설자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나먹은 한 건설자가 말하였다.

《작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어쩐지 내 마음에 그리 들지 않는다. 우리 수력건설자들이란 일생을 산골에서 산골로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거기서 생활의 락을 찾수다...》

이번에는 젊은 건설자가 말하였다.

《쓸모없이 흘러가는 물이 어디 있는가. 그런곳을 찾으면 바로 여기가 다음번 우리의 일터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지요.》

그 순간 소설가는 머리가 뻥하였다.

자기가 쓴 소설의 그 대목을 다시 읽어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현실체험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으리라.

소설가는 다시 생활속으로 들어갔다. 유람식으로가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고 인내성있게 그들의 생활을 깊이 파들어갔다.

산골에서 산골로만 다니며 일하는 그들, 언뜻 보기에는 도시의 문명과는 인연이 없는듯한 그들의 생활을 파헤쳐보노라니 그들이야말로 인간문명의 첨단을 걷고있었으며 그들은 실제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있었다. 그들과 생활하는 과정에 소설가는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모든것에서 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것과 자기들이 그 무거운 임무를 영예롭게 해내는 과학기술발전의 첨단의 건설자라는 한없는 긍지가 높뛰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건설자들이기에 태천발전소언저를 세우는 언제블로크타입에서 미끄럼식 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세계언제건설력사에서 새로운 과문을 일으켜놓았던것이다.

《현실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생활도, 열정도, 재능도 다 안겨주는 비옥한 토양이며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지요. 이 과정에 나도 장편소설 <대령강>(가제)의 초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벌써 어두워오는군요. 산촌의 저녁이니까...》

우리는 소설가가 생활하고있는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본사기자

## 그 웃음속엔...

김덕선

우리 옆집에 사는  
연구사동무  
늘 생각깊은 얼굴이여라

어찌다 출근길에서 만나면  
묵묵히 생각에 잠겨 걸던 그  
나의 인사도 뒤미처 받으며  
언뜻 반기는 웃음속에도  
깊은 사색이 깃들어있었어라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던 불빛  
창가에 오래도록 비껴오더니  
내가 온 가족과 웃으며  
유원지로 가던 휴식날에도  
방금 들길을 헤쳐오는듯  
그의 옷자락엔 이슬이 젖어있었어라

그럴 때면 나는 진정  
그의 팔을 이끌고싶었어라  
웃음이 넘치는 유희장  
관성차에도 함께 몸을 싣자고  
우리 함께 기념사진도 남겨보자고,

이렇게 날과 달이 흐르기토  
그 몇해...  
그를 만난적 다 기억 못해도  
잊을수 없는 그의 모습  
나는 보았어라

우리 수령님 모시고 찍은  
숨은 공로자들의 사진속에  
환히 웃고있는  
연구사의 그 얼굴 !

그때 나는 알았어라  
늘 생각깊던 그 얼굴  
무엇을 바라고있었던지  
어찌하여 수월히 웃을수 없었던지...

그때 나는 알았어라  
웃음도 기쁨도 많은 시절  
어찌하여 청춘을  
탐구의 나날속에 바쳤는지

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린  
오늘에야  
오늘에야 그는 한껏 웃으며  
세상사람들에게 말해주나니

그 얼굴에 비낀 웃음은  
한순간이여도  
그 웃음속엔  
인간이 한생에 웃어야 할  
그 웃음이 다 있었어라

그 웃음속엔  
인간이 한생에 느껴야 할  
그 기쁨이 다 있었어라

## 호박잎에 비물이 구을 때면

한정규

생각도 많소  
룩칠월 장마  
마당에선 방울방울  
호박잎에 비물이 구으는데  
부엌에선 짜락짜락  
저녁 쌀 씻는 소리

생각도 많소  
꽃우산 쓰고  
사출장화 신고  
학교에서 들에서 돌아오는  
아들딸들 고운 모습

오, 지금이 어느때인가  
옛날에야  
호박잎에 비물이 구을 때면  
오곡은 아직 익지 않은 푸른 계절이여서가 아니라  
착취와 억압 속에  
가난의 설움에 젖던 계절

술에는 안칠게 없고  
아궁엔 지필چه 없어  
어머니는 숨결마다 한숨 짓고  
아버지의 대통에선 밤새 대편이 끓던 때



우장 샷샷도 없이  
호박잎 하나 머리위에 쓰고  
지주집 소치다 돌아온 저녁이면  
호박죽 한사발 앞에 놓고 바라보던  
끓어질듯말듯한 그날의 호박줄은  
마치도 우리 식술의 명줄이었던지

하얀 입쌀 폭폭 퍼내어 씻는  
부엌의 머느리야 알기나 할가  
호박잎에 비물이 구울 때면  
가고싶은 외가집도 가지 못했고  
반가운 손님앞에도 죽물만 떠놔야 했던걸

모르면 아니되리  
참말이지 지금이야  
호박잎에 비물이 구울 때면  
사출장화 발맞춰 신는 때여도  
쫓우산 색맞춰 쓰는 때여도

오, 눈굽은 찌릿이 젖어온다  
비야 오던말던  
들에서 농사짓는 기계소리에  
행복의 속삭임처럼  
부엌에서 찌락찌락 쌀씻는 소리에

호박잎에 비물이 구울고  
가슴엔 고마움만 끓어  
풀거름 한단이라도 더 베고싶고  
논김 한포기라도 더 잡고싶어  
별로만 향해지는 이 마음

아, 어제날을 못잊어  
오늘날  
호박잎에 비물이 구울 때면  
가슴은 고마움에 한껏 젖는 때여라  
일하고 일해도 더 일하고싶은 때여라

## 병사의 한생

방만필

내 철들자 군복입고  
전호가에 서던 일 어제같은데  
이제는 어깨에 금빛 건장을 엮고  
귀밑머리도 희여졌구나

허나  
푸른 군복과 함께  
마음도 푸른 시절  
한생을 늙을수 없는  
영원한 나의 병사시절은  
앞으로만 있어라

그때문에  
레사로운 날에도  
저도 몰래 빨라지는 걸음걸이  
한생을 구렁속에 사는  
습관된 걸음새라고도 말할수 있으리

허나  
그렇게만은 생각지 말라  
다그치는 걸음걸이가  
군인의 본성적 습관은 아니여라  
심장이 불타지 않고서야  
어이 한생을 바빠 살라

지금도 그러하리  
200 일전투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어찌 잠시나마 발걸음 늦추라

그 벅찼던 나날의 매 순간처럼  
오늘도 심장은 나를 재촉하나니

돌이켜보면 생각도 깊어라  
준엄했던 전화의 나날  
불속에서도 타지 않고  
결전의 언덕에 피를 뿌리며  
조국 위해 포연속을 달릴줄 알았기에

빈터우에서 다시 신들메를 조이고  
복구전설전투의 행군길 다시 떠났고  
파도 사납던 20 리 날바다우에서도  
내 당의령도를 심장으로 받들어  
날바다속에도 자욱을 찍었기에

달려온 나날 하많은 전투에서  
앞가슴에 훈장이 늘었다고  
그것만을 어루만지며 만족을 느낄  
그런 순간은 나와 인연이 없나니  
병사의 발걸음은 전투의 순간순간으로  
한생을 이끌어가는 투쟁의 자욱

오, 병사의 한생  
언제나 푸른 군복속에  
하늘가에 피어나는 아침노을처럼  
마음이 불타는  
영원한 투쟁의 시절이어

##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10 회)

###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언제나 독창적인 창작의 길을 열어 나가면서 매번 새로운것을 찾아내야 한다.》

(《영화예술론》, 128 페이지)

작가가 생활을 관찰하고 형상하는데서 자기 식의 특성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생활을 제 눈으로 보고 자기 주장대로 그려내야 한다. 생활을 제 눈으로 보고 자기 주장대로 표현한것은 곧 새로운것으로 된다.

시작품에서 새로운 발견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남다른 느낌이 있고 자기다운 주장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인에 의하여 발견된 새것은 언제나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속에서만 살아나게 된다. 느낌이 남다르고 주장이 자기다운것일수록 새것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것을 시인 최승철의 다른 작품 《밀림속을 걸으며》에서 찾아보자.

구름우에 솟은 뱀부리들은  
위엄에 찬 초병같이 천리를 살피고  
해빛에 번쩍이는 깎아지른 벼랑들엔  
무서운 힘이 뻗쳐있구나

해빛도 흐려지는 으스스한 골짜기엔  
하늘도 돈있같이 알룩이는 밀림  
훈풍에 머리감는 이깔나무 분비나무  
나뭇기는 푸른옷 호화롭구나

여기 가슴에 젖는 승엄한 교요속엔  
불멸의 자욱이 빛나고있나니  
머리를 숙이노라, 성스러운 밀영지여  
폭풍같은 세월을 앞뒤에 두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사색에 잠기셨던 천막자리여

아, 그이께선 이토록 험한 길을 가시며  
구름처럼 밀려드는 일제를 치셨도다

그이께선 눈속에, 모진 바람속에  
세상의 고난을 한몸으로 헤치시며  
우리를 해빛아래 이끌어주셨거니

자욱히 뒤엎킨 푸른 안개여  
네속을 한번 걸어본 사람은  
누구나 온 생애를 빛나게 살리라!  
누구나 수령님의 전사된 영광을 위해선  
불타는 열정에 살아야 함을  
가슴벅차도록 깨달으리라

나는 사랑한다, 수몰의 바다를  
여기선 나를 잊어버리고  
황홀한 꿈같은 생각에 잠기나니  
아름다운 음악과 웃음소리는  
너의 소리에서 우리나라지 앓았나

마음은 수림우에 수리개되여 날아돌며  
조국의 힘찬 목소리를 듣는다  
눈앞엔 옛길에 깃든 가지가지 일들이  
수없는 뱀부리같이 솟아오르고  
용기는 하늘을 치며 리상을 부른다

밀림이여, 너의 신비로운 목소리엔  
구름도 길을 잃고 사그러지는구나  
네 우에선 조국의 원썩들 벌레같이 여겨지나니  
그것들을 세상밖에 쫓아던진다!

이 작품에서 시인에 의하여 발견된 새것이란 어떤것인가?

작은 의미에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구름우에 솟은 산들을 천리를 살피는 위엄에 찬 초병으로 느낀것이며

해빛도 흐려지는 으스스한 밀림속에서 하늘을 알룩이는 돈있으로 느낀것이며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께서 구름처럼 밀려드는 일제를 치시며 눈속으로, 모진 바람속으로 헤쳐가신 길을 암흑속의 인민을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신 길로 느낀것이며

오늘의 조국땅우에 흐르는 아름다운 음악과 웃음소리를 백두밀림속에서 우려나온것으로 느낀것이다.

큰 의미에서 새것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백두밀림속을 한번 걸어본 사람은 온 생애를 빛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수령님의 전사된 영광을 위해선 불타는 열정에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하늘을 치는 용기와 리상을 안고 조국의 원썬들을 벌레처럼 여기며 땀싸리비로 프락을 쓸듯 그것들을 세상밖으로 끌어던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는바와 같이 여기서 새것은 느낌과 주장으로 나타났다.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이 있기때문에 새것으로 감득하게 된다.

새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느낌과 주장이 하나로 된다. 그것은 마치 몸은 둘이지만 모습은 하나인 쌍둥이를 방불케 한다. 분간하기 어려울만치 유착되고 밀착된것이 느낌과 주장이다.

서정시의 존재방식이 바로 이렇다. 주장하는 사상이 감정의 축적과 폭발로써 완결을 보는것, 그것이 서정시이다.

여기로부터 서정시는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고 관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이 요구를 관철하자면 느낌이 아닌것, 주장이 아닌것을 분간해낼뿐아니라 남다른 느낌이 아닌것, 자기다운 주장이 아닌것도 분간해낼줄 알아야 한다.

쌍둥이어머니가 선동이와 후동이를 쉽게 분간해보듯이 시인은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에 예민해야 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를 때라야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이 서정시의 생리라는것을 파악한것으로 된다.

그러면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에 예민한 시인의 길은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그 길은 무엇보다도 인간생활과 자연현상에 대한 부단한 관찰과 끊임없는 습작과정을 거쳐서만 열리게 된다. 느낌이 남다르고 주장이 자기답다는 그자체가 시인의 관찰력과 숙련을 전제로 하고있다.

남다른 관찰력을 키워나가고 높은 숙련을 쌓아 나가는데서 시인은 소설가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시의 생리에 맞는 관찰능력을 키워나가고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고 관통된 숙련을 쌓아 나가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편집자는 1973년 여름에 시인들과 함께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답사한적이 있었다.

시인일행은 9명이였다. 그중에는 젊은 시인도 있었고 중년시인도 있었다. 사색과 흥분으로 충만된 유쾌한 일행이였다.

저녁녘에 무두봉숙영소에 도착한 일행은 거기서 하루밤을 묵게 되였다. 날이 밝으면 백두산에 오르게 된다. 백두산에 올라 수해천리에서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보려고 모두 일찌기 잠자리에 들었다.

기다린 새날은 더디게 밝아왔다. 모두 일찌기 일어나 차비를 하고 나섰으나 백두산에는 난데없는 검은 구름이 덮여있었다.

시인들속에서는 그래도 오르자는 사람과 좀더 기다리자는 사람으로 갈라졌다.

이때였다. 한 중년시인이 나섰다.

백두산에 오르는 하루 한낮이

15성상에 비길데 없는 한순간이건만

그 순간마저 날개이기를 기다리며

무두봉밑에서 서성거리는 내 모양이 부끄럽구나

중년시인은 이렇게 즉흥시를 읊고 앞장에 서서 백두산을 향해 걸어갔다. 그 시가 무슨 힘을 주었는지 시인모두가 그를 따라나섰다.

일행이 백두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구름이 터지더니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기듯 구름은 살같이 흩어지고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꽃도 있고 눈도 있는 산

번개도 있고 열매도 있는 산

그 뉘의 마음도 다 끌어당길듯

백두산은 사시절을 펼쳐보이누나

중년시인이 다시 이렇게 이었다.

조화도 신비로운 백두산은 이번엔 돌개바람으로 시인들을 상상봉으로 떠밀어주었다. 일행은 비웃들을 펄럭이며 춤추듯 날으는듯 오르고 또 올랐다. 백두산은 세계의 지붕같이 높아도 누구나 다 오르라고 서서히 높아진것만 같았다. 떠나온 평양에서부터 시작된듯 백두산은 오를수록 숭엄하였다.

옷을 적시는 소낙비면 어떠랴

몸을 얼कु는 눈보라면 어떠랴

고생을 락으로 삼고 만난을 헤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매듭은 풀리리라

여기에 핀 꽃이 꽃다워라

여기에 자란 나무가 나무다워라

어느것이든 결사의 싸움에서 이긴

백두산의 참모습이 아니라

천지가 가까와오자 시인들은 흠어져올랐다. 천지를 먼저 보려고 저마다 앞을 다투었다.

그러나 중년시인은 서둘지 않았다. 자기의 명상 속에 솟아있는 장군봉으로 서서히 오르고있었다.

그 옛날 **김일성** 장군님 뒤를 따라  
머슴군도 벌목군도 금전군도 올랐더라  
시련과 파란곡절 헤쳐나간 기쁨만이  
그러한 영광만이 가득찬 신비경으로...

아, 장군봉 우러러 펼쳐진 수해천리  
이팔 분비의 군집갈지 앓구나  
강철의 령장을 따라나선  
항일대군의 정렬이 아닌가

말하라, 백두산  
웨쳐라 백두산  
여기에 투지를 버린 아름다운 생이 있고  
혈전으로 빛내인 위대한 사상이 있어라 !

이것이 백두산에 대한 중년시인의 첫 느낌이고 첫 주장이었다. 그 느낌이 얼마나 남다른데가 있고 그 주장이 얼마나 자기다운데가 있는가.

편집자는 벌써 마음속으로 이 즉흥시를 채택하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에서 돌아온후 편집자는 9 명의 시인들로부터 여러편의 작품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중년시인의 백두산에 대한 즉흥시가 어떻게 완공되었는가 하는것이 커다란 관심사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편집자가 받은 작품은 그 작품이 아니었다.

만일 새 작품이 그 작품보다 못하였다면 편집자는 틀림없이 백두산에 대한 즉흥시를 요구하였을것이다. 다행히 새 작품이 더 좋았던 관계로 그런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비작품으로 지목해두는데서는 빼버리지 않았다. 작가에게 예비작품이 많아야 하듯이 편집자에게도 예비작품이 많아야 하기때문이다.

1 년이 지나고 또 2 년이 지난뒤에 편집자는 그때의 즉흥시가 생각나서 중년시인을 찾아갔다.

그는 또 다른 작품을 주는것이였다.

편집자는 혹시 이 시인이 백두산에 대한 즉흥시의 상을 잊어버렸거나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르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번 다시 들어보라고 말하였다.

쾌활한 시인이였으나 갑자기 당한 일이여서 옮기가 거북한지 자기의 량수책상밑에서 《관찰자료집》을 꺼내들고 후르르 번지더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였다.

거기에는 《백두산으로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편집자가 기억하고있는 그대로 적혀있었다. 여기에서 편집자는 이 시인이 관찰과 습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관찰한것을 제목을 달고 시로 습작하고있었다. 이것은 그가 느낌과 주장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의 습득과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그의 관찰은 곧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의 축적으로 되고있었다.

앞에서 본 이 시인의 백두산에 대한 관찰이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고 관통되어있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관찰자료들을 더 들어보기로 한다.

#### △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에서

발이랑같은 흰 구름이  
비료공장 하늘우에 펼쳐져있네  
활활 흰 연기 뿜는 굴뚝들은  
그 발이랑들에 뿌리는 비료갈네

저런 후한 마음이  
해마다 풍작 이루는  
이 나라 논밭들에  
어느 이랑이면 가닿지 않았으랴

#### △ 뿔럭불가담나라 만세

세계지도앞에 금지높이 서라  
지난날을 깨달은 나라 얼마나 많은가  
침략자들에게 빼앗기고 털리운만큼  
투지를 가다듬은 나라 얼마나 많은가

제국주의자들의 탐욕을 채우기엔  
하나의 대륙으로도 부족한것  
그때문에 대륙과 대륙이 뭉쳐  
침략자들의 먹살을 틀어쥐였다

이제 남은것은 마지막 타격  
발버둥칠새 없이 꺼꾸러뜨리라  
지구우에 략탈자를 그냥두고는  
어느 대륙도 편안할 날 없으리라

뿔럭불가담나라들의 힘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힘 !  
이 힘을 키우라, 분초를 다투어  
이 힘을 지키라, 경각성을 높여 !

#### △문

가정과 세상은

문 하나 사이둔것  
문은 닫겨있어도  
언제나 열린듯이 살아야 하리

#### △ 밤갈매기

내 사는 대동강반에  
밤갈매기 날아도네  
밀물따라 썰물따라 오가던 갈매기  
오늘은 어이하여 서둘지 않는가

밀물도 썰물도 없어진 강반  
길 잃어 못가는 갈매기 아니라네  
주체사상탑 해불이 떠오르는 하늘우에  
마음놓고 날아보는 갈매기라네

#### △ 산골의 피아노소리

그 누가 울려주는  
조국의 노래인가  
휴양각은 숲너머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선물만 따라오네

그리워져라, 살뜰한 고장들이여  
내 사랑 기울인 땅은 넓구나  
한일없이 휴양온 사람 아님에  
저 노래 듣기가 몇몇하구나

벼랑끝에 자란 소나무야  
내 피흘린 고장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감도는 수리개야  
내 땀흘린 고장을 찾아보아라

#### △ 12 월

아이들이 입은 솜옷을 보고  
겨울은 오다가 되돌아간듯  
12 월에도 따뜻한 날이  
내 나라에선 계속되고있구나

#### △ 용광로가 바라보이는 바다가에서

파도치는 기슭에 거연히 선 용광로  
목메인 연기를 해풍에 날리네  
낮에도 천리 밤에도 천리  
땅으로 바다로 쉽없이 날리며  
용감한 아들들의 얼굴을 그려주네

#### △ 평양산원

목에 태줄이 감겨  
첫 울음 터치지 못하는 아기 없도록  
다심히 보살피는 그 마음이  
저 산원의 큰문에 비껴있구나

아기의 첫 울음만 듣고  
세상 떠나는 어머니 없도록  
어머니당의 따뜻한 손길이  
저 산원의 창문마다 어려있구나

이것이 한 중년시인의 《관찰자료집》에서 취한 몇개의 실례이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시인의 관찰자료가 즉흥시로 씌여진것이며 거기에 일관되고 관통되어있는 것은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이라는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단평

# 시적 정황과 전형화문제

- 《조선문학》 1987년 11월호의 조국통일주제의 시들을 중심으로 -

승경희

조국통일에 관한 주제, 이것은 우리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적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은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고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방안과 진지한 노력은 내외 인민들의 더욱더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우리의 시문학은 조국통일주제를 자기의 주제 영역에 포함시켜 그것을 훌륭히 형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문학》 1987년 11호에는 여러편의 조국통일주제의 시들이 있다.

이 주제의 시들은 조국 남쪽땅의 절통한 비운의 정황과 공화국북반부의 행복한 모습의 정황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황은 사건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는 구체적 조건이며 성격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바탕이라고 하시었다.

서정시의 경우 정황이란 서정적 내용을 전개시킬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며 서정이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실제적인 생활바탕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에서 정황의 전형화문제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기보다도 서정적 내용을 전개시키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미학상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것이다. 조국통일주제와 시들에서 시인의 강렬한 통일념원의 정서와 사상을 느낄수 있는것은 시적 정황에 대한 문제가 서정시 창작의 실천적 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시 《산 너는 백만》(리상림)은 시적 정황이 거의 그려지지 않은 시라고 볼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시적 대상인 남녘의 애국학생 리한렬의 령구와 백만의 군중만이 뚜렷이 제시되고있을뿐이다. 정황이라고 그려진것이 있다면 《숨막히는 천지》라고 표현하고있는 남조선사회상을 묘사한 정황뿐이다. 그러나 시 《조명탄》(신병강)은 우의 시와는 달리 정황이 어느 정도 진하게 그려지고있고 《통일거리》(권영호)에는 정황이 보다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져있는것이다.

시적 정황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추리할수 있는가. 문제는 정황들이 시인의 강렬한 주정에 의하여 그려지기만 한다면 그 정황이 짙건 짙지 않건간에 서정을 유발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바탕으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시 《산 너는 백만》에는 시적 대상과 정황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있다.

죽은 너는  
하나  
산 너는  
백만  
한렬아  
너의 령구앞에  
백만이 서있다

숨막히는 천지를 앞에 두고는  
차마 눈을 감을수 없어  
뜨고간 너의 눈이  
백만의 눈이 되어

이 시에는 《숨막히는 천지》의 정황 이외에는 아무런 시적 정황도 찾아볼수 없다. 다만 그 숨막히는 천지에서 누워있는 리한렬의 령구와 백만군중인 시적 대상만이 표현되어있는것이다. 그만큼 시인은 시적 대상으로의 침투의 《폭》을 좁히고 오로지 그 시적 대상에 고스란히 뱃을 쏟고있는것이다.

놀리워 살아서는 사는것이 죽음이어서  
싸우다 싸우다 쓰러진 너  
불굴한 너의 뱃이  
백만의 뱃이 되어

자주와 민주를 부르짖던  
피타는 너의 목소리  
무서운 퇴성벽력으로  
백만대오에 메아리치나니

희생된 애국청년을 산 애국청년으로 보는 여기에 시인의 환상이 있고 시인의 리상이 있는것이다.

죽은 너는  
하나  
산 너는  
백만  
아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수천만이다

시의 첫 머리에서 분출했던 감정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시의 마감에 다시 강조적으로 반복하면서도 시인은 리한렬의 죽음에 대한 절통한 심정에서 《산 너는 백만》이라고 한 처음의 주정마저 부정하고 리한렬의 애국적 소행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수천만》이라고 시의 주정을 한단계 더 승화시키고있다.

이 시에서 복잡한 정황묘사가 어찌하여 필요하지 않았던가?

희생된 령사를 앞에 두고는 시인은 오직 그의 령구에만 자기의 온 뱃과 주정을 쏟아야 할뿐 다른 이여의 정황에 눈길을 던질 그 어떤 의무감도 없었기때문이었다.

시 《산 너는 백만》을 유심히 보면서 우리는 그려진 정황이 서정화된 단순한 정황이라 할지라도 그 시적 대상의 특성에 알맞는 정황이라면 그 정황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형상의 일반화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정황의 전형성에 대한 창작실천적 경험을 찾게 되는것이다.

일부 서정시들에는 정황묘사가 비교적 복잡하게 된 것도 있다.

시 《조명탄》과 《통일거리》에 형성된 시적 정황은 상세하다. 특히 시 《통일거리》에서는 통일거리의 정황이 시의 앞머리에 무려 3련에 걸쳐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서정적 주인공이 통일거리로 들어서는 정황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거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지점에서 보고 느끼는 정황이 그려지고 있으나 이 시의 대상적 특성으로 보아 무리없이 전형화된 정황으로 독자들에게 읽히워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조국통일주제의 시 창작에서 분렬된 조국강토의 비운의 정황에 대한 전형화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형상적 기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황을 전형화하지 못하면 그것을 시적 정황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그런 정황은 시적 정황이 못될 뿐더러 사상적 내용의 측면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리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 《조명탄》은 특색있는 정황묘사를 시도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의 교훈을 안고 있는 시로 되었다.

애당초 이 시에서는 원쑤들의 저주의 조명탄화광을 우리 생활의 즐겁고 행복한 축포의 화광에 대비시킬 수 없는 것이다.

원쑤들이 쏘아올리는 조명탄화광인 그 저주의 시적 대상과 그 대상에 그럴만하게 어우러진 정황

이 아닐 때 그런 정황은 전형적인 시적 정황으로 될 수 없지 않겠는가. 전형화되지 못한 정황이 시에 그려진다면 시는 그만큼 흐려질 뿐이다.

시 《조명탄》의 첫련 정황은 이 시에서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도 얼굴에 있는 기미와 같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는 그 다음의 정황(이 시의 둘째련의 정황) 묘사로부터 시작되는 시적 대상에로의 즉시적인 시인의 육박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랬더라면 공화국북반부지역의 신흥리 벌판의 논갈이하는 트랙트르운 전수가 켜 두줄기 전조등불빛에 원쑤들의 조명탄화광을 대조한 매우 인상적인 생활적 내용이 서로 무리없이 어울린 조국통일주제의 서정시를 낳는 결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우에서 이야기한 시 《산 너는 백만》은 시어가 간결하게 정제되었고 또 그런 것만큼 시적 정황과 대상이 별개의 구성부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황과 대상이 그야말로 하나의 《유기체》로 어우러져서 어울림되고 있는 형상적 기교를 보여주었다.

이런 것일 때 서정시는 전형적인 서정시의 모양새를 갖추고 서정문학으로서의 체취가 안겨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보다 훌륭한 조국통일주제의 시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우리 시인들은 시적 정황과 전형화문제를 비롯한 시형상의 미학적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 영원한 삶의 위치로

윤두근

아들아, 여기 오너라  
싸움의 날  
원쑤의 불구멍 몸으로 막은  
아버지의 옛 분대장이다

동갑인 나의 머리엔  
이렇게 흰서리가 내렸어도  
그는 오늘도  
그날의 열아홉 청춘으로 살아있다

수령님을 위해 바친 생엔  
죽음이 없음을  
자신의 빛나는 삶으로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다

보아라 참다운 삶이란  
바치는 충성의 높이에 있어  
그 높이에 따라오르고저  
이 영웅관을 찾는 저 흐름을

성스러운 군사복무의 길에  
이제 위훈의 자욱을 새겨갈

저 신입병사 너의 포레들이  
누가 시켜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간석지 건설장에 간다는  
저 돌격대 젊은이들  
남들이 다 찾아오니  
저희들도 한번 둘러보자는 걸음이 아니다

기쁘구나 아들이  
로병인 이 아버지의 마음  
당의 품에 자란 너희 세대가  
서야 할 삶의 위치를 아는 것이

미덥구나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을 너도  
그렇게 값높이 살아  
영웅의 그 삶을 따르겠다니

아, 초소로 떠나보내기 앞서  
내 오늘 너와 함께  
이 영웅관으로 찾아온 것은  
바로 그 마음에서였거니

떠나거라 아들이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

영웅전사들이 섰던 그 자리  
영생하는 삶의 위치로!

## 조국의 품

-한 해외동포의 수기에서-

안정기

꿈결이면 그 얼마  
생시면 또 그 얼마  
그리워 그리워 찾던  
조국이며, 내가 왔다

조선에서 태어났건만  
조선에서 못살아  
꿈결에도 그리워 울던  
이 몸을 불러주었구나  
어머니 내 조국이며

생각에 젖어  
만수대 충계를 오르니  
아버이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어서 오라 손을 드시는듯  
눈물에 젖어 우러르는 저 하늘엔  
기쁨이 어린 무수한 창문들  
나를 향해 반겨주는듯

아, 예로구나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  
인민의 리상향  
갈곳 몰라 헤매이던  
내 마음 끌어당긴 태양의 인력

내 이제 알겠구나  
어찌하여 세상길이 다 여기로 열렸는가를  
내 돌아와 안긴 품이  
그리도 멀건만 그리도 가까운줄을

생각하노라  
나를 버린 남녘을 저주하며  
찬비에 젖던 이역의 항구여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며  
울분에 가슴치고 량심에 울던  
약육강식의 거리들이여

남은건 오직 하나  
황금을 주어도 팔수 없고  
죽음을 준대도 빼앗길수 없는  
민족의 얼  
내가 조선사람이라는 그것

그 하나를 못버려  
머리 희도록 찾아헤매였노라  
넋을 주고 살아갈 어머니 품을  
그 어느 천애고도에 간대도  
심장을 주고 살 조국의 품을

아, 조국이며  
세파에 부대낀 이 가슴  
따사로이 끌어주는구나  
못나도 제자식 탓하지 않는  
어머니 그 마음 여기 있어  
은혜로운 그 태양 여기 빛나

너는 빛과 사랑이 퍼져가는  
삶의 시작점  
참된 진리를 안겨주는  
인생의 고향이구나